태어날 때부터 소녀에겐 부모가 없었다.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소녀가 버려진 곳은 지독하기로 소문난 동쪽의 거대한 슬럼가. 그곳에서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인 채로 줄곧 자라났다.

빈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빈곤의 지역이라 말하는 슬럼가. 그곳은 부패하고 썩을 때로 썩었으며 약한 사람은 도무지 살 수 없는 최악의 장소와도 같았다. 소녀도 마찬가지로 슬럼가에서 자라난 이상,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할 만큼 이기적이어야 했다. 슬럼가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독한 현실이었으니까.

도둑질은 기본으로 남을 짓밟아 돈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빼앗아 살아가는 슬럼가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이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적었다. 그나마 젊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창부의 일. 창부의 일이라 해도 젊거나 외모가 보통정도면 적은 한 끼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슬럼가의 현실.

어둡고 폐쇄적인 내면이 그대로 들어난 이 슬럼가에서 소녀는 당시 갓난아기였을 적, 한 창부에게 주워졌다.

거의 먹질 못해 젖도 나오지 않는 창부의 젖을 쥐어짜며 소녀는 창부의 손에서 자랐다. 그리고 소녀는 일찍이 세상을 알아버렸다. 소녀가 열 살이 되던 해. 소녀를 키우던 창부는 결국 굶주림과 병에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나 소녀는 슬프지도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자신을 길러준 고마움? 만약 창부가 너무도 상냥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마음을 느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때 당시 갓난아기였던 소녀를 거둔 창부는 소녀가 말을 떼고 7살이 된 무렵부터 학대를 일삼았다. 소녀는 갑작스럽게 성격이 변한 창부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창부에게는 한 남자가 있었고, 늘 그 남자가 곁에 있으면 괴상한 웃음소리를 낼만큼 창부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그 남자가 있으면 창부는 늘 행복한 웃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남자가 창부의 곁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매일 어디선가 가져오는 싸구려의 독한 술과 의미 모를 하얀 가루를 섭취해 더더욱 괴상한 웃음을 흘리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마치 소녀에게 분풀이를 하듯 시작된 학대. 그러나 결국 그녀는 오래 살지 못한 채로 소녀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언뜻 보면 술에 절어 잠이든 모습과 같았지만 소녀는 그녀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창부의 학대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자신을 손찌검하던 고통은 이제 없음을. 다만, 소녀는 혼자가 되었다. 학대를 일삼던 그녀는 죽어버렸고 동시에 소녀가 살아야할 집조차 이젠 없었다. 그리고 지옥의 시작이었다.

집은 물론이고 어느 한 곳 조차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소녀는 늘 길바닥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특히나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이 오는 날이면 그나마 비와 눈을 막아주는 골목길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그 잠조차 제대로 자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나 폭우가 오는 날이면 소녀는 홀딱 젖은 채로 골목길에 숨어들어 비를 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추운 겨울의 어느 날. 그 날은 아주 춥고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헝겊이란 헝겊은 모두 몸에 감고서 여전히 골목길에 숨어 몸을 붙이고 있을 때, 소녀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다. 소녀의 눈에 띈 두 사람은 작은 손으로 눈사람을 만드는 한 아이와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이었다.

모자지간인지 두 사람은 이렇게 추운 날임에도 이상하게 행복해 보였다. 슬럼가에선 보기 드문 행복한 모습. 차가운 눈을 만지며 기어코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그런 자식을 보며 여인은 아이의 두 손을 꼬옥 잡아 본인의 입김을 불어 아이의 손을 녹여 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소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신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소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자신은 누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일지. 왜, 자신은 버려진 것인지. 단 한 번도 의문조차 의심조차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한때 소녀를 무자비하게 학대를 일삼던 창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네가 왜 버려졌는지 알아? 그건 네가 태어난 것을 네 부모가 부정했기 때문이야! 태어나자마자 그것도 슬럼가에 버려진 거라면 너무도 뻔하지 않니?! 그건 네가 쓸모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왜 일까, 소녀는 창부의 학대에도 아무 말 없이 참을 수 있었다. 내색한번 하지 않았다. 전부 창부의 말이 틀리지 않은 거라 생각했으니까. 자신이 슬럼가에 버려진 이유가 그것이라면 정말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도 비참해 보여서 일까. 아님 그동안 참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야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그녀가 말했던 폭언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정말로 자신은 부모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라 버려진 것인지, 자신의 태어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이곳에 버린 것인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자 소녀는 줄곧 눈사람을 만들고 있던 모자에게서 시선을 떼며 고개를 깊숙이 숙여버렸다.

‘난 정말로 버려진 걸까? 내가 너무 못나서… 필요가 없어서 버린 걸까? 고작 태어났을 뿐인데… 심지어 난 내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소녀는 처음으로 표현했다.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슬픔’이란 것을. 그것은 너무도 쓸쓸하고 비참해질 만큼 마음이 비틀려져 버렸다.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버린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너무도 미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녀는 차갑게 눈물을 흘러 내렸다. 증오하리라, 원망하리라, 미워하리라. 자신을 이렇게 무참히 버린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소녀는 분노와 증오를 품었다.

시간은 또 다시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소녀는 열두 살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녀에겐 따뜻한 집도 돌아갈 집조차 없었다. 여전히 골목길이나 쓰레기장을 전전하며 몸을 숨기고 잠을 청해야 했고 굶주림은 이젠 평범하다 생각할 만큼 일상이 되어버렸다. 정말로 운이 좋으면 슬럼가를 지나가던 불법거래를 하는 상인들이 나타나 먹을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취급도 영 좋지 못했다.

마치 그들은 슬럼가의 사람들을 쓰레기로 보듯이 자신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대놓고 땅에 버리고 짓밟으며 음식을 먹길 유도했지만, 대부분의 슬럼가의 어른들은 자존심에 아무도 땅에 버려진 음식을 먹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짓밟힌 음식 쪼가리를 먹는 건,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 뿐.

특히나 음식에 눈이 뒤집혀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들은 아이들을 가축 보듯이 비웃으며 신나게 웃을 뿐이었다. 그리고 소녀 역시 제 아무리 악덕 상인들이 더욱 일부로 그런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려 들 수밖에 없었다. 땅에 떨어진 음식 쪼가리라도 먹지 않는 이상, 언제 굶어죽을지 알 수 없었고 소녀는 이곳에서 살아남고 싶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든 혹시라도 미쳐 버려 시체를 먹든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 살아남고 싶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아가 당당하게 앞에 서며 말하고 싶었다. 당신들이 버린 딸은 이렇게 살아있다고. 슬럼가에서 오물이고 더러움이고 모든 것을 뒤집어쓰며 악착같이 살아남아 이렇게 당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그런 지독함을 하늘은 알아주기라도 한 것인지 소녀는 다시 나이를 먹고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었다. 그리고 소녀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어 버렸다. 순수함 따윈 애초에 슬럼가에 버려졌을 때부터 없었을지도 몰랐다. 창부의 손에 자라 일찍이 세상을 알았고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았다. 슬럼가에서 사는 이상, 누군가에게 무엇을 양보하는 것은 물론 상냥함만으론 살아남기 힘들었다.

더럽고 타락해지지 않는 이상, 자기밖에 모를 만큼 이기적이지 않는 이상, 슬럼가에선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슬럼가에서도 가장 악질이라 일컫는 또래 소년 소녀들이 모여 있는 도적단에 들어가 소녀는 도둑질을 배웠고, 노예상단과 얽혀 돈이 될 만한 일은 모든지 했다.

누구나 처음은 쉽지 않았다.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일은 양심이란 마음이 소녀를 뒤 흔들었다. 과연 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도 되는지, 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물건을 빼앗음으로서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그리고 소녀는 첫 도둑질은 망설임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물론, 실패와 동시에 하필 사람을 잘못 고른 탓에 얼굴이며 몸이며 구타당할 수밖에 없었다. 입가가 찢어진 것은 물론, 몸 곳곳은 퍼렇게 멍이 들어 안 그래도 낡은 천조가리 걸친 거나 다름없는 옷임에도 팔이며 다리며 멍투성이였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로 소녀는 깨달은 것이 있었다. 또 다시 실패하면 또 다시 구타당하거나 잡혀가 노예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죽음. 이를 악물고서라도 도둑질에 성공해야만 했다. 그렇게 시작된 열두 살 때의 첫 도둑질과 이젠 손이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익숙해진 열다섯 살의 도둑질.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열여덟 살이 된 소녀는 성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 아니 그녀의 앞에 수 십 명의 병사들이 그녀의 앞길을 막았다.

“저희와 같이 성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그녀는 허름한 차림으로 도적단의 아지트를 찾아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슬럼가는 웅성거리기 바빴고, 그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웅성거리기 바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웅성거림이 왜 그렇게 소란스러운지 그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자신과 인연조차 없을 거라 생각하며 무심하게 지나가려던 그녀의 앞에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제자리에 멈췄고, 심지어 그들의 대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앞에 나서며 그것도 정중히 예를 차리면서까지 그녀에게 마차를 탈 것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신종 노예상단이나 인신매매 단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어딘지 그들의 옷차림이나 모습이나 하나같이 정중했고 조용히 자신들의 말을 하며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모습에 그녀는 무언가 있다는 생각과 여전히 의심을 가득 가진 채로 마차에 올라탔다.

‘만약 정말로 노예상단이나 인신매매 단이면 서둘러 도망치면 되겠지. 도망치는 건 쉬우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뭐지? 왜 하필 나를 데려가는 걸까. 설마, 요즘 슬럼가에서 자꾸 여자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이 놈들이라면?’

한가득 의심을 품은 채로 마차에 올라, 마차가 출발할 때까지 그녀는 무수한 시선을 받아야 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이기에 저들의 호위를 받는 것인지, 휘황찬란한 마차에 올라 어디를 가는지, 슬럼가의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마차에 앉아 문이 닫히자 창밖에는 말에 올라 출발을 알리는 그들의 대장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처음 덜컹거리는 것을 빼곤 마차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슬럼가를 벗어나기 위해 바퀴를 움직이고 있었다. 점점 멀어져가는 슬럼가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몇 번이고 빠져나가고 싶었던 슬럼가의 모습.

평민보다 슬럼가 사람은 그 이하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신분증조차 제대로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신분이 없기 때문에 슬럼가 사람이 슬럼가에서 벗어나면 금방 들키며, 만약 위조신분을 만들 수 있다 해도 어마어마한 거금이 들기 때문에 위조신분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위조신분을 만들 날까지 기다리며 슬럼가에서 탈출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던가. 그런데 그 위조신분조차 만들기까지 아직까지도 시간이 걸리건만, 그녀는 마차를 타고서 너무도 쉽게 슬럼가에서 나올 수 있었다. 너무도 간단히 말이다.

어느새 창밖의 풍경은 그토록 우중충하던 슬럼가에서 벗어나 점점 밝은 빛을 띄우는 장소로 이동하더니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에 본적이 없는 풍경들이 펼쳐졌다.

그녀는 모든 세상이 슬럼가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다. 어딜 가든 우중충하고 모든 사람들이 슬럼가 사람들처럼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고 어두 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전혀 달랐다. 슬럼가에서 제대로 보기 힘들던 풍성하고 웅장하며 파릇한 나무들의 모습.

그곳은 사람처럼 나무들도 풀들도 시들어 푸른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그녀는 몰랐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나무들과 풀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듯 너무도 푸르고 눈부셔 마치 이 세상 같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동안 창밖에 있는 숲속의 풍경들만 지켜보다 점점 나무들의 수가 줄어들고 건물들이 나타나자 그녀는 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멋진 건축물들과 하나같이 눈부시기 짝이 없는 알록달록한 배경들. 그리고 모두가 우울하고 우중충 할 거라 생각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이곳의 사람들은 너무도 환희 웃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새로운 아니, 전혀 다른 세상과도 같았다. 마치 빛이 전부인 세상. 그에 반면 그녀가 살고 있던 곳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마차의 움직임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듯 점점 더 빛이 있는 곳으로 그녀를 태우고 이끌었다.

한참동안 달리던 마차가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고 도착한 곳은 너무도 눈이 부실만큼 거대하고도 웅장한 높은 성. 그들이 말한 성이 바로 이곳이었다.

마차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서두르길 바라는지 제일먼저 앞장서던 대장으로 보이는 이가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지요.”

“여긴….”

왠지 바깥의 빛이 강하게 이끄는 것 같아 그녀는 선뜻 마차에서 내리기가 불안했다. 이대로 그 빛에 삼켜져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는 미소하나 없이 딱딱한 얼굴을 한 채로 이곳의 위치와 성의 이름을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치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는 인형처럼.

“이곳은 왕성 뤼에임 입니다. 수도 르네의 자랑이자, 사브레 왕국의 주인이신 국왕폐하께서 계신 곳입니다.”

국왕이라고? 그녀는 혹시 사내의 말을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인 채로 쳐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에게 대답을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인지 사내는 그녀에게 따라올 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움직여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왕이 산다는 이름만 들어본 「성」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고귀한 사람뿐이라는 말을. 평민은 물론이고 특히나 슬럼가 사람들조차 감히 들어 갈수도 꿈조차 꿀 수 없는 성스러운 곳.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스러운 곳은 물론이고, 이름만 들어봤지 왕이 산다는 성에 자신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녀는 사내의 뒤를 따라가며 줄곧 생각했다. 왜 자신이 이런 곳에 있는지, 또 그들은 무슨 이유로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것인지. 하지만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사내를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도 자신을 부른 이가 누군지도 알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마차에서 내려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 성을 지나 그녀가 사내를 따라 걸음을 멈춘 곳은 또 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궁전이었다. 사내가 말한 왕성 뤼에임은 단단하고 딱딱하며 웅장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궁전은 아름다우며 마치 하늘나라의 궁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애초에 하늘나라의 궁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런 느낌이 들만큼 눈앞의 궁전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계속 따라오십시오. 그 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내가 말한 그 분이란 건 과연 누구일까. 하지만 그 궁금증도 잠시,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눈에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궁전 내부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젊은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사내와 그녀의 등장으로 잠시 동안 바삐 움직이던 여인들은 일순, 동작을 멈추어 사내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간간히 짧은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다. 그러나 사내의 손짓에 여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자미 눈 마냥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차라리 대놓고 보고 있다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흘긋흘긋 쳐다보는 여러 명의 시선이 그녀는 불편할 쯤 이었다.

“오셨습니까?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올라가시지요.”

사내의 앞에 또 다른 젊은 여인이 딱딱한 음성으로 위층으로 안내하고자 했다. 그리고 안내하는 젊은 여인을 따라 사내가 움직이자 그녀 역시 그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한눈에 봐도 고급 소재로 만든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타고 얼마나 올라갔을까. 어느덧 그녀는 굳게 닫혀 있는 어느 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와 사내를 이곳까지 안내한 젊은 여인이 문을 두드리며 조금 더 크게 울리는 목소리로 안쪽에 들릴 수 있을 만큼 대답했다.

“왕비전하,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왕비전하?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안쪽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여인은 의아한 표정 할 것 없이 다시 고하기 위해 입을 열려던 찰나, 드디어 안쪽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들여보내라."

안쪽에서 들리는 고운 목소리에 여인은 조심스러운 손짓으로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이 그녀의 눈을 잠시 동안 따갑게 만들어 몇 초 동안 그녀는 빛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러다 차츰 눈이 빛에 적응이 되면서 문이 열린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한 여인이 고고히 앉아 있었다.

“자네는 수고 했네. 이제 그만 물러가게.”

“예,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인의 조용하고도 날이 선 듯 한 냉한 목소리에도 사내는 움찔하는 표정 하나 없이 이 장소를 빠져나갔다. 사내가 이 자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말을 아끼던 여인은 한참 후에서야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움직였다.

“내 앞까지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마. 가까이 오도록.”

냉한 목소리가 조용히 내부를 울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맨발을 움직이며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지나 이곳 내부역시 고급 융단인지 카펫인지 모를 무언가로 덥혀 있는지 한발 한발 바닥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맞닿는 그 촉감이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왜 일까. 점점 여인의 곁으로 다가갈수록 심장이 한 박자 움직이더니 점점 고동을 치듯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한발을 바닥에 붙이는 것을 끝으로 제자리에 선 순간, 그녀는 멀리서 보던 여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슬럼가에서 사는 여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입지 못할 만큼 고가의 드레스와 진주로 장식된 머리 장신구와 갖가지 장신구들. 또, 곱게 빗어 올려 밤하늘을 생각나게 하는 짙푸른 남색의 머리. 몇 년을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곱디고운 새하얀 피부와 곱게 칠해진 옅은 붉은 빛의 입술. 그리고 푸른얼음을 박아 놓은 것처럼 한기가 맴도는 푸른 눈동자에서 그녀는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처음 보는 얼굴임에도 처음 보는 눈동자임에도 불길할 느낌이 들 만큼, 그녀는 이 눈동자를 왠지 모르게 익숙함을 느꼈다.

“당신은….”

그녀의 몸은 마치 사시나무 떨 듯이 손이 떨리고 지탱하는 두 다리가 흔들릴 만큼 위태로이 떨렸다. 오히려 손과 다리만큼이나 크게 흔들리는 건 그녀의 눈동자였다. ‘설마’라는 불안감. 그리고 불 확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불 확신이 앞에 있는 여인을 볼수록 확신이라 느껴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뛸 리가 없으니까. 그녀는 슬럼가에 버려져 열 살 때까지 창부의 손에서 자랐다. 그리고 부모의 존재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창부가 죽고,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온 사무친 외로움. 동시에 처음으로 느낀 부모의 존재와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과 증오. 그 감정을 가지고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만약 슬럼가에서 빠져나간다면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아가 묻고 싶었으니까. 왜 자신을 버렸냐고. 차라리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 버릴 바에야 태어난 그 순간 죽였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비참히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자신의 머리가 또렷이 가리키고 있었다.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란 존재임을.

“그 눈을 보아하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넌 알고 있구나. 그래, 갓난아기였던 너를 슬럼가에 버린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네 어미이다.”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만난 친모의 모습에 기쁨이나 슬픔 따윈 없었다. 오히려 그녀에게 지금 느껴지는 감정은 비틀려진 감정만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왕실에서 스캔들이 터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다. 수도는 물론이고 지방에 사는 귀족들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쫙 퍼져버렸다. 사브레 왕국의 국왕이자 모든 이의 아비인 위스턴 국왕이 가장 총애하는 아라네아 왕비. 그리고 그녀에게서 국왕의 핏줄이 아닌 사생아가 존재한다는 소식과 그 사생아를 왕실에 들인 사실. 역사적으로 보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사생아. 그것은 왕실에 있어 치부이자 제 아무리 국왕에게 조차 사생아가 있다 하더라도 왕실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사생아를 받아들이는 선대 국왕들은 거의 없었다.

하물며 받아들인다 해도 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위스턴 국왕은 그것도 가장 총애하는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를 왕실에 받아들였고, 심지어 왕녀로서 입적 시켜버렸다. 왕실의 전례론 있을 수 없는 일. 귀족들은 물론이고, 왕태자와 왕후까지 반발을 일으켰다. 그러나 위스턴 국왕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했고 오히려 이런 결론을 내어 버렸다.

“태어나자마자 딸과 헤어져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아라네아 왕비가 얼마나 가엾은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왕실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녀의 딸을 받아들인 것을 물릴 생각이 없네. 하지만! 왕비의 딸은 어디까지나 이름뿐인 왕녀 일뿐! 그녀의 딸은 절대로 권력을 가질 수 없으며, 왕실의 피가 흐르지 않으니 그녀의 딸은 절대로 왕가의 무덤에 잠들 수 없는 것은 물론, 왕실에 입적 될 지라도 결코 우리 왕실의 혈통을 이을 수는 없다! 이것이 내가 그녀의 딸을 받아들인 이유이다!”

전례가 없는 일. 그리고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이름뿐인 왕녀. 국왕은 그 이야기를 끝으로 왕비의 사생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만을 가진 귀족이나 왕후의 불만을 달랠 순 없었다. 그렇게 큰 폭풍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음에도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하녀들과 시녀들의 입에선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 사생아 왕녀보다 아라네아 왕비전하가 더 놀라운 걸? 여태까지 자기 자식과 18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그 비밀을 지금까지 꽁꽁 숨기셨고.”

“그런가? 나는 왕비전하보다 그 슬럼가 왕녀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진다니까? 어쨌든 그렇게 긴 세월동안 슬럼가에서 살다가 단숨에 신분상승한 거잖아. 에휴…, 이럴 때면 그 왕녀가 부럽다. 누군 이 팔자가 되도록 평생 하녀인생인데 누구는 슬럼가출생에 그것도 고귀한 왕녀가 됐으니 말이야”

“얘! 폐하께서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어차피 이름뿐인 왕녀라잖아. 권력도 재산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저 이름뿐인 왕녀. 결국 신분이 미천한 슬럼가 출신이니 폐하께서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권력까지는 안주신거지.”

어느덧 하녀와 시녀들의 사이에서 그녀는 이렇게 불러지고 있었다. 이름뿐인 왕녀, 혹은 슬럼가 출신의 왕녀.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하녀들과 시녀들에게 있어 그녀는 그야말로 몇날 며칠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은 화수분 거리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입에서 본인이 언급되든 말든 국왕에게서 하사받은 궁전에 틀어박혀 있는 그녀는 미칠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 겁니까! 헤르세인 왕녀님! 어떤 음식이든 나이프 질을 할 땐, 반드시 소리를 내선 안 됩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쳐서도 안 되며 식기에 부딪쳐서도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렸을 텐데요? 도대체 이 수업만 몇 번이나 반복해야 익히시는 겁니까? 하아, 이래서 천한 피는….”

아라네아 왕비가 붙여준 예절 수업을 받게 된지 벌써 일주일 째. 그녀, 아니 헤르세인은 포크와 나이프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당장에라도 이딴 일 때려치우고 싶었다. 왜 자신이 이딴 수업을 배워야 하는지, 왜 음식 하나 먹는데 일일이 소리를 내지 말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미치도록 짜증나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천하다며 비난하는 예절 교사였다.

자신이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슬럼가에서 나고 자라 신분상승을 한 천한 사람이라 여겨 그런지, 누가 봐도 교사의 눈에 자신이 탐탁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제 풀에 지쳐버린 교사는 신경질적인 어투로 손뼉을 두 번 치며 오늘 수업이 끝났음을 알렸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는 부디 복습을 하시고, 그때는 한 번에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럼.”

“수고… 하셨습니다.”

“흥.”

코웃음을 치며 매정하게 뒤돌아 문밖으로 나가는 교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헤르세인은 교사가 나가는 순간, 그 작은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천한 것’이라는 그 목소리가 귀에 또렷이 들렸음에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왕실에서 모두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알고 있었다. 천한 핏줄, 또는 천한 왕녀, 또는 슬럼가의 왕녀나 이름뿐인 왕녀. 그중에서도 자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은 모두 천한 왕녀라 부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헤르세인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 네 걸음쯤 걸어 바로 눈앞에 있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입고 있는 드레스가 구겨지든 말든 그녀에겐 드레스의 구겨짐 따윈 중요치 않았다. 또, 지금 입고 있는 이 드레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맞지 않는 드레스인지 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헤르세인은 시트에 파묻고 있는 고개를 들어 몸을 뒤집어 멍하니 천장을 보았다. 천장조차 호화롭기 짝이 없는 모습. 그녀는 손을 들어 천장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가리는 두 시야를 완벽히 가려버렸다. 그리고 왕성에 처음 오던 그 날,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대면한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헤르세인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대면한 그 날을 떠올렸다. 너무도 담백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버린 ‘어미’라며 대답하던 모습. 그때의 기억으로 헤르세인은 머릿속이 벌써부터 차가워졌다.

“그 눈을 보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넌 알고 있구나. 그래, 갓난아기였던 너를 슬럼가에 버린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네 어미이다.”

“당신이… 내 어머니... 라고?”

본인을 어미라 칭하며 당당하게 대답한 그녀의 모습에는 그 어디에도 따뜻함과 자애로움 따윈 없었다. 마치 이름뿐인 딸과 이름뿐인 어미라 정해진 형식적인 것처럼 그녀의 눈동자에는 헤르세인을 그저 ‘딸’로서만 인지할 뿐, 반가움도 미안함도 애틋함조차 없었다. 열 살 때 이후의 맹세. 반드시 슬럼가에서 살아남아 그곳을 빠져나간다면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아가리란 다짐.

그리고 만약 두 눈앞에서 만나게 된다면 왜 자신을 버렸냐고 당당히 묻고 싶었던 수십 가지의 질문들. 하지만 수십 번이고 끊임없이 외치는 마음과는 달리 막상 눈앞에 있는 생모의 앞에 헤르세인은 입을 뗄 수 없었다. 어느 한 곳조차 미안한 마음 없이 차가운 얼굴로 자신을 그저 빤히 보던 푸른 눈동자. 그 눈동자를 보면서 헤르세인은 아주 작게나마 남아 있던 미련과 그리움을 버려버렸다. 원망과 증오를 한 것 담아 헤르세인은 그녀에게 외치는 것이 전부였다.

“이제 와서… 당신이 날 왜 찾는 건데… 태어나자마자 당신이 버린 그 갓난아기는 그 지옥 같은 슬럼가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아니… 평생 모르겠지! 그리고 당신이 내 생모라고? 웃기지마. 무려 18년이야… 당신이 날 버리고 간 세월이 열여덟 번이나 흘렀다고!!”

처음으로 목 놓아 외쳤다. 자신은 당신으로 인해 이렇게 살았다고. 당신으로 인해 그 지옥 같은 세상 속에 끈질긴 생명으로 살아남았다고. 그러나 핏발을 세우며 두 눈 부릅뜬 헤르세인과는 달리, 정작 그 말을 들은 왕비는 냉정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 그래서 할 말은 그게 끝이더냐?”

“...뭐?”

마치, ‘그게 뭐 어쨌다고?’라고 무심하게 뱉어낸 것 같은 그녀의 말이 헤르세인에겐 비수처럼 꽂혀 버렸다.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보고 있던가. 그런데 헤르세인과는 달리 왕비는 그 이야기가 몹시 지루하게 들은 것처럼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아무런 죄책감 따윈 없다는 무표정으로 자신의 딸을 보며 차를 한잔 홀짝이고는 서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증오, 원망, 미움. 지금 네가 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네 말처럼 나는 널 낳자마자 슬럼가에 버렸지. 그런데 어째서 내가 널 찾지 않은 줄 아느냐? 그때의 넌 내게 필요치 않았으니까. 너의 존재는 그때 당시 내겐 필요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난 그곳에 너를 버렸다.”

거대한 못이 심장의 중심부를 향해 박혀버렸다. 마치 하늘의 심판이라도 받는 것처럼 심장부 중심에 단단히 못을 박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혹시나 피가 터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착각이 들었다. 그 못이 너무도 단단히 박혀 스스로조차 뺄 수 없을 만큼, 그것은 헤르세인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어렸을 적, 몇 번이고 창부에게 질리도록 듣던 그 말들. 그럼에도 어린마음에 그 말이 반은 진심이고, 반은 그냥 해본 말일 거라 생각했다. 정말로 그땐 너무도 어렸으니까. 하지만 창부의 말 하나하나 전부 틀린 것이 없었다.

창부는 마치 이 미래를 예견이라도 했는지 전부 맞는 말을 뱉어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금 메아리치듯 헤르세인의 머릿속을 울렸다.

「네가 왜 버려졌는지 알아? 그건 네가 태어난 것을 네 부모가 부정했기 때문이야! 태어나자마자 그것도 슬럼가에 버려진 거라면 너무도 뻔하지 않니?! 그건 네가 쓸모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헤르세인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말이 어느 곳 하나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 전부 맞는 말이었고, 지금 눈앞에 친모라 칭하는 여인은 실제로도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알고 있을까. 그 말 하나하나가 자신에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만.”

헤르세인은 나직이 입술을 뗐다. 더 이상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헤르세인이 어떤 고통을 느끼듯 전혀 상관없는 딱딱한 어투로 말을 이어갔다.

“무엇을 그만하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무엇이 그리 화가 나는 것이냐. 그래, 내가 널 버린 것은 사실임이 틀림없지. 번복할 수도 없으며 부정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 긴 세월, 내가 널 찾지 않은 것이라면 너 역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날 잊었으면 그만이 아니더냐.”

본인도 잊고 살았으니 자신도 잊으면 그만이라고? 말이란 것은 참 쉬웠다. 너무 쉽기에 때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을까. 결국 헤르세인은 이제 생각하는 것을 관두기로 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를 더 이상 자신의 생모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버린 존재이자 세상에서 가장 최악인 여인이었다. 그리고 이런 그녀에게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이 참으로 원망스러웠다. 증오스러웠다.

“그래, 당신 말처럼 나도 당신을 잊었으면 그만이었겠지. 근데 그 말 이전에 내가 지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신의 행동이야. 뻔뻔하게 날 여태까지 쭉 잊고 살았으면서… 그렇게 잘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날 찾은 이유가 뭔데? 이제 와서 내 생모행세라도 하고 싶어서? 아니잖아… 아니잖아! 18년 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를 이곳에 데려온 건데!!”

차라리 쭉 잊고 살지. 아예 끝까지 모른 척을 하지. 그것이 18년이 되었든 19년이 되었든. 영원히 잊고 살지. 왜 굳이 자신에게 이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곳으로 부른 걸까. 그러나 피토하듯 원망을 담아 외친 헤르세인과 달리 왕비의 대답은 그저 시시한 ‘변덕’에 불과했다.

“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임이 틀림없다. 내 피가 흐르는 혈육이란 끈을 끊을 수도 없을 거다. 하지만 너의 존재는 나의 치부이기도 하지. 그러다 요 근래에 생각했다. 그 치부를 더 이상 바깥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차라리 그 치부를 안으로 들이자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제 네가 살 곳은 그 추잡한 슬럼가가 아닌, 이곳 ‘왕실’ 말이다. 헤르세인.”

“웃기지마! 누구 마음대로!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해! 난 당신이 쓰고 싶을 때 쓰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꼭두각시도 물건도 아니야! 그리고 당신 멋대로 그딴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

만약, 그녀가 지금처럼 차갑고 냉랭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닌, 자애롭고 따뜻한 18년 만에 만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런 모습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그럼, 적어도 미움만이 남아 있을 텐데. 헤르세인은 간신히 부여잡은 이성의 끈을 잡고서 부들거리는 주먹에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움켜쥐었다. 이렇게라도 무언가 쥐고 있지 않으면 정말로 이성이 날아갈 것 같았으니까. 그녀로선 그것이 최선이었다.

“돌아가겠어. 오늘 내 생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됐겠지. 계속 영원히 날 잊은 채로 살아. 나 역시 생모 따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테니까.”

“하아, 어리석은 아이 같으니라고.”

기분 나쁘게 대놓고 한숨을 내쉰 왕비는 ‘여봐라!’라고 문 밖을 향해 외쳤다. 그리고 그녀의 외침을 들었는지, 문이 열리면서 상당한 장신의 체격을 가진 하녀들이 마치 대기라도 하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하녀들이 안으로 들어오자 곧이어 왕비의 눈짓을 받은 하녀들은 헤르세인을 양쪽에서 붙잡고는 다음 왕비의 명령을 기다렸다.

“곧장 이대로 나가 그 아이를 씻기 거라. 오늘부터 이 아이는 왕녀가 될 왕실의 일원이다. 서둘러 준비시켜라.”

“놔! 놔아!!”

헤르세인은 강하게 거부하며 몸부림을 쳤다. 왕녀라니. 웃기지도 않았다. 거기다 누구 맘대로 왕녀란 말인가. 그녀가 제아무리 고귀한 혈통이며 왕비라 할지라도 헤르세인은 털끝만큼 그녀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녀들에게 있어 왕비의 명령은 절대적. 우악스러운 힘으로 헤르세인은 하녀들의 손에 끌려가게 되었고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강제이다시피 왕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왕비의 명령을 따르는 하녀들의 손짓에 헤르세인은 완강히 거부했다. 입고 싶지 않은 치렁치렁한 드레스와 익숙하지 않는 목욕과 향수. 또한 지독한 절제. 이미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 헤르세인이 있는 곳은 18년 동안 살았던 슬럼가가 아닌 왕성이었다. 헤르세인은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제 아무리 모든 것을 거부해도 결국은 왕비의 손바닥 안. 그렇다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 상황을 받아들여 자신을 이 왕성에 끌어들인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헤르세인이 그녀를 향한 복수였다.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날 그렇게 버린 것도 날 이곳에 데려온 것도 전부…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아무리 내 생모라 해도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절대로!’

뼈를 깎고 살을 깎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보란 듯이 왕비가 바라는 대로 살 되,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헤르세인의 첫 다짐이자 왕성에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헤르세인 드 아벨린 미르세니안. 이름이 없던 그녀에게 생긴 이름이자 왕녀로서 사용될 이름. 그리고 왕비인 그녀가 처음부터 부르던 낮선 그 이름, 헤르세인. 슬럼가에서 살았을 때는 이름 같은 건 그녀에겐 아무래도 좋았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름이 없던 점도 있었고, 이름이 없었으니 ‘야’나 ‘너’또는 ‘계집’으로 불려도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성에 들어오고 난 후, 매번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그녀는 적응 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이름 같지도 않았고 그렇게 어울리는 이름도 아니었으며 여전히 그녀에게 있어, 그 이름은 낮선 이름에 불과했다.

“이제는 왕실에 사는 것도 제법 익숙해진 것 같구나. 처음 너를 봤을 땐 굴러다니는 넝마자락이나 입고 사람몰골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제법 왕녀로서의 티가 나는 구나.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

“...”

어느덧 왕성에 들어 온지도 거의 한 달이란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복수의 이를 갈며 그 이를 숨긴 채로 왕성에 적응하던 헤르세인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침실에 하녀를 보내어 이곳까지 부른 왕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슬럼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습관처럼 새우잠을 자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언제나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헤르세인은 눈이 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은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왕비의 얼굴을 보는 것이 거북했다. 그녀가 있는 궁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인내하고 그 거북함을 억눌러야만 했다. 맹세했으니까. 왕비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으니까.

왕비는 어느덧 자리에 앉아 여전히 표정변화 없이 시녀가 따라주는 찻잔에 집중하고 있었다. 더불어 어느 정도 옷을 갖춰 입고 있는 헤르세인과는 달리 왕비는 하얀 실크 잠옷 드레스를 입은 채로 곱게 머리를 빗어 내린 채, 찻잔의 찻물이 꽉 차길 기다렸다. 찻잔에 또르륵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내는 주홍빛깔의 물이 어느새 가득 찼다.

따뜻한 김을 내며 찻잔이 가득차자 왕비는 그만하라는 손짓과 함께 비싼 자기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또 다시 두 모금.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그 어떤 말도 없었다. 왕비의 대답을 기다리는 헤르세인과 조용히 차를 음미하는 왕비. 찻잔에 든 찻물이 거의 반이 됐을 때쯤, 왕비는 어깨에 흘러내린 숄을 올리며 드디어 답답한 정적을 깼다.

“네가 왕녀로서 입적이 된지도 이제 한 달이 되었구나. 하지만 왕녀로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전으로 가, 교황에게 네가 왕녀란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는 왕실의 혈통이 아닐뿐더러 왕후의 소생조차 아니니, 교황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몸. 아마 너는 신전에서 정해주는 신관에 의해 왕녀로서 인정을 받는 의식을 치룰 것이다. 조만간 너의 왕녀 지위식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 그 전까지 네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분간 예법, 예절 교사를 더 보낼 테니 완벽히 익히도록. 알겠느냐?”

“...”

“왜, 대답이 없는 것이냐?”

“알겠… 습니다.”

입에 붙지 않는 높임말. 설마 자신이 이런 예의를 차린 높임말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슬럼가에서 살 때는 대부분 모든 사람이 적이나 다름없는 것도 있지만, 신분상 태생부터 글과 예절을 배우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높임말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오히려 반말이 너무 입에 붙어 ‘습니다’, 또는 ‘예’, ‘아니오’등 이런 말은 도무지 헤르세인의 입에 붙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달 동안 얼마나 ‘습니다’와 ‘요’자를 붙이느라 고생했던가. 아직 어색한건 많지만 굳어버린 혀도 헤르세인에게 서서히 적응 되고 있었다. 물론, 그녀의 앞에서 여전히 높임말을 한다는 건 불편했다. 그런 그녀의 표정을 읽었는지 왕비는 딱딱하게 그녀의 표정을 지적했다.

“대답치곤 표정은 썩 좋지 않구나.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이 나아진 거겠지. 이젠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왕실의 모든 사람에겐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첫 대면부터 나에게 당신이라 부르던 네가 어느새 부턴가 높임말을 쓰며 내게 정중히 왕비전하라 부르니 말이다. 애초에 너에게서 ‘어머니’라 불리는 것 따윈 기대는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네가 날 그리 불리는 건, 원치 않으니까.”

“...”

왕비의 말처럼 헤르세인은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 그녀를 향한 복수는 끝이 나고 스스로를 그녀의 딸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왕비 역시 헤르세인에게 어머니라 불리는 걸 원치 않았다. 똑같은 피가 흐르고 서로 닮은 얼굴을 하고 있음에도, 같은 혈육임에도 헤르세인과 왕비는 서로를 부정했다.

헤르세인은 이제 더 이상 볼일도 없었고 왕비 역시 할 말이 끝난 것 같았다. 더 이상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이곳에 부른 이유도 대충 알았으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나가고 싶어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헤르세인이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가려 하자, 할 말이 남았는지 왕비의 냉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고 보니 빈센트가 널 만나고 싶어 하더구나. 어찌하겠느냐. 넌 그 아이의 누이가 아니더냐. 비록 아비는 다를지도 너와 빈센트는 내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니.”

빈센트. 사생아인 그녀와 다르게 국왕과 왕비의 사이에서 모든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두 사람의 혈육. 마치 태생부터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듯 빈센트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사생아로 태어나 슬럼가에 버려진 헤르세인, 그녀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래서일까. 빈센트란 이름을 들어도 헤르세인은 불쾌하고 싫었다.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틀어 왕비를 보지 않은 채로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다.

“저는 왕비전하의 명으로 수업에 바쁘니 당분간은 누군가와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얘기는 다 끝나신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마치, 걸어 나오는 그녀의 기척이라도 감지 한 것처럼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보였다. 헤르세인은 그 문을 하녀들이 열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녀가 있어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문이 닫히길 기다리는 고귀한 자들. 하지만 그 고귀한 자들 중에 자신만은 고귀하지 않은 이방인. 이곳의 하녀들은 철저히 가면을 쓰고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헤르세인은 알고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그녀가 이곳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무수한 시선들. 그리고 하녀 한명조차 없는 이름뿐인 왕녀 헤르세인은 아무도 나서서 안내하지 않는 텅 비어버린 복도를 오늘도 홀로 자신의 궁으로 무겁게 걸어갔다.

시간은 금방 흘러 드디어 왕비가 말한 지위식이 다가왔다. 하지만 말만 거창한 지위식일 뿐, 그 어느 누구하나 지위식에 관심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지위식의 주인공인 헤르세인 때문. 왕실 적통의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아직까지도 그녀가 왕비의 사생아란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코웃음을 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어찌 되었든 왕실의 일원이 들어오는 중요한 일. 귀족들이 저마다 무관심을 가져도 국왕은 물론 왕후도, 그들의 자식들은 지위식에 참석해야만 했다. 물론, 반드시 그들도 참석해야만 했지만 국왕은 왕실의 주인이며 단 한 마디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지위식 당일. 결국 국왕은 바쁜 정무의 이유로 지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왕후와 그들이 자식들도 갖가지의 핑계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쪽으로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헤르세인이 있는 곳은 수도 르네에서도 가장 크다는 하늘의 신전. 이른 새벽부터 왕비가 준비해둔 하녀들과 함께 신전으로 오게 된 헤르세인은 청결한 의식을 위해 목욕재개를 하며 여러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대체로 하녀들이 왕비의 명령을 따라 준비한 것은 목욕재개와 지위식 때 입을 의식용 드레스와 간단한 장신구들 뿐. 대대로 사브레 왕국은 빛의 신과 죽음의 신을 모시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국왕의 지위식은 물론, 왕실 일가들의 성인식 등등 신전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교황의 세례를 받으며 의식을 치러야 했다.

목욕재개가 끝나고 헤르세인은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던 수녀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지위식은 신성한 의식. 때문에 손톱과 발톱은 절대로 길어선 안 되기 때문에 한 수녀가 조심스럽게 손톱과 발톱을 정갈히 깎아야 했다. 지금까지 전혀 의식해본 적이 없던 손톱과 발톱. 헤르세인은 수녀가 깎고 있는 자신의 손톱을 보다 문득 떠올랐다.

‘언제부턴가 내 손은 이제 흙투성이가 아니구나.’

아직까지도 손에는 자잘한 상처들과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많았지만, 확실히 슬럼가에 있을 때보다 손은 새하얀 분칠을 한 것 마냥 하얗고 보드랍게 변해 있었다. 죽기 살기로 모든지 부여잡아야 했던 자신의 손. 그리고 그 손은 무수한 더러움이 묻어 아무리 지워도 그 더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피가 묻거나 혹은 깨지거나 혹은 상처를 입거나. 그녀의 손은 늘 깨끗할 새도 없이 더러움에 물드는 한이 있더라도 무언가를 부여잡아야만 했다.

그렇게 필살 적으로 무언가를 훔치고 붙잡으며 살았건만, 이제는 그 더러움이란 때가 물색할 만큼 언제부터인지 그녀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손은 겉만 하얗게 변한채로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텅 빈 손에 불과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건 허무일까. 아님 무엇일까.’

엄지부터 시작해 새끼손톱까지 모두 깎아낸 수녀는 이번엔 고개를 좀 더 숙여 발톱을 깎는 모습이 보였다. 손톱과 발톱 하나하나 깎일 때마다, 툭툭 울리는 작은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다. 어느덧 점점 사라지는 손톱과 발톱을 보니, 과거의 자신을 잘라내 버리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기분이 묘했다.

“다 깎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어 이젠 저희가 준비된 옷을 입혀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허전할 만큼 손톱도 발톱도 어느새 짧아졌다. 마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흘긋, 짧아진 손톱을 바라보던 헤르세인은 이내 눈을 돌리며 수녀들이 입혀주는 의식용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다. 신전에서 치루는 신성한 의식이기 때문에 드레스는 순수할 만큼 순백색이었다. 거울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의식용 드레스라 그런지 드레스라 불리기 애매할 만큼, 헤르세인이 입고 있는 옷은 정갈했다. 그리고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우자 답답함은 있었지만, 마치 제물이라도 된 기분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의식용 드레스라 그런지 황금빛의 수를 넣어 밑으로 퍼지자 헤르세인은 문득 이 드레스는 과연 얼마를 주고 만들었는지, 계산의 감이 잡히지 않았다. 어느덧 완벽하게 차려입고서 가지런히 내린 머리 위로 하얗고 반투명한 긴 베일까지 씌우자 수녀들이 끝났음을 알렸다.

“끝났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역할은 이쯤에서 끝났다는 것을 보이며 수녀들은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뒤로 물러났다. 수녀들이 뒤로 물러난 동시에 어정쩡히 홀로 서게 된 헤르세인은 바로 눈앞에 있는 전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황금빛의 수가 놓아져 밋밋함을 없앤 의식용 드레스. 그리고 머리 위로 허리까지 내려온 반투명의 베일.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이런 옷차림은 물론이고 드레스란 자체가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맞는 옷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맞지 않은 옷을 죽을 때까지 입는 것 같아 한편으론 그저 넝마조각이나 입으며 자유로이 돌아다닌 슬럼가 시절이 편했다고 생각들만큼 이런 옷은 그녀에겐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다 시간에 맞춰 준비가 된 건지 한 수녀가 이제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혹시라도 긴 드레스자락에 그녀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 상태로 뒤를 따르는 수녀들도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안내를 따라 헤르세인은 적당히 걸음을 움직이다가 문이 없는 어느 의식의 장소에 도착 했다.

이곳은 오늘 지위식을 치룰 중요한 장소. 그리고 그 앞에는 단상 위로 여신의 모습이 새겨진 석상이 있었다.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여신의 모습이 있는 석상의 앞으로 다가가던 헤르세인은 그 석상을 구경하려던 찰나, 마침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푸른 계열의 채도가 낮은 드레스차림으로 자리에 있는 왕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때 맞춰서 왔구나. 오늘 너의 지위식의 기도문을 올려주실 신관님이시다. 이 분은 교황님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니 앞으로 신전에 올 일이 있으면 이 분을 뵈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헤르세인입니다. 로하네님.”

왕비의 소개와 더불어 그녀의 근처에는 하얀 신관 복을 입은 60대의 노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헤르세인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왕비의 말이 끝나자 정중히 인사를 올리던 노인은 따뜻이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교황성하를 보좌하고 있는 추기경 로하네입니다. 보통은 로하네 신관이라고도 많이 불리니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지위식의 일은 대부분 교황성하께서 맡으시는 일이나 사정을 들어 제가 맡게 된 점,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제 생에 왕비전하의 혈육이신 왕녀전하의 지위식을 맡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헤르… 세인입니다. 추기경 로하네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직 의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왕실에서 받은 풀네임을 말할 순 없었다. 하지만, 의식이 치르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헤르세인은 풀네임을 말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정식으로 왕실에 입적된 왕녀가 되는 것이었다.

“편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높으신 분이 어찌 제게 영광이라 하십니까. 그러니 왕녀전하, 저를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되옵고 그저 왕녀전하의 지위식을 맡게 된 늙은 노인 중 한명이라 편히 생각하십시오. 제가 있을 때만큼은 편히 있으셔도 됩니다. 단, 다른 이가 있을 때는 빼고 말이죠. 하하하.”

호탕하다고 해야 할지, 사람이 좋다고 해야 할지.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첫 인상만으로는 사람을 파악할 수 없지만, 눈앞의 신관은 왠지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만약을 가장에 처음부터 이런 사람의 밑에서 자라났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깨끗하고도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현실은 지독했고 잔인하며 참혹했다.

“그럼 로하네님. 헤르세인의 지위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왕비전하. 그런데 빈센트 왕자전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신 겁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빈센트를 찾는 신관의 말에 헤르세인도 슬쩍 눈동자를 굴려 얼굴조차 모를 빈센트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전에 왕비의 말로는 빈센트도 참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째서인지 보이지 않았다. 이 장소에 있는 사람은 지위식에 도움을 줄, 수녀 몇몇과 로하네 신관과 왕비, 그리고 헤르세인 뿐. 애초에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왕실 일가라 그들은 분명 참석하지 않을 거라 단언했다.

그런데 왕비의 손이라도 붙잡고서 참석할 줄 알았던 빈센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헤르세인은 빈센트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보기 보단 빈센트 역시 다른 이들처럼 일부러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다.

‘빈센트가 오든 오지 않던,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어차피 국왕의 핏줄이면 더더욱 내 존재가 그 아이의 눈에는 수치일지도 모를 텐데.’

안 그래도 일찍 신전에 도착해, 지위식 준비로 몸과 머리는 피곤에 절어 있었다. 더 이상 빈센트 따윈 떠올리고 싶지 않아 헤르세인은 무심결에 왕비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 그만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왕비는 여전히 무표정인 채로 자신을 보며 빈센트의 이야기를 로하네에게 알려주었다.

“빈센트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감기에 걸려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성한 의식에 질병을 가진 자가 있으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참석하겠다는 빈센트에게 푹 쉬라 일러두고 오늘 저 혼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의식이 끝나면 오늘 빈센트 왕자전하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밝으신 왕자님이 아프시면 큰일 이지요. 자, 그럼 지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비의 말처럼 정말로 빈센트가 감기로 인해 참석을 못했는지, 아님 감기는 핑계고 일부러 참석을 안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빈센트가 참석하던 하지 않던 누구 한명 빠진다 해도 한 사람의 빈자리 따위 헤르세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어서 빨리 이 답답한 지위식을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지위식이 끝나고 헤르세인은 왕실에서도 인정한 왕녀가 되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름뿐인 왕녀일 뿐. 지위식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녀의 권력이 생기거나 그녀의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지위식을 했든 안했든 그 어떤 차이도 없었고, 헤르세인은 여전히 왕실에서 겉도는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서히 왕실에 익숙해지고 글도 어느 정도 익히며 궁에서 적응이 될 무렵, 헤르세인은 시녀들이 한 대 모여 나누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 있었다.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고 진짜라니까? 너 내가 폐하가 계시는 궁에서 일하는 거 알고 있잖아! 분명 폐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니까. 곧! 라인하르트 후작각하께서 돌아오신다고!!"

"세상에! 그럼 후작각하의 두 형제분들이 돌아오신다는 말이네?!　어머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아아, 드디어 라인하르트 공자님들을 뵐 수 있다니! 너무 꿈만 같아! 이거 꿈 아니지? 현실이지? 아야! 이 기지배가 왜 꼬집고 그래!!"

"현실이란 걸 일깨워 주는 거잖아. 네 말대로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드디어 라인하르트 가문의 두 공자님을 뵐 수 있는 거라고! 그나저나 대체 얼마 만에 보게 되는 거지?"

아무래도 이곳 궁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녀들은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를 내는 건지 닫혀 진 문 사이로 시녀들의 떠드는 소리가 침실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가 시녀들조차 우습게 볼만큼 이름뿐인 왕녀란 현실이 이렇게 실감날 정도니 말이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던 헤르세인은 끝내 완독을 포기하며 책을 덮어버렸다. 비록 이름뿐인 왕녀일지라도 이 궁전은 자신의 거처나 다름없다.

시녀들을 물릴 수는 없어도 조용히 하란 말 정도할 권리는 있다, 생각하며 헤르세인은 성큼성큼 문 쪽으로 걸어가 힘차게 있는 힘껏 두 짝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에 문 앞에 모여 얘기를 나누던 시녀들은 놀랐는지 동그랗게 뜬 눈을 하며 헤르세인을 쳐다봤다.

“조용히… 해줬으면 하는데….”

그러나 조용히 해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시녀들은 어이없는 웃음을 짓더니 이젠 대놓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녀가 보는 바로 앞에서 일부러 들리듯이 목소리를 키우며 말이다.

“들었어? 우리보고 조용히 하라신다.”

“어머, 웃긴다. 이름뿐인 왕녀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명령이래?”

“자기가 진짜 왕녀라도 된 줄 아나봐.”

“얘, 그래도 아라네아 왕비전하의 딸이잖아. 그것도 사생아.”

자기네들끼리 키득키득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다 한 시녀가 누가 봐도 성의 없어 보이는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시끄럽다 하시니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왕녀님. 그래도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본디 왕후폐하와 케시아 왕녀전하의 궁전에 소속되었던지라 그곳의 분위기가 워낙 밝다보니 이런 을씨년스러운 곳은 적응이 되지 않아서 말이죠. 앞으로 왕녀님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말하도록 하겠나이다.”

“풉.”

“킥킥.”

언뜻 보면 이 궁전의 주인이 뒤바뀐 것이 아닐까하는 착각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헤르세인은 화를 내지도 그녀들의 비아냥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자신은 이름뿐인 왕녀이고, 시녀들을 명령할 만한 힘도 없으니까. 그리고 시녀들은 대부분 지방귀족출신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은근히 눈치를 보며 제 할 일 하는 평민출신인 하녀들과는 달랐다.

키득키득 웃으며 더욱 기고만장한 표정을 짓는 시녀들의 얼굴이 보였다. 제각각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도 잘 보였다.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파벌을 만들며 괴롭히는 갖가지의 행동들. 그것을 슬럼가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오히려 슬럼가에 있을 때보다 이곳의 사람들이 더 무서운 존재처럼 보였다.

“그럼, 부탁하지.”

신분에 따라 경어와 높임말, 그리고 하대를 바꿔 쓰면 사용하는 것은 정말이지 말투부터 하나하나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하게 들릴 만큼 차분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부탁 속에는 작은 간절함은 담겨 있었다. 거슬릴 정도만 아니기를 바라는 작은 간절함.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시녀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귀에 메아리치듯 들렸다.

터벅터벅 창가까지 다시 걸어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책을 들던 헤르세인은 나직이 옅은 숨을 뱉어내며 도로 책을 내려놓았다. 시녀들 덕분에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터벅터벅 걸어가 창가에 앉아 활짝 열려진 창문 밖의 풍경을 보았다. 국왕에게 하사 받은 제6궁, 레인 궁전. 왕성과 더불어 다른 궁전에 둘러싸여 가장 안쪽의 위치에 있어 궁 밖의 풍경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레인 궁전에서 내다보는 바깥의 풍경은 울창한 숲이 전부였다.

마치 숲속의 외 탑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건 울창한 숲이 전부였다. 그나마 저 멀리 가자미눈을 뜰 정도로 알록달록 보이는 지붕들이 보인다지만, 지붕 말고는 또 다른 풍경은 보이지 않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언뜻 보면 평화롭고 새의 지저귀는 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무 평화로워 한편으로는 슬럼가에서 살았을 때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똑같이 숨을 쉬고 그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데 콱 막혀버린 답답함. 헤르세인은 끝내 창밖을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버렸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멍 때리다간 또 그 교사가 비아냥거릴 것이 분명하니까.”

헤르세인은 몸을 움직이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책을 다시 집어 들었다.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도 읽고 있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그 지긋지긋한 예법을 가리키는 교사가 들어올 시간. 이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교사에게서 덜 트집잡히니 말이다. 헤르세인은 의자에 앉아 교사가 올 때까지 오늘따라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책을 잡고 그저 뚫어져라 한 글자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사브레 왕국에서도 제일가는 권력자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국왕 다음으로 실세라 불리는 명문귀족이자 오랜 무가의 혈통을 자랑하는 라인하르트 후작일지도 몰랐다. 선대, 그 위로 쭉 오랜 시간 때부터 라인하르트 가문은 기사 가문이란 명맥을 잇고 있지만, 라인하르트 가문은 처음부터 명문가라 불리기 어려울 만큼 처음엔 그저 삼류귀족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 백 년 전. 사브레 왕국은 그때 당시 약소국에 불과 했고 언제 주변 왕국에 삼켜지거나 제국의 지배를 받아 사브레 왕국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브레 왕국은 약했었다.

당시, 일찍이 왕위를 이어받게 된 젊은 국왕은 이대로 있다간 사브레 왕국이 멸망할 것을 인지했다. 또한 백성들의 절규어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젊은 국왕은 각 귀족들의 청년들을 왕국으로 불러들였고, 친위대와 군대를 만들었다. 그때 당시에는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던 청년들은 스스로 군대에 자원할 정도였다. 또한 그 시절과 현재인 지금도 ‘기사’란 것은 청년들에겐 긍지와 명예였다.

현재는 지도상에 없는 왕국이나 사브레 왕국을 자주 침범하던 코스틴 왕국이 존재 했었다. 하지만 코스틴 왕국은 다른 왕국과는 달리 오래전부터 왕실의 부정부패와 귀족들의 부피가 커진 권력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백성들은 어느 누가 굶어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코스틴 왕국은 영토 확장이란 자신들의 욕심에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왕국인 사브레 왕국을 넘봤고, 자기들의 백성들까지 강제로 군대에 끌어들여 강제 징집을 시켰다. 그때의 사브레 왕국의 젊은 국왕은 코스틴 왕국에 보낸 첩자로 인해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삶아 ‘모’아니면 ‘도’인 심정으로 아니, 거의 절박하다시피 코스틴 왕국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기적적인 사브레 왕국의 승리. 하늘은 아직 젊은 국왕의 편이었는지 코스틴 왕국은 끝내 패전 국가가 되면서 왕실과 함께 붕괴 되었다. 그 기회를 삼아 젊은 사브레 국왕은 코스틴 왕국의 영토를 자신의 왕국으로 병합시켜 영토를 확장시켰다. 더불어 당시 라인하르트 가문은 삼류귀족의 별 볼일 없는 가문이었음에도 생과 사를 오가는 시대이다 보니, 전장에서 젊은 국왕과의 만남은 매우 잦았었다.

그러다 딱 한번, 젊은 국왕의 목숨이 정말로 위험할 만큼 아슬아슬하던 순간 국왕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라인하르트 가문의 청년. 그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신뢰와 우정을 쌓게 되며 라인하르트 가문은 단숨에 높은 작위를 얻게 되었고, 명예 기사라는 훈장과 함께 백작에서 시작해 몇 년 뒤, 국왕의 총애와 함께 후작의 작위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그 총애로 인해 큰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현재. 라인하르트 후작 가문은 오랜 세월 ‘왕당파’라 불릴 만큼 대대로 왕실의 편에 서는 귀족 중의 대 귀족.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지도상에 사라지는 나라가 있듯이 또 다시 새로운 왕국이 생겨 영토를 넓히고 자신들의 나라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는 세력들은 계속 해서 나왔다. 그러다 언제부터인지 계속해서 사브레 왕국을 틈틈이 노리는 몬테올 왕국으로 인해 현 국왕인 위스턴 국왕은 결국 참다못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한 나라는 틀림없이 패전 국가가 되는 것이 자명했다.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을 들여 물자조달과 군사를 소집해야하기 때문에 당장은 무리가 있는 일.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상소문과 전쟁이란 것을 함부로 결정을 지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스턴 국왕은 이 문제만큼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더불어 지금은 수도에 몰려 있는 중앙 귀족들조차 제 한 몸 지키기 위해 어느 가문조차 나서길 꺼려하기 때문에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을 즈음, 그 상황 속에 유일하게 나선 귀족이 바로 라인하르트 후작이었다.

“폐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제 가문의 사병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정예병들은 이곳에 두되, 제 관리 아래 있는 부하 기사들은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라인하르트 후작. 그곳으로 간다면 자네가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이러는 겐가? 나는 자네가 필요하단 말일세. 그러니 허락할 수 없네.”

국왕은 단호한 목소리로 후작의 말을 기각했다. 벌써 이 거절만 해도 수십 번. 하지만 후작은 이에 기가 죽을 세도 없이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듯 국왕에게 청했다.

“전쟁이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소한 것에 하나라도 피를 부른 것이 전쟁입니다. 저는 사브레 왕국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요즘 폐하께서 동쪽 지역으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두, 나라를 위함과 폐하를 위함으로 제 일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부디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요할 만큼 뒤로 물러나지 않는 라인하르트 후작의 간청. 결국 국왕은 라인하르트 후작의 간청에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후작이 그렇게 까지 말한다면 결국 어쩔 수 없겠지. 그대가 동쪽으로 떠날 것을 허락하네. 아, 그런데 혹, 그대의 아들들도 데려가는 겐가?”

“예, 장남과 차남, 둘 다 데려갈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공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라인하르트 후작은 집안 식구들은 물론 휘하의 부하들과 가문의 사병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떠나게 되었다. 국왕은 내심 후작이 몇 달 안에는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시간은 흘러 라인하르트 후작이 왕실을 떠나 동쪽으로 떠나 3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나 모든 일을 마치고 라인하르트 후작은 돌아오고 있었다. 왕실로 돌아오겠다는 전갈을 받은 국왕과 귀족들은 환호를 했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왕실 곳곳에 퍼져나갔다.

방패를 지고서 이동하는 병사들의 등에는 한 가문의 인장이 박혀있었다. 기사 가문임을 상징하며 높게 앞발을 들어 올린 흑마의 모습과 검의 모습. 그리고 검을 휘감은 황금색의 넝쿨과 날개 짓을 하는 흑마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인장은 누가 봐도 라인하르트 후작 가문을 상징하는 인장. 수많은 발걸음이 드디어 3년 만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인지 병사들의 눈에는 행복함과 기쁨, 즐거움이 만개한 채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 병사들을 이끌며 말에 올라 앞장서고 있는 세 사람과 뒤를 따르는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을 타고 이동 중, 작게 몸을 흔들며 이동하던 잿빛 머리의 사내가 이내 뒤를 돌아 점점 뒤처지고 있는 형제를 보며 크게 소리쳤다.

“루드비카! 서두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것이냐!”

무뚝뚝함이 그대로 베인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뒤처지고 있던 새빨간 붉은 머리칼을 지닌 사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의 고삐를 바로 잡고, 두 다리를 움직여 말의 허리를 살짝 내리쳤다. 빨리 움직이란 신호를 알아챘는지 말은 천천히 걷던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며 잿빛 머리의 사내의 옆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체지 않으셔도 어련히 따라갈까요. 클로드 형님께서는 자꾸 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타고난 기사가 아닌지라 체력이 버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쳐질까봐 마차로 가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마차는 무슨. 사내가 되가지고 언제까지 계집처럼 마차만 타고 다닐 것이냐. 이제 좀 말에 타는 것에도 익숙해져라. 아니면 체력을 길러.”

짧은 잿빛 머리색을 가지고 있는 사내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장남이자 왕실 제1기사단의 소속인 클로드가 매정한 목소리로 단칼에 대답했다. 그러자 새빨간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 루드비카는 제게 시선조차 주지 않는 그를 보며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전, 형님처럼 근육과 체력을 키울 소질이 못됩니다.”

“네 놈이 이상한 거겠지. 기사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체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 네가 아무리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 핏줄은 라인하르트 가문의 핏줄이자 아버지의 핏줄. 작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넌 죽을 때까지 라인하르트 가문의 사람이다, 루드비카. 그러니 영지에 도착하거든 다시 검을 잡도록 해. 그리고 기사 작위를 받아. 그것이 네가 차남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라인하르트 가문의 가장 높은 어느 분과 닮으셨네요.”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며 루드비카는 그의 말을 들은 척 만 척 했다. 그런 설렁한 말투에 클로드는 잠시 고개를 틀어 루드비카를 흘긋 봤지만, 이내 시선을 돌려 다시 앞을 보았다. 두 형제가 같은 핏줄이란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형제는 이미 성격부터가 차이 났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틀림없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장남이자 차남이었다.

외견조차 그 성격을 보여주듯 장남인 클로드 반 카뮤엘 라인하르트는 기사 가문으로서의 충직함을 보여주며 그 특유의 딱딱함도 후작을 그대로 빼다 박아, 후작의 도플갱어라 불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반면, 차남인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는 후작의 짙은 피를 많이 물려받지 않았는지 오히려 모친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옷차림이나 외견, 그리고 성격부터 기사 가문답지 않게 아니, 후작의 차남이 맞는지 의심될 만큼 두 형제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불꽃으로 타오르는 뱀이 엉덩이 부근에서 찰랑거리듯 포니테일로 질끈 묶은 붉은 머리와 장난기가 다분해 보이는 호박 빛의 눈동자. 그리고 오랜 수련으로 그을린 피부를 가진 클로드와는 다르게 루드비카의 피부는 투명 하리 만큼 도자기와도 같았다. 더불어 몇몇 남성들이 멋으로 귀를 뚫어 짧은 피어스를 단 것과는 달리, 그의 두 귓불에는 붉은 머리칼보다 더욱 진한 가넷으로 세공된 귀걸이를 달아, 말이 흔들릴 때마다 여인들이 끼고 있는 귀걸이처럼 짤랑거렸다.

그리고 그 성격이 그대로 옷에 반영되듯 두 형제는 옷차림에도 극명히 갈렸다. 늘, 기사로서의 자각을 위해 짙은 녹색의 제복을 입는 클로드.

하지만, 여느 귀족들처럼 고풍스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귀족의 옷을 입고 있는 루드비카 쪽을 보면, 정말로 두 사람은 그 어느 곳 하나 닮은 구석이 없어 보였다. 반듯하고 정적이며 날카로움과 절제를 가진 형과,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심지어 사내임에도 고혹적인 외모를 가진 동생. 비록 어느 곳 하나 닮은 구석은 없지만, 모든 여인들이 두 형제의 외모를 보고 한눈에 이끌려질 만큼 그들의 외모는 대단했다. 워낙 대단하다보니 특히나 루드비카의 외모를 가지고 가문의 사병들은 언제나 의견을 대립 했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보나 둘째 공자님을 보고 있자면 계집인지 사내인지 분간이 안 된다니까.”

“확실히,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둘째 공자님 뒷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계집 같기는 하지. 그리고 첫째 공자님과는 다르게 원채 검을 잡지 않으시니, 체격차이도 좀 다르다 해야 할까…. 아무튼 사내는 맞으신데 사내 같지가 않으시지.”

“그래도 사내는 사내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병사가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으로 동료를 보자, 그 이야기를 꺼낸 동료가 주변의 눈치를 보면 소곤소곤 작게 대답을 했다.

“가끔 심심하시면 둘째 공자님이 우리 3군대가 있는 막사로 오시거든. 밤에 몰래 말이지.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확실히 사내구실은 하시는 것 같아. 뭐… 잠자리에 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부끄럼 없이 하시는 거보면.”

“야야, 그런 건 그냥 책으로 보나 누구한테 듣기만 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안 들어봐서 그래. 그리고 너 그 얘기 못 들었어? 얼굴은 저리 보이셔도 사교계만 갔다 하시면 할 거 다하신다는 소문?”

“지, 진짜로?”

한 병사가 도무지 못 미더운 표정을 짓자, 루드비카 쪽을 옹호해주고 있는 병사가 작게 외쳤다.

“그렇다니까! 원래 외모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법이야. 반대로 클로드님을 봐라. 혼인하시기 전까지는 딱 봐도 동정을 지키실 모습 아니냐?”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인데… 원래 얌전한 사람이 더해.”

어느새 병사들은 제각각 클로드는 이렇다, 루드비카는 이렇다 하며 서로 답이 없는 유치한 입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런 병사들의 입 싸움을 모른 채, 조용히 말을 몰고 있던 두 형제의 곁으로 앞에서 후작과 말을 몰던 한 기사가 속도를 늦춰 전언을 전했다.

“후작각하께서 두 분 모두 부르십니다.”

부하를 시켜 자식들을 불렀음에도 앞장서서 여전히 굳센 등을 보이며 꿋꿋이 이동하는 후작의 뒷모습이 보였다. 루드비카와 클로드는 잠시 서로를 마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곤 기사를 따라 후작의 뒤를 바로 쫓았다. 순식간에 뒤를 쫓아 후작의 양 옆에는 장남과 차남이 나란히 서게 되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양 옆으로 나란히 서자 후작은 오래전부터 꾹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너희도 알다시피 3년 만에 돌아가는 영지다. 3년 동안 영지를 비우고 동쪽에 있었다하여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가문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예. 후작각하.”

조용히 아버지라 부르는 클로드와 달리, 그저 생긋 웃으며 ‘후작각하’라 부르는 루드비카. 두 형제는 호칭조차 제각각이었다. 말끔히 넘긴 잿빛 머리색과 비슷한 옅은 잿빛 눈동자로 흘긋 루드비카를 보던 후작은 다시 앞쪽으로 눈동자를 돌렸다.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했지만, 후작은 언제 영지에 도착할지 몰라 괜히 루드비카로 인해 더욱 피곤해지고 싶지 않은 탓이었다.

후작은 작은 한숨과 함께 다시 말을 이어갔다.

“영지에 도착하게 되면 클로드 너는 수도로 올라가 왕태자 전하의 호위를 당분간 맡게 될 것이다. 원래라면 너를 바로 근위대에 넣을 생각이었다만, 폐하께서 너를 왕태자 전하의 호위를 맡게 하시고 싶으시더구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네가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하고 게을리 하지 말거라.”

“예, 아버지.”

클로드의 짧고도 만족스러운 대답이 들렸다. 후작은 충분히 흡족했지만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루드비카.”

건조한 목소리로 루드비카를 부른 후작은 여태까지 생각한 대로 영지에 도착하면 기사 작위를 받을 것을 명했다.

“영지에 도착하거든 너 역시 수도로 올라가 기사 작위를 받도록 해라. 언제까지 칠푼이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 허무맹랑하게 살 것이냐.”

“각하께서 저를 그리 보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루드비카와 달리, 후작은 루드비카의 미소에 곧게 펴져 있던 미간을 단숨에 좁혀 버렸다. 늘 이런 식이었다. 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헝클어졌는지 후작에게 있어 루드비카의 존재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다. 그런 후작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실속 없이 웃으며 기사 작위란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루드비카는 그저 태평히 대답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전 검술에 소질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도 기사 작위라니…. 제가 기사 작위를 받는 순간, 모든 기사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 소질이 없는 저는 받지 말아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후작각하?”

“루드비카!”

결국 참다못한 후작이 화를 내며 그의 이름을 강하게 불렀지만, 루드비카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화를 내진 마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3년 만에 돌아가는 영지인데, 괜히 저로 인해 기분 좋은 걸음을 망치진 말아주십시오. 후작각하.”

“어찌 넌! 이 아비를―!”

“그럼 후작각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 먼저 영지에 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형님과 만담을 나누며 오시기를. 그럼 클로드 형님. 후작각하를 부탁드리지요.”

말고삐를 단단히 붙잡고서 이랴! 소리와 함께 루드비카는 선두를 달리며 빠른 속도로 말을 몰고 앞질러 나아갔다. 그 모습에 클로드는 서둘러 동생을 붙잡으려 했지만 동생을 잡기에는 말의 속도가 무척 빨랐다. 이대로 따라 붙잡자니 바로 옆에서 함께 이동하는 후작의 모습이 걸려 결국, 클로드는 후작과 함께 이동을 선택했다.

“태도는 저래도 가문을 생각하는 녀석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강제로라도 작위를 받게 만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루드비카가 저리 방랑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역시 후작의 마음을 아는 건 장남 뿐 일까. 클로드의 말에 어느 정도 화가 수그러진 후작은 좁히고 있던 미간을 풀었지만 그래도 그 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루드비카가 너의 반만이라도 닮았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영지에 도착하면 제가 녀석에게 잘 일러두겠습니다.”

“알았다. 어찌됐든 영지에 도착하고 나면 많이 바빠질 것이다. 너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예, 아버지.”

각자 다른 궁전에 머물고 있어도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에게 있어서 아라네아 왕비의 얼굴을 보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그녀의 핏줄임에도 헤르세인은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거북했다. 아니, 싫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했다. 그런데 무슨 볼일이 있던 건지 시녀를 통해 부른 것이 아닌 왕비가 직접 처음으로 헤르세인을 찾아 왔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네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

왕실의 말투도 서서히 적응이 되어 굳어 있던 혀도 이젠 매끄럽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전속시녀는 물론 하녀조차 없는 헤르세인의 궁전. 때문에 현재 차를 준비해 따르고 있는 건 왕비의 전속시녀였다. 옅은 연두 빛의 뜨거운 물이 찻잔에 잠기는 것이 보였다. 그 찻물이 끝까지 찻잔에 담기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헤르세인은 한 시라도 왕비와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먼저 입을 뗐다.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헤르세인의 목소리에 느긋이 차를 음미하던 왕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행이도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 금방 설명했다.

“온 왕실에 소문이 파다히 퍼질 만큼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인하르트 후작이 동쪽으로 떠난 지 3년 만에 영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폐하께서는 라인하르트 후작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환영식을 여실 계획이다.”

“제게… 그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랑 자신이랑 무슨 상관인지 헤르세인은 관심조차 없었다. 어차피 자기네들의 축제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굳이 이곳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면 무언가 있어 보였다. 왕비는 곧이어 설명 했다.

“웬만하면 널 그 자리에 참석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너도 불편할 것이고 나 역시 불편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왕후께서 원하시더구나. 네가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예?”

처음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다. 그런데 왕비의 표정은 한 없이 진지했고, 농담할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애초에 농담하는 모습을 본적도 없기에 헤르세인은 단숨에 미간을 좁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이 어떤 표정을 짓던 왕비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다. 그리고 등을 진채로 환영식의 날짜를 알려주었다.

“환영식은 일주일 후. 네가 입을 드레스와 장신구는 내가 하녀들을 통해 보내도록 할 테니 너는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왕후께서 무슨 생각으로 너를 환영식에 참석시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이상 모든 시선이 네게 갈 것이다. 그러니 짧은 시간이긴 하나 네게 사교댄스를 익힐 교사와 사교 예법에 대한 또 다른 교사를 네게 보내겠다. 완벽히 익혀 환영식 당일, 너의 허술한 모습으로 인해 왕실의 먹칠은 하지 않도록 바라마.”

왕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대로 나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려는 왕비를 처음으로 멈춰 세웠다.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참석하기 싫다면요?”

헤르세인의 목소리에 움직이던 걸음을 멈춘 왕비는 오히려 꼿꼿하게 펴있는 허리를 움직이지 않은 채, 고고히 뒤를 돌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한발자국 움직이며 명령어린 날카로운 목소리가 헤르세인을 강하게 억눌렀다.

“상황 파악하는 법도 배워야겠구나. 환영식은 일주일 후다. 나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싶지 않구나.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히 익혀야 할 것이다.”

또각또각 울리는 그녀의 구두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헤르세인의 시선은 쭉, 왕비가 나가고 없는 빈자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악기의 연주 없이 무반주로 움직이는 몸의 동작과 발의 스텝. 좌우로 한번 또는 뒤로 한발자국. 두 손은 허공을 감싸며 그녀는 사교계의 댄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왈츠를 익히고 있는 중 있었다. 어차피 환영식에 가봤자 왈츠를 출 일도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익혀야하는지 억지스러웠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다. 혹시라도 스텝이 엉키지 않도록 헤르세인의 곁에는 댄스 교사가 손뼉의 박자로 하여금 그나마 리듬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더 허리를 곧게 피시고 시선은 오직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어깨를 좀 더 피세요. 왕녀전하.”

왕비가 보낸 사교댄스 교사는 그나마 전에 예절교육을 가리키던 교사보다는 나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이 까칠한 건지 헤르세인을 가리키는 교사들은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다. 그래도 그들 중, 유일하게 사교댄스 교사만큼은 춤을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 너그러운지 춤의 스텝이 틀렸을 때, 딱딱한 어투로 지적 하는 것을 빼곤 말투는 부드러운 편이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유연하신 것도 있고, 여전히 시선이 정면 머물지 못하는 것과 발의 스텝이 잠깐 엇박자로 나가는 것이 있어 고쳐야겠지만, 그것만 빼면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댄스 수업이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쉬고 싶었지만, 그녀에겐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 따윈 없었다. 댄스 교사가 나가고 밖에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예절 교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또 다른 교사의 모습을 보며 헤르세인은 속으로 작게 한숨을 내 쉬었지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업에 임해야 했다.

찻잔을 들어 올리는 법. 찻잔을 잡는 법. 접시를 짚는 법과 소리 나지 않게 접시를 내리는 법. 어떤 물건을 잡든 손짓 하나하나에 우아함과 기품이 담겨 있어야 하는 예절 교육은 물론, 드레스를 살짝 올리고 걷는 방법과 걸음걸이부터 헤르세인은 이를 악물며 지독히 배워갔다. 그리고 마침내 환영식의 날이 다가왔다.

원래부터 잠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환영식이 다가온 날, 헤르세인은 더욱 짧게 잠을 청하고 평소 일어나는 이른 새벽시간 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됐다. 너무 일찍 일어나 피곤한 점은 없었지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정도로 선잠을 잔 것은 아무래도 긴장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슬럼가에 오래 살았고 살아가는 현실이 각박하다보니 무엇하나 긴장할 틈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고 나서 그것도 처음으로 왕실의 일가 모두를 본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런 긴장을 느낀 건 오랜만이었다.

물론 그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기대어린 긴장이 아닌, 안 그래도 자신을 골치 덩어리로 생각하는 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자니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마치,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괜한 긴장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픈 척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몸은 비쩍 말랐어도 아픈 곳 하나 표정조차 지을 수 없는 자신의 무표정으로 인해, 헤르세인은 아픈 척하는 짓을 일찍 포기해 버렸다. 결국, 아침 해가 뜨고 나서 자신의 궁전으로 하녀들을 보내어 목욕재개와 드레스와 장신구를 보낸 왕비의 행동으로 인해 그녀는 생각자체를 관두기로 했다.

왕비가 보낸 하녀들이 이끌어주는 데로 헤르세인은 욕실에 들어가 전신과 머리를 깨끗이 씻어야 했다. 거기다 받고 싶지도 않은 마사지까지 받으며 욕실에 있는 시간은 평소보다 오래 있게 되었고, 마사지가 끝난 후 욕실에서 나오자 그녀를 기다린 건 거추장스러운 치장의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평범한 속옷을 입지만, 이번에는 잘 입지 않는 그것도 상당히 꺼려지는 비싼 레이스 속옷을 입어야 했으며 한 번도 착용해보지 못한 코르셋을 경험해야 했다.

허리를 옥죄는 코르셋의 조임. 뒤에서 코르셋을 묶는 하녀가 안간힘을 쓰며 어떡해서든 묶으려는 모습이 기가 막힐 정도였다. 지옥 같았던 코르셋이 허리에 묶여지고 나서 얇은 속옷 드레스를 한 겹 입었지만, 치마의 풍성함을 위함인지 두터운 치마의 레이스 속옷을 입자 겹겹이 입은 속옷들로 인해 몸이 무거워질 지경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겉 드레스까지 입게 되면서 옷 입는 것은 끝이 났지만 이제 머리와 얼굴 그리고 장신구들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땐, 굳이 이렇게까지 꾸며야 되나 싶을 만큼 헤르세인은 이모든 걸 때려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드레스 하나만 입기를 몇 시간. 그리고 어느새 물기가 사라진 머리칼을 하녀들이 빗질하기 시작하면서 머리치장이 시작되었다. 흘긋, 거울 속에 비치는 하녀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들은 과연 자신에게 어떤 머리가 어울리지 고심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살짝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이것저것 시도해보려는 작은 손짓이 보였지만, 그녀들의 행동을 보아하니 머리치장도 오래 걸릴 것 같아 헤르세인은 명상이라도 하듯 눈을 감고 있는 편이 더 좋겠다, 생각했다. 오지도 않는 잠을 자고자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서 머리는 그녀들에게 맡긴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은 채로 앉아 있을 무렵. 언뜻 보면 움직이지 않는 석상과도 같아 몇몇 하녀들이 흘긋 자신을 보는 듯한 시선을 헤르세인은 몇 번이고 느꼈지만 무시했다. 하지만 눈을 감았음에도 잠이 올 생각은 없었고, 눈만 감은 채로 몇 시간을 보냈을까. 드디어 머리치장이 끝났는지 다 끝났음을 알리는 하녀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눈을 뜨고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마음에 드는 것을 떠나, 헤르세인이 제일먼저 머릿속에 떠올린 건 슬럼가의 모습 때와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었다. 넝마자락이나 입으며 거의 거지보다 못할 꼴로 살던 그때의 자신.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디가고, 거울 앞에는 치를 떨 만큼 어색하고도 그때의 모습이랑 판이하게 틀린 자신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꼈다.

이름뿐인 왕녀에다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조차 없지만, 결국 이 모습도 어찌 보면 왕비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이란 것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바꿔 놓을 만큼 참 무섭기까지 했다.

머리에 무슨 짓을 했는지 평소 머리를 풀고 다님에도 머리에는 윤기가 흐르며 일자로 쭉 펴져있어 자신의 머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포인트를 주듯 머리 한쪽은 귀 뒤로 넘겨져 귀의 위쪽에는 푸른 보석으로 세공된 꽃모양과 진주로 장식을 한, 머리 장신구가 꽂혀 있어 머리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더불어 눈치 챌 수도 없이 어느새 얼굴에 화장까지 되어 있는 모습에 하녀들은 이럴 때 보면 참 대단하다 느껴질 정도였다. 진하지도 않고 과해보이지도 않는 옅은 화장. 아니, 화장이란 자체를 처음 해보았고 왕실에 사는 여인들은 이런 걸 매일 같이 하는가 싶어, 참 귀찮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도 그녀들의 성의를 생각해 감사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떼려던 찰나 헤르세인은 뒤에서 말하는 어떤 하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니 정말로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서는 아라네아 왕비전하와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왕비전하와 닮은 머리색도 그렇고 푸른 눈동자도 그렇고. 아! 그래도 눈동자는 미묘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왕비전하께서 푸른 사파이어 같은 눈동자시라면 왕녀전하께서는 진한 코발트블루의 눈동자랄까요? 아무튼! 정말로 닮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르세인은 하녀들에게 말할 감사의 인사를 금방 머릿속에서 잊어 버렸다. 오히려 정신이 차가운 얼음 마냥 싸하고 맑아질 만큼 헤르세인은 거울 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닌 거울너머로 비치는 왕비의 모습을 노려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왕실에 들어오고 난 후, 이름뿐인 왕녀란 것을 가장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것을 다음으로 제일 많이들은 것은 왕비와 닮았다는 말이었다. 스스로조차 부정하고 싶을 만큼 왕비와 빼다 박은 남색의 머리카락과 닮고 싶지 않은 눈동자의 색. 시녀의 말처럼 눈동자의 색은 언뜻 보면 다르긴 했지만, 비슷한 건 여전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리 말했다. 비록 사생아에 불과하나 역시 왕비의 ‘딸’이라고.

“얘! 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왜?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 아차…. 내, 내 정신 좀 봐. 죄, 죄송합니다! 왕녀전하!”

아무래도 그 말을 뱉어낸 하녀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소문을 모르는 신입하녀인지 자기도 모르게 뱉어낸 말 같아보였다. 그러나 싸늘해진 헤르세인의 분위기를 알아챘는지 뒤에 있던 다른 하녀가 그 말을 뱉어낸 하녀를 서둘러 나무랐다. 뒤늦게 서야 무언가를 눈치 챈 그 하녀는 얼른 헤르세인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뱉어낸 말은 잊어버리기엔 어려웠다.

헤르세인은 하녀들이 무언의 눈치를 주며 왜 자신의 눈치를 보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하지만 역시 사생아라 그런지 아니면 사생아이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인지, 아라네아 왕비가 본인의 혈육임에도 딸인 헤르세인 왕녀를 잘 찾지 않는다는 소문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니, 소문이라 할 것 없이 아라네아 왕비가 웬만하면 딸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다 알고 있었다. 덕분에 하녀들은 물론이고 시녀들 사이에서조차 그럴 바에야 왕비는 대체 왜 사생아인 그녀를 왕실에 불러들여 이름뿐인 왕녀로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시녀들도 하녀들도 왕실일가도 귀족들도 모두 생각은 똑같았다. 그저 사생아이기 이전, 그녀의 핏줄이기에 ‘동정’하여 뒤늦게 딸을 왕실에 거두어 지금에서라도 편히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냐는 동정론.

솔직히 말하자면 헤르세인도 그녀가 왜 자신을 왜 찾았고, 왜 이름뿐인 왕녀로 거두어 들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던 현재 자신은 왕비를 후회하게 만들고자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만 말이다.

“이제 구두만 신으면 되는 건가?”

일부로 못들은 척, 처음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며 헤르세인은 다른 하녀에게 물었다. 다행이도 다른 하녀는 그녀의 행동에 눈치 챘는지 자연스럽게 다른 장신구를 보여 주었다.

“이제 목걸이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두를 신으시면 됩니다. 제가 착용해 드릴 테니 다시 거울을 봐주시겠습니까?”

다행이도 이럴 때는 눈치가 빠른 하녀라서 편한 점도 있었다. 물론, 모두가 이런 하녀들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하녀들은 자신을 이름뿐인 왕녀라 비웃는 자들 뿐 이었다. 특히나 시녀들이 말이다. 그나마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은 왕비의 하녀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된다고 하지만, 만약. 그녀들도 왕비의 하녀들이 아닌 그때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어느 궁 소속의 다른 시녀들이나 하녀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끝까지 이곳에서 인내하고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헤르세인은 더 이상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았다. 어느새 목에는 시녀가 착용해준 작은 사파이어로 세공된 은빛 체인의 목걸이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귀걸이를 달기 위해 시녀가 한쪽 귀걸이를 들어 헤르세인의 귀를 살며시 잡았지만, 귀가 뚫리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귀가 뚫리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지금 귀를 뚫으심이 어떠신지요?”

귀걸이를 착용하기 위해선 귀를 뚫어야 했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양 쪽 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아 귀걸이를 착용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귀를 뚫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지 싶었고 시녀가 알아서 했으면 했다. 그런데 막상 귀를 뚫는다 생각하니 하필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귀걸이는 착용하지 않겠어. 아직 뚫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주십시오. 구두만 신으시면 끝입니다.”

하녀는 처음엔 왜 귀를 뚫지 않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특유의 포커페이스대로 이유를 묻지 않은 채, 귀걸이를 도로 케이스에 내려놓았다.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신거울이 있는 의자 쪽으로 다가가 다시 자리에 앉았고, 다른 하녀가 서둘러 상자를 열어 구두를 내 놓고서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 대답했다.

“왼쪽 발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하녀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치맛단 속에 감춰진 맨발을 내밀었다. 그리고 하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을 잡은 후, 구두를 신겨주며 다음 오른 쪽 발을 내밀어주길 대답했다. 구두를 신지 않은 나머지 발을 내밀며 어느새 양 발에는 푸른색의 구두가 발에 신겨 있었다. 하녀는 이제, 제 할 일을 다 끝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얌전히 서 있자, 헤르세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전신거울의 앞에 다가가 섰다.

일부로 머리색과 비슷한 계통의 색을 골랐는지, 드레스며 장신구며 구두 할 것 없이 다 푸른 계열이었다. 파스텔 톤의 하늘색 계열의 코트와 그라데이션으로 마치 바다처럼 색이 퍼져 있는 푸른 드레스. 그리고 드레스마다 짙은 남색의 리본과 레이스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장신구는 사파이어와 진주, 아쿠아마린을 혼합해 섞어, 영롱한 푸른빛을 띄우게 만들었다. 지위식을 치루기 위해 백색의 드레스를 입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괴리감의 모습. 끝내 헤르세인은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아예 등을 돌리고서 환영식이 언제쯤 시작하는지 근처의 시녀에게 물었다.

“환영식의 시간은 언제부터지?”

“점심시간 때에 맞춰 환영식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때라고는 했지만, 근처에 있던 탁상시계를 보니 어느새 시간은 환영식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리고 있었다. 그저 목욕하고 옷 입고 머리를 치장만 했을 뿐인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줄이야. 여전히 가고 싶은 마음은 추오도 없었다. 하지만 참석하고 싶지 않아도 그녀를 굳이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왕후.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헤르세인은 시녀를 향해 일렀다.

“왕비전하가 계신 궁전으로 가지.”

라인하르트 후작을 위한 환영식이 열리는 날. 이미 새벽부터 환영식을 준비하는 시녀들과 하녀들은 잠도 제대로 못잘 만큼 바삐 움직여야 했다. 왕실의 최고의 요리사들이 정성들여 만든 최고급 요리와 디저트들, 그리고 귀족들이 빠지지 않고 마시는 최고급 와인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었다. 환영식이 낮부터 시작한다 했지만, 귀족들이 여는 파티와는 다르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연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회의 시작은 점심시간이 지난 저녁 때 부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란 본디, 귀족들 간의 정보통을 얻을 수 있는 또는 같은 파벌끼리 모여 그들만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사교의 모임.

때문에 이미 각 영지에서 수많은 귀족들이 마차를 타고 본성에 도착하고 있었다. 오늘 환영식의 메인 주인공인 라인하르트 후작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일찍이 왕성에 도착한 귀족들은 알고 지내는 귀족들과 모여 편히 잡담을 시작했고, 사교모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영애들이나 귀부인들 역시 빠지지 않았다. 꾀꼬리와도 같은 웃음소리와 함께 자기들만의 이야기에 빠져 있을 쯤, 아라네아 왕비가 등장한 건 그때였다.

“제1왕비 아라네아 왕비전하와 제2왕녀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회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귀족들은 일제히 잡담을 멈추고서 굳게 닫힌 문 쪽으로 모든 시선을 집중했다. 모두가 이야기로만 익히 들은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이자 이름뿐인 왕녀 헤르세인 왕녀.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최대의 관심 인물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문짝이 활짝 열리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아라네아 왕비의 등장에 중년의 나이를 접어든 각 귀족들은 그녀가 왜 그토록 아름다운지 왜 그토록 국왕이 아라네아 왕비를 총애하는지 이해가 될 만큼 아라네아 왕비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왕비의 곁에 있는 그녀와 닮은 또 다른 여인을 본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귀족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왕비의 곁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그녀의 딸이자 사생아라 불린 그 유명한 헤르세인 왕녀란 것을.

“저 계집이 아라네아 왕비의 딸이라고?”

“사생아라 하여 별 볼일 없는 천한 핏줄일거라 생각했는데 제 어미를 쏙 빼닮았군.”

“마치, 왕비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하군.”

“어머머, 세상에. 정말로 왕비전하와 닮았네요.”

“흥, 그래 봤자 천한핏줄에 사생아일 뿐. 어찌 됐든 이름뿐인 왕녀가 아니던가? 어째서 왕비는 왕실의 물을 흐리게 저런 천한 핏줄을 데려와 왕녀로 만든 것인지 쯧쯧.”

왕비와 함께 환영식에 참석한 헤르세인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몇몇은 호기심어린 눈으로 몇몇은 깔보는 눈, 또 몇몇은 자신의 존재를 좋게 바라보지 않는 눈. 각각 시선은 엇갈렸지만 그 눈 속에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을 거라 생각했다. 천한 핏줄, 천한 왕녀. 슬럼가 출신의 왕녀, 그리고 이름뿐인 왕녀. 환영식에 참석하면 이런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시선을 한 번에 받아보니 헤르세인은 속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왕비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헤르세인에게 속삭이듯 주의를 주었다.

“왕후께서 도착할 때까지 내 뒤를 따라 다녀라.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 것이며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명심해라.”

“왕후폐하께서 도착하시고 빈센트까지 도착하면 그땐 제 궁으로 돌아가도 되는지요.”

“그때가 되면 알아서 해라. 나도 네가 이곳에 오래 붙어 있지 않았으면 하니까.”

다행이도 모두가 도착하면 돌아가도 좋다는 왕비의 말에 헤르세인은 속으로 어느 정도 안도 했지만, 당장이라도 이 거북한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어서 빨리 왕후가 도착하기를 기도해야 했다. 왕비의 말처럼 입을 꾹 다문채로 그녀의 뒤만 조용히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귀족들이 모여 본인들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 것이 있었지만, 헤르세인은 왕비의 말을 무조건 따르듯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빼곤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에 어떤 귀족은 ‘사생아 주제에 고고한 척은.’ 또는 ‘왕녀가 됐다고 벌써 고귀한 척이나 하다니.’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었다.

물론, 대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닌 뒤에서 작게 말하는 그들이지만 일부로 들리겠끔 말하는 것인지 헤르세인은 그들의 목소리가 전부 다 들렸다. 대체 언제쯤이면 왕후가 도착할지 슬슬 머리가 피곤해지려던 찰나, 드디어 자신을 이곳에 부른 왕후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우리의 위대한 달이신 카타리아 왕후폐하와 제1왕녀 케시아 왕녀전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두 정숙!!”

순식간에 장내는 침 삼키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두 여인이 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헤르세인은 드디어 왕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환영식이 시작되는 당일. 왕성뿐만이 아닌 라인하르트 가문 영지의 대저택에서도 이미 하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도 여인들과는 달리 겹겹이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국왕이 직접 라인하르트 후작을 위해 준비한 환영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입는 옷차림과는 달라야 했다.

왕국에서도 손꼽아 주는 재단사가 제작한 최고급 연미복과 코트. 은색의 자수로 포인트를 준 짙은 올리브색의 롱코트를 포인트로, 또 감색 계열의 가죽조끼와 버튼 하나하나 세공되어 있는 롱 버튼 부츠. 그리고 아이보리 색으로 일자 형식의 목과 가슴께 까지 장식한 크라바트. 마지막으로 가문의 인장이 박힌 반지까지. 후작은 말끔한 모습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벌써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나름 서두른다고 하며 준비를 마치고 내려온 장남인 클로드도 차분한 계열의 색으로 선택했는지, 밑단에 수가 놓인 갈색의 코트와 아이보리색의 크라바트를 매고서 후작의 곁으로 다가갔다. 평소라면 기사의 직업상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머리를 건드는 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기사의 일을 잠시 쉬고서 환영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클로드는 잿빛머리카락을 말끔히 빗어 넘겨 그의 인상을 더욱 단정하면서도 날카롭게 만들었다.

언뜻 보면 클로드의 얼굴에는 후작의 젊었을 시절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클로드와 후작이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도통 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차남으로 인해 후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서 루드비카를 끌고 내려 오거라. 이러다 환영식에 늦기라도 하면 폐하께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자수정이 박힌 지팡이를 세워 자리에서 일어난 후작은 하녀가 가져다준 검은 외투를 걸쳐 입고서 먼저 마차에서 기다릴 생각으로 보였다. 먼저 저택 바깥으로 나간 후작의 뒷모습을 보며 클로드는 옅은 숨을 내쉬며 성큼성큼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큰 걸음으로 단숨에 어느 문 앞에 도착한 클로드는 노크 따윈 무시하며 성큼 안으로 들어가 익숙한 이름을 불렀다.

“루드비카.”

노크도 없이 벌컥 들어온 것은 물론이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근엄하고도 큰 목소리에 크라바트를 매주던 하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러나 놀란 하녀와는 다르게 루드비카는 느긋이 고개를 틀어 성큼성큼 다가오는 클로드와 마주했다.

“깜짝이야! 형님, 노크 좀 하고 들어오지 그러셨습니까. 이러다 아우의 심장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놀란 사람치곤, 태평히 웃으며 옷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에 클로드는 한쪽 눈썹을 꿈틀 거렸다. 눈앞에서 여유를 부리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기가 찰 따름이었다. 아버지도 자신도 이미 오래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건만, 정작 동생이란 놈은 천하 태평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녀가 목에 매주는 크라바트가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저 태평한 모습도 마음에 안들 지경인데 클로드는 루드비카의 행색을 보니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분한 계열로 연미복을 입은 후작과 클로드와는 달리, 루드비카의 행색은 화려하기 짝이 없었다.

오늘따라 길게 땋은 붉은 머리가 뱀처럼 길게 허벅지까지 꿈틀거리는 것은 물론, 거기에 포인트를 주었는지 녹색 리본 끈이 묶여 있었다. 더불어 루드비카는 금색 수가 놓인 롱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눈에 띠는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귀걸이도 언제 구했는지 에메랄드가 세공되어 있는 여전히 짤랑거리는 귀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치렁치렁 레이스가 달린 소매며, 작은 진주 알맹이로 끝이 장식 되어 있는 새하얀 크라바트가 어느새 큰 리본 모양으로 완성되자 클로드는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안 봐도 뻔해 보였다.

“너, 그런 차림으로 내려갔단 아버지께서 어떤 반응할지 알고는 있긴 한 것이냐. 아니, 설마 일부로 그러는 건 아니겠지?”

딱딱하게 묻는 클로드와는 달리, 루드비카는 옷매무새를 마무리 지으며 하녀에게 물러나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곤 그럴 리가 있냐는 화사한 얼굴로 대답했다.

“너무하시네요. 이건 그저 제 취향일 뿐입니다만. 그리고 이런 특별한 날일수록 화려하게 입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넌 도가 지나치니 하는 말이다. 그리고 몇 번을 말하지만 넌 계집이 아니라 사내란 말이다. 사내면 사내답게 행동해라. 왜 사내답지 않게 너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귀걸이를 끼며, 머리 또한 계집마냥 머리를 기르고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와는 같은 핏줄이며 자신의 형제이기도 했다. 다른 귀족가의 차남들과 또는 형제들을 보고 있자면 클로드는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루드비카와 그들을 비교하게 된다. 왜 자신의 동생은 다른 동생들처럼 사내답지 못하는지, 왜 검을 들지 않고 계집마냥 꽃을 좋아하고 붓 따위를 들어 예술인 흉내를 내는지. 왜, 나라와 관련된 역사책이나 검술을 익히는 책이 아닌 저자거리의 되도 않는 글쟁이들이 쓴 소설 따위를 읽는지 클로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계집마냥 화려하게 가꾸려는 루드비카를 거기까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얼굴에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다는 티가 팍팍 보이는 클로드의 얼굴을 봤는지 루드비카는 피식 웃으며 클로드의 앞에 다가가 그의 한쪽 어깨를 툭툭 다독였다.

“너무 그런 얼굴하진 마십시오. 그래도 화장까지 안하는 게 어딥니까? 설마, 제가 화장까지 하실 바라십니까? 진짜 여장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려나? 저 아름다운 울새님은 어느 가문의 영애이십니까! 하고 사내들이 난리 치겠지요.”

“그랬다간 정말로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니, 아버지가 말려도 널 내 손으로 가문에서 쫓아낼 거다. 진심으로.”

그저 한 번 농담 삼아 뱉은 말인데 한 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답하는 클로드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그럼에도 무섭다는 흉내를 내며 짙게 웃었다.

“어우, 무서워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형님께서 이렇게나 무서운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제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취향대로 골라 입는 것 뿐 입니다. 형님, 저는 말입니다, 화려한 게 좋습니다. 꽃도 보석도 그림도 그리고 여인도. 화려한 것이 좋습니다. 단지 그 뿐입니다. 형님.”

알고는 있었다. 다만, 클로드가 보기엔 그것이 정도를 지나쳐 보일 뿐.

“시간이 없으니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도록 하자. 그보다 잔말 말고 어서 이걸 걸치고 당장 따라 내려와라. 아버지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

클로드는 문 앞에서 하녀가 들고 있던 검은색 외투를 잡아 망설임 없이 루드비카의 면전에 던지며 어서 따라 내려올 것을 명령했다. 다행이도 여유를 부렸다는 자각은 있었는지, 루드비카는 케이프가 달린 검은 외투를 걸치자 화려하던 붉은 모습은 순식간에 칠흑 속에 감춰졌다. 그리고 클로드를 따라 서둘러 1층까지 내려가 저택바깥으로 나가자 마차 한 대가 두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너무 시간을 끄는 바람에….”

마차에 올라탄 클로드가 오랫동안 자신들을 기다렸을 아버지에게 죄송한 얼굴을 보이자, 후작은 표정변화 없었다. 오히려 이미 예상하고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후작은 지루했을 뿐 이었다.

“되었다. 이런 일이 언제 한두 번 있던 일이더냐. 어서 타거라 루드비카. 너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다.”

“예, 후작각하.”

마지막으로 마차에 루드비카까지 타게 되면서 기사들과 함께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영식이 열리는 왕성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때문에 대부분 수도가 아닌 멀리 떨어진 영지에 본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편히 쉬거나 잠깐 업무를 하며 지낼 수 있는 별장들이 수도에 있었다. 라인하르트 가문 역시 수도에 마련되어 있는 별장이 있었고, 환영식이 끝나면 꽤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가도 본 저택이 있는 영지로 돌아가기에는 무리였다.

어찌 됐든, 마부도 쉬어야 할 것이 아니던가. 더불어 당분간은 국왕의 부름으로 왕성에 자주갈 일이 있기 때문에 라인하르트 후작과 더불어 두 형제 역시 수도에 있는 별장에 머무를 예정이었다. 정적이 잠긴 마차의 안.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클로드였다.

“아버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해 보거라.”

“얼마 전, 제 지인을 통해 왕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왕비전하의….”

왕비까지 말하는 것은 좋았으나. 그 다음 단어가 클로드의 입에 턱하니 막혀버렸는지 클로드는 쉽게 그 단어를 뱉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다 흘끔 루드비카에게 시선을 갔지만 이내 원래대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 모습에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던 후작은 눈을 조용히 뜨고서 클로드가 쉽게 말하지 못할 그 단어를 너무도 쉽게 뱉어냈다.

“왕비의 사생아를 말하고 싶은 것이냐?”

“아… 예. 그것이 정말 가능한일인지 해서 말입니다. 제가 왕국의 역사를 배웠을 때는 그것도 국왕의 핏줄이 아닌 다른 이의 핏줄인 사생아를… 왕가에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 의아해서 그럽니다. 국왕의 핏줄이면 몰라도 왕실의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것도 왕비전하의 사생아가 아닙니까?”

가만히 장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후작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클로드의 말처럼 사브레 왕국의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었다. 국왕의 피가 이어진 사생아가 왕자나 혹은 왕녀로 어쩌다 한번 되는 일은 있어도 그것도 국왕의 피조차 흐르지 않는 전혀 권외인 왕비의 사생아가 왕녀가 된다는 것은 그 어디의 기록에 조차 없었다.

더불어 무슨 생각으로 모든 귀족들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그것을 허락한 국왕에게도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은 왕실의 일.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왕실에 위협이 될 만할 일도 아니기에 후작은 이내 그 생각을 접으며 클로드에게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클로드. 이 일은 우리가 상관해야할 일이 아니며 오로지 왕실의 일이다. 그러니 설령 그 왕녀와 마주치는 날이 와도 너는 그저 기사로서 충실히 임하면 된다.”

“예, 아버지.”

“하지만, 왕녀로서 대해주되 그 왕녀와는 가까이 하지 말거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클로드.”

후작의 그 한 마디에는 수많은 주의들이 담겨 있었다. 대체로 라인하르트 가문이 왕당파이기도 했으나, 결국은 가문만의 이득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 라인하르트 가문이 후작의 작위를 받게 되면서 국왕의 총애와 함께 수많은 권력을 휘두르게 됐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라인하르트 가문은 예전만큼의 권력은 휘두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큰 힘을 가진 대 귀족인 것은 여전했다.

다만, 세월이 흘러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 권력이 줄어든 것 뿐. 그러니 가문에 이득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상대할 가치 따윈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특히나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이자 이름뿐인 왕녀라 불리는 그녀에겐 권력조차 없다고 했다. 전혀 득이 될 것도 없는 인물이기에 클로드는 후작의 말뜻을 알아들으며 조용히 답했다.

“예, 아버지.”

좁은 마차 안에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던 루드비카는 그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서 빨리 수도이던 왕성이던 그곳에 도착해, 이 지루하기만 한 마차 안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 모습을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후작이 보았는지 후작은 옅은 잿빛의 눈동자를 움직여 루드비카를 보았다. 반면 후작과 눈이 마주친 루드비카는 싱긋 웃더니 이내 먼저 고개를 돌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버렸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후작의 모습이 루드비카의 눈에 비쳤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후작 역시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눈을 감아버린 모습에 루드비카는 그저 입술을 짙게 말아 올려 이 좁은 공간의 상황을 나름 즐기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빠 먼저 시선을 회피해버리는 후작의 모습에 즐거워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무뚝뚝한 가문의 부자와 예외인 한명을 빼고 정적만이 있는 마차가 한참을 달릴 쯤, 드디어 수도인 르네로 들어서자 창밖의 너머로 오늘 그들의 목적지인 왕성 뤼에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단단히 닫혀 있던 거대한 두 짝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 문을 통해 두 여인이 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두 여인 모두 화려하기 짝이 없는 강렬한 드레스와 장신구로 꾸몄는지, 너무도 화려해 그야 말로 눈뜨기 어려울 만큼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하지만 다행이도 왕후를 대놓고 보는 일은 없었다.

국왕이든 왕후이든 둘 중 누군가 등장을 한다면 귀족들이며 시녀들이며 너나 할 것 없이 최대한 허리를 숙이고,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만큼 편한 것이 없었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소리가 조용한 장내를 울렸다. 그리고 점점 그 구두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아라네아 왕비의 발치 아래 골드 색의 드레스자락이 보인순간, 곧 바로 자조적인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라네아 왕비뿐만이 아닌 이곳에 있는 모두 편히 고개를 들게나. 폐하께서 라인하르트 후작을 위해 준비한 환영식인데, 나로 인해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서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피시게.”

“성은이 망극합니다. 왕후폐하.”

성은이 망극하다는 모두의 대답에 카타리아 왕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음을 느꼈는지 귀족들은 제각각 중단하던 이야기를 마저 나누기 시작했고, 몇몇 귀족은 좋은 구경거리를 보듯 멀찍이서 왕후와 왕비의 모습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멀리서만 본다면 왕후는 자애로움과 부드러운 성품을 보이며 왕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그녀들의 바로 앞에서 본다면 그곳은 살얼음이 피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오늘도 여전히 자네는 아름답군, 아라네아 왕비. 과연 폐하께서 자네를 그토록 총애하실만한 아름다움이야.”

무심결에 들으면 칭찬 같아 보이지만, 왕후의 말 하나하나에는 독이 스며들어 있는 수십 개의 가시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말투 속에 강하게 담겨있는 빈정거림과 거만함, 질투. 왕후는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전부 왕비를 향한 질투였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 없이 무표정으로 왕후의 빈정거림을 알아챈 아라네아 왕비는 인형처럼 고개를 적당히 숙이며 늘 평소처럼 덤덤히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오히려 왕후폐하의 아름다움보다 발끝에 못 미친다 생각하나이다. 그러니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네가 그리 말할 줄이야. 물론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는 않네만, 그래도 듣는 사람으로선 나쁠 건 없겠지. 그보다 자네의 옆에 있는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인가? 자네의 딸인 헤르세인 왕녀 말이네.”

왕후는 조신이 입을 가리고 있던 고가의 부채를 단번에 거두며, 부채로 헤르세인을 지목했다. 그러자 헤르세인의 옆에 있던 아라네아 왕비는 허리를 곧게 피며 흘긋 자신의 딸을 쳐다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직 많이 부족한 제 여식입니다. 그리고 왕후폐하의 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데려 왔습니다. 뭣 하느냐 헤르세인. 어서 인사를 올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친히 너를 부르신 분이시다. 어서 인사를 드려라.”

조용히 왕비의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헤르세인은 딱딱한 왕비의 부름에 한발자국 앞으로 나가 왕후의 맞은편에 섰다. 그리고 예절 수업 때 배운 그대로 허리와 고개를 30도 정도 곧게 숙인다음 드레스 자락을 살짝 올리며 그렇게나 질리도록 외운 자신의 긴 이름을 뱉어냈다.

“처음 인사 올리겠습니다. 왕후폐하. 헤르세인 드 아벨린 미르세니안 이라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더욱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예절 수업에서 배운 대로 헤르세인은 왕후에게 인사를 올렸다. 인사와 함께 헤르세인의 시선은 땅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아래에 있는 시선 때문에 과연 왕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찬히 자신을 훑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졌지만 어째서인지 왕후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조차 없었다. 설마, 이 인사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둘 심산인지 서서히 허리가 저릿해져 오고 있을 즈음, 다행이도 왕후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도 좋다. 헤르세인이라… 왕비, 자네가 지은 이름인 건가? 아님 폐하께서 하사하신 이름인가?”

왕후의 질문에 헤르세인은 조용히 왕비를 쳐다보았다. 처음부터 헤르세인이라 이름으로 불러준 것에 대해 딱히 궁금증은 없었다. 그저 그 왕비가 그리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란 이유로 상관하지 않았던 것 뿐 이었다. 그런데 막상 왕후가 그런 질문을 하니 조금 궁금하기도 했다. ‘헤르세인’이란 이름을 누가 지은 것일까, 하는 아주 작고 미세한 궁금증. 그러나 왕비는 헤르세인에게 여전히 눈길한번 주지 않은 채로 덤덤히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폐하께서 하사하신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지을 이름이 없어 주변의 도움으로 지은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름에 대한 의미도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낳은 자식이긴 하나 사생아입니다. 그러니 이름에 대한 의미 따윈 필요가 없지요.”

“...”

예상은 했었다. 애초에 왕비는 처음부터 본 모습 그대로였고, 마음에도 있지 않는 동정심으로 자신을 강제로 왕녀로 만든 그녀가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그녀에게서 따뜻하게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다정히 불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다. 다만 언젠가는 이 이름까지 버릴 생각을 하면 이름 없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불현 듯 스쳐 지나가는 기분 이었다.

반대로 왕후는 왕비의 말을 들은 후, 약간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기분이 나쁘기 보단, 왕비의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위한 머리를 써야하는 짜증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곱게 접혀 있던 미간을 곧바로 풀어버린 왕후는 헤르세인을 보며 안타까운 눈을 지었다.

“의미 따윈 필요 없다 라…. 그래도 자네의 딸이 아닌가? 아무리 사생아라 해도 그리 이름을 막 지어서야 되겠는가? 거기다 제 딸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말하다니. 헤르세인 왕녀가 서운해 하겠네.”

헤르세인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서운은 무슨. 그런 감정 따윈 먼지 한 톨 만큼 들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언제까지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자신은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이에 끝나지 않고 왕후는 뜬금없이 헤르세인의 나이를 물어 보았다.

“아, 그러고 보니 헤르세인 왕녀. 그대의 나이는 올해 어떻게 되지?”

“올해로 열여덟 입니다. 왕후폐하.”

“그래? 그럼, 내 딸인 케시아와는 한 살 차이가 나겠구나. 그 아이가 너보다 한 살 위이니… 아, 그러고 보니 왕비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팔려 그만 소개를 하지 못했어. 케시아?”

왕후는 짙은 미소를 지으며 바로 옆에 있던 한 여인을 고운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온 여인은 왕후와 똑 닮은 진한 미소를 지으며 헤르세인과 왕비를 보며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왕비전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종종 저의 어머니의 처소에 찾아와 담소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재미난 이야기 거리가 없어 적적해 하시 답니다.”

“인사 올립니다, 케시아 왕녀. 그리고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자주 왕후폐하의 처소로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왕비전하. 그리고… 이렇게 처음 보게 되는구나. 반갑구나. 나는 왕후폐하와 국왕폐하의 적녀, 그리고 제1왕녀이자 너보다 한 살 위의 언니인 케시아 라고 한다. 풀 네임은 케시아 엘 미네르 라그디알. 잘 부탁 한다, 헤르세인. 나 역시 처음 생긴 여동생이라 어찌 해야 할지 아직 갈피가 안 잡혀서…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렴. 내 능력껏 도와주고 싶구나.”

올해로 열아홉인 국왕과 왕후의 핏줄인 제1왕녀인 케시아. 예절 수업이고 모든 수업을 들을 때마다 교사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오늘 그녀를 처음 만났음에도 처음만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다. 워낙 교사들을 통해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서 일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 많이 만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왕후와 케시아 왕녀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화장이 짙고 드레스와 장신구조차 화려하기 짝이 없는 왕후와는 다르게 케시아 왕녀는 단아했으며 마치 왕녀의 표본이라 보일만큼 왕후의 친딸처럼 보이지 않았다.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벌꿀을 발라 놓은 듯한 금발머리가 눈이 부시게 빛이 났고, 그녀의 녹안은 한없이 영롱하고 초롱거려 그야말로 에메랄드를 박아 넣은 듯한 눈동자였다. 오히려 그녀가 아라네아 왕비의 친딸이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케시아 왕녀는 눈부시도록 청아하고 빛이 났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그녀는 왕후의 친딸이자 적녀. 그녀가 착하든 착하지 않던 헤르세인은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따윈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저렇게 빛나는 사람일수록 헤르세인은 꺼려졌다. 케시아의 싱그러운 미소를 보며 헤르세인은 그저 왕비와 똑같이 덤덤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케시아 왕녀전하.”

“어머, 왕녀전하라니. 이제 너와 난 자매 사이인데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가 있을까?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렴. 헤르세인.”

“예? 아… 예….”

그것이 과연 진심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헤르세인은 뻣뻣이 고개를 위 아래로 움직이며 케시아 왕녀를 보았다. 여전히 빛이 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적응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또 다시 회장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드디어 이 환영식의 주인공들이 도착했는지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며 국왕과 함께 왔음을 알렸다.

“우리의 위대한 태양이신 위스턴 국왕폐하와 작은 태양이신 윌리스 왕태자전하! 그리고 라인하르트 후작 가문과 함께 폐하께서 납십니다! 모두, 예를 갖추십시오!!”

왕후와는 달리, 아무래도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인지 회장에 있던 모든 이가 제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위스턴 국왕을 맞이했다. 어째서 라인하르트 후작과 함께 들어오는지 거기까진 알 수 없으나, 계속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보단 오늘의 주인공들이 차라리 한꺼번에 들어오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그러다 문득, 헤르세인은 아직까지 회장 안에 나타나지 않은 빈센트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빈센트는 오늘 참석한다고 하지 않았나.’

빈센트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녀의 원래계획은 바로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무지 빈센트는 나타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하물며 아직까지 얼굴조차 본적이 없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빈센트의 얼굴을 서둘러 보고 싶기보단 어서 나타나 이 자리를 교대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소. 이 환영식은 다름 아닌 무려 3년 만에 왕성으로 귀환한 라인하르트 후작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며 이 환영식으로 라인하르트 후작은 물론, 모든 귀족들과 다시 화합하는 의미를 갖고자 마련한 연회이니 오늘만큼 마음껏 즐기고 가길 바라오!”

케시아 왕녀가 어느 쪽의 핏줄을 진하게 이어받았는지 헤르세인은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녀와 똑같은 금발머리와 에메랄드를 연상케 하는 녹색 눈동자. 그리고 처음 보는 왕태자 역시 국왕과 닮은 머리색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왕실 혈통은 대부분 금발과 녹안을 지니고 태어나는 듯싶었다. 국왕의 길지 않은 연설의 시작으로 어느새 환영식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리지 않던 악기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회장의 안쪽으로 언제부터인지 왕실악단이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국왕의 곁으로 서둘러 다가가는 왕후와 케시아 왕녀. 헤르세인은 당연히 왕비도 왕후처럼 국왕의 곁으로 갈 거라 생각하며 아무생각 없이 옆을 봤지만, 어째서인지 왕비는 제자리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 멀리 있는 국왕을 보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헤르세인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저 멀리 있는 국왕의 모습을 보았다. 국왕의 체격은 컸으며 광대뼈가 살짝 도드라져 보여 그의 인상을 날카롭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왕태자 역시 국왕을 빼다 닮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로서 왕실 일가는 빈센트를 빼면 전부 모인 것이다. 다만, 그들 사이에 자신은 외부인이었고, 왕녀로서 왕실 일가에 이름이 새겨진다 해도 그들이 가족일 순 없었다.

철저히 그들과 자신은 남남. 그래서인지 아까부터 거북하게 느껴지던 기분이 더욱 거북하게 느껴져, 계속 이곳에 있다간 토를 해버릴 만큼 속이 좋지 못했다. 빈센트까지 나타나길 기다릴 수 없었던 헤르세인은 결국 숨을 고르며 왕비에게 전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제 궁전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만, 제 궁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겨우겨우 참으며 헤르세인은 메마른 입술을 열었지만, 왕비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더욱 메말라 있어 매정하기까지 했다.

“아니, 아직 이다.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느냐. 빈센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내게 말대꾸 하려는 것이냐.”

왕비의 낮은 목소리가 헤르세인은 여전히 이곳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망할 놈 같으니라고.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기에 아직도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헤르세인은 속으로 욕지거리를 뱉어내며 이 거북한 장소를 참아야 했다. 하지만 서서히 귀족들이 음악에 취한 것인지 와인에 취한 것인지 움직임들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왕후와 국왕에게 여기저기 모여드는 그들의 행동이 보였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게 수많은 눈동자가 따라다니고 있었다. 더 이상은 그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어 잠깐 회장 바깥의 정원에라도 나가 있자는 심산으로 왕비가 어떤 말을 하든 헤르세인은 이 자리에서 잠시 해방되고 싶었다.

“그럼, 잠시 정원으로 나가있겠습니다. 일이 있으시면 시녀를 통해 불러주십시오. 저는 계속 정원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허락해주마.”

다행이도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정원에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은 막지 않는지 왕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보내 주었다. 정원으로 갈 수 있는 연회장의 문은 모두 뚫려 있었다. 한쪽은 테라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 밀담을 나누기에 적합한 장소였고, 아무래도 거대한 유리창 대신 곳곳에 기둥이 세워져 있어 바깥에서 본다면 연회장과 이어진 정원의 모습은 조화로운 풍경이다.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틈 사이를 빠져나가 정원으로 빠져나온 헤르세인은 회장에서 느껴보지 못한 산뜻한 공기에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거북하던 속도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장의 근처인지라 마음 편히 안심할 수 없었던 헤르세인은 좀 더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원의 구석 쪽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이곳이 사각지대인지 회장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아 마음을 어느 정도 놓으려던 찰나였다.

툭―

“아―”

갑자기 머리 위로 무언가 부딪치더니, 발밑으로 무언가 떨어졌다. 자연스럽게 발밑으로 시선을 옮긴 헤르세인은 그것을 줍고자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잡아 손바닥을 펼쳐 확인했다.

“이건… 귀걸이?”

그녀가 주운 것은 다름 아닌 귀걸이. 그것도 누가 봐도 엄청난 값어치를 할 것 같은 에메랄드로 세공된 귀걸이였다. 어째서 귀걸이가 머리 위로 떨어졌는지 헤르세인은 확인 차, 나무를 올려다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올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무위로 나뭇잎이 크게 움직이더니 그 속에서 검은 물체가 움직였다. 그리고….

“거, 거기 비―!”

“!!”

쿠당탕 소리를 내며, 나무위로 누군가 떨어졌다. 헤르세인은 감고 있던 눈을 살짝 뜨며 앞을 보았다. 하지만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나 하며 시선을 내리자 아니나 다를까, 웬 수상한 여인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머리까지 부딪쳤는지 상체만 일으킨 채로 엉덩이를 다독이고 있었다. 핏빛? 아니, 핏빛보다는 채도가 높았고, 선명한 불꽃과도 같은 아름다운 붉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찡그린 표정 위로 보이는 호박 빛의 눈동자. 다양한 눈동자를 봤지만, 눈앞에 있는 여인처럼 저런 눈동자 색을 가진 여인이 난생처음 보게 되어 헤르세인은 신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머리칼과 눈동자를 가졌음에도 그것을 받쳐주듯 여인의 외모역시 입이 벌어질 만큼 아름다웠다. 케시아 왕녀보다도 아름다웠다. 이 세상에 이런 외모를 가진 여인이 있나 싶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진 여인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이상함을 느끼며 눈앞의 여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기 시작했다. 얼굴까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방금 전까지 회장에서나 보던 귀족남성들이 입는 연미복이었고, 더욱 아래로 내려가자 치마 따윈 전혀 입고 있지 않았다. 바지와 부츠. 아니, 높은 굽이 달린 구두를 신었다 하더라도 위화감이 없어 잘 어울릴 정도였지만, 헤르세인은 뒤늦게 눈치를 챌 수 있었다. 눈앞에 있는 이는 여인이 아닌 사내임을.

“남자?”

“정답!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상황이 이런지라. 실례지만 공녀, 제게 손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손?”

헤르세인은 살짝 미간을 좁힌 채로 고개를 약간 기울이자, 붉은 머리를 가진 사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당신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괜찮아 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

내가 왜? 헤르세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만약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손을 내밀었겠지만 헤르세인은 이기적이었다. 슬럼가에서도 누구한명 손을 내민 적 없었고, 누군가 다쳐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고작 넘어진 것 가지고, 그것도 사내가 혼자서 못 일어나다니. 혹시 사내로 둔갑한 여인이 아닐까 싶었지만, 외모와는 다르게 목소리는 퍽이나 어울리게도 잘 어울리는 중저음의 목소리였던지라 헤르세인은 그를 사내로 인식하고 거절했다.

“손과 발, 멀쩡히 붙어 있잖아.”

그러다 헤르세인은 아차 싶었다.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뜸 제 성격대로 반말이 툭 튀어나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내가 만약 작위가 높은 귀족이라면? 그러나 헤르세인이 가장 싫은 건 누군가에게 이 일로 질책어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있으라던 왕비의 모습이 곧바로 떠올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차피 궁 안에 쳐 박혀 있을 거 될 대로 되라 싶었다.

“으음, 확실히 손과 발은 붙어 있군요. 듣고 보니 오히려 제가 실례된 말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처음 보는 분에게 부축해달라고 하다니. 역시 사내면 사내답게 스스로 일어나야겠죠?”

그리곤 사내는 방금 전 나무위로 떨어진 사람이 맞는지, 의외로 자리에서 가볍게 툴툴 털고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보고서 헤르세인은 미간을 좁히며 생각했다.

‘저렇게 멀쩡하면서 부축해달라고?’

설마 떨어진 시늉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내의 모습은 확실히 멀쩡했다. 물론, 그 증거를 보이듯 그의 코트 밑자락에는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지만 털어내면 그 뿐. 사내의 어느 곳 하나 아픈 기색 따윈 느껴지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서 손에 들고 있던 귀걸이를 다시 보았다.

‘혹시 이 귀걸이는 저 남자 건가?’

혹시나 하며 헤르세인은 손바닥에 주시하고 있던 시선을 들어 사내의 양 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한 쪽 귓불에는 그녀가 주운 귀걸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쪽의 귀로 시선을 돌리니 그곳에는 허전한 귀걸이를 찾듯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이로서 그녀가 주운 귀걸이의 주인은 눈앞에 있는 사내가 틀림없었다.

‘귀걸이를 하는 남자라니. 특이하긴 하지만 내 알바 아니겠지. 본인 취향인데.’

그리곤 헤르세인은 사내의 앞으로 다가가 바람에 살랑이며 움직이는 귀걸이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이 귀걸이, 당신거지?”

“아, 그 귀걸이는!”

헤르세인은 그의 손바닥 위로 귀걸이를 살짝 떨어트리고서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귀걸이를 돌려받은 사내는 다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곧바로 귓불에 착용하자, 어느새 헤르세인을 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낄 수 있게 됐군요.”

“내 발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물론, 처음에는 내 머리위로 떨어졌지만. 헤르세인은 뒷말을 생략하며 뒤를 돌았다. 귀걸이도 주인에게 돌려줬겠다, 더 이상 누군가와 얽혀 왕비에게 보였다간 좋은 소리 듣지 못할게 뻔했다. 안 그래도 벌써 피곤해진 몸. 회장으로 들어가 빈센트가 있든 없든 이번에는 궁전으로 반드시 돌아갈 생각으로 헤르세인은 한발 나아갈 때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순식간이었다. 헤르세인의 손목은 어느 순간 사내에게 붙잡혀 있었다. 비록 사내 쪽이 하얀 장갑을 끼고 있어 서로의 피부가 맞닿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막상 타인이 제멋대로 손목을 잡으니 불쾌해진 헤르세인은 서둘러 그의 손을 강하게 쳐냈다.

탁―!

“!!”

헤르세인은 그의 손을 쳐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손을 쳐낼 수 없었다. 자신의 힘이 약했던 건지 아니면 상대방 쪽이 잡고 있는 힘이 강한 건지, 오히려 그는 입 꼬리를 짙게 말아 올리며 은근슬쩍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외모로 인해, 검 하나 못 잡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이래보여도 힘은 어느 정도 있답니다. 아! 혹시 불쾌하셨다면 바로 놓아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곤 사내는 언제 그 손목을 잡았냐는 듯이 오히려 증거를 보여주듯 손바닥이 보이도록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다. 여러모로 피곤한 사내였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은 헤르세인은 다시 제갈 길 가려했지만, 이번에는 손목대신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실례지만, 이름!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귀걸이를 찾아주신 보답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절 도와주신 분의 이름을 알아야 할 것 같군요.”

“...”

보답이라. 보답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헤르세인은 작게 헛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무표정인 얼굴로 고개를 틀어 사내를 보며 대답했다.

“없어.”

“…예?”

사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생각하던 헤르세인은 사내를 똑바로 보며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이름 따위 없어. 당신에게 들려줄 이름도 없고. 그러니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보답도 필요 없으니까. 그럼.”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린 헤르세인은 쓰게 웃었다. 이름 따위 없는 건 사실이니까. 헤르세인이란 이름으로 어차피 일방적으로 왕비와 모두가 부르기 편하고자 붙여진 이름일 뿐. 그녀에겐 슬럼가에 버려진 그 순간부터 이름은 없었다. 그러니 상대가 누구든 이름을 알려줄 수도 알려주고 싶어도 자신의 진짜 이름은 없었다. 그저 자신은 ‘가짜’ 이름을 가진 헤르세인으로서 살아갈 뿐.

오늘따라 회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녀에겐 무거움이 느껴졌다.

환영식은 3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남들이 우아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 헤르세인은 편한 드레스차림으로 궁전에 틀어 박혀 있었다. 왕후의 명령으로 환영식 첫날, 강제적인 참석을 하게 됐지만, 어찌됐든 그녀의 명령은 헤르세인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만 빼면 헤르세인이 환영식에 있을 이유는 없었다. 모두가 바라지 않았고, 헤르세인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3일 동안 모두가 시끄럽게 떠들며 연회를 열고 있을 때, 창가에 앉아 헤르세인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밤늦게까지 왕성의 불빛을 비추는 연회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만 잠이나 잘까….”

어차피 길어도 한 시간이 고작인 짧은 잠의 시간. 지금 잔다 하더라도 헤르세인은 푹 자본 기억이 없었다. 그럼에도 굳이 자겠다고 한건 읽고 있는 책이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였다. 글씨의 문양을 따라 그리는 건지, 아니면 내용은 안 읽고 정말로 글씨만 읽는 건지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행이도 암기력이 좋은 덕분에 헤르세인은 글을 배우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더불어 스파르타식으로 강도 높게 글을 익히다보니 고급 문장을 쓰지 못해도 헤르세인은 보통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탁, 소리를 내며 헤르세인은 「사브레 왕국의 지리」에 관한 보통 두께의 책을 덮으며 침대에 점프하듯 뛰어 들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왕실에서 만든 침구라 그런지 몇 번이나 얼굴을 맞대어도 베개는 참으로 푹신푹신했다. 마치, 구름을 따다 베개를 만들기라도 했는지 헤르세인은 그 푹신한 감촉이 좋았다. 하지만 보통 눕기만 하면 보통사람은 잠이 오겠지만, 아무리 누워도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는 헤르세인은 결국 파묻고 있던 얼굴을 천장이 있는 쪽으로 돌려 몸을 대짜로 뻗은 채로 멍하니 눈을 깜박였다.

“여인인지 사내인지 모를 사람….”

그의 인상이 워낙 충격적 이여서 일까, 아님 독특해서 일까. 꽤나 기억 속에서 잔상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 그를 보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케시아 왕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했다. 정말로 케시아 왕녀는 아름답고 예뻤으니까. 하지만 그 사내를 만난후로 이상하게도 케시아 왕녀보다 오히려 사내인 그가 더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였다. 어떻게 여인보다 사내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내의 모습을 떠오르고 있자면 헤르세인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여인이긴 한데 말을 하면 확 깬다고 해야 하나….”

아니, 확 깨기보다는 그 외모와 어울릴 만큼 사내의 중저음 목소리는 잘날 정도로 어울렸다. 하지만 그것 뿐. 그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내이긴 하지만, 어차피 자신의 머릿속에 잊어질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어쩌면 그도 벌써, 자신 따위 잊은 지 오래일 것이다.

“말은 정중하게 했지만, 어차피 귀족. 그 남자도 똑같은 부류겠지.”

그의 옷차림을 보고 있자면 누가 봐도 한 재력 하는 귀족으로 보였다. 그리고 모든 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만약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 모습을 상상하다 이내 헤르세인은 쓰게 비틀어 웃었다.

“분명, 표정이 싹 변하고 대놓고 그랬겠지. 이름뿐인 왕녀에게 천한 왕녀에게 귀걸이 따위를 받았다고.”

그 생각을 하니, 헤르세인은 차라리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오히려 그런 말보다 생긋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또는 잘 어울리네요.’라고. 왠지 그 사내에게 알려주면 정말로 그 말을 들을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었다. 헤르세인이란 이름. 그저 누군가 불리기 편하고자 붙여진 거나 다름없는 가짜 이름. 슬럼가에서 불리던 ‘야’란 것이 더욱 자신의 진짜 이름처럼 느껴진다면 착각일까.

‘가짜 이름이든 진짜 이름이든 상관없어. 지금 나는 내 이름보단 내 복수가 우선이니까. 태평한 생각할 틈 따윈 없어.’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으며 새우처럼 옆으로 등을 굽혀 눈을 감고 누웠다.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아니, 눈을 감고 이렇게 불이 꺼진 어둠 속에 잠을 잘 때면 어느새 자신도 모를 두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이를 악물며 눈을 감고 숫자를 세며 빌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서, 새벽의 동이 트기를….’

환영식의 마지막 밤이 끝나고 어느덧 깊은 새벽의 동이 트는 하늘. 그럼에도 아직 밤이 깊은지 침실에는 커튼이 단단히 닫혀 있어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진했다. 깊은 어둠 속의 침실 속. 부스럭 소리를 내며 누군가 몸을 일으키자 누워 있던 한 여인이 이내 추위를 참지 못했는지 덩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으응, 벌써 일어나요?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는데….”

잠결에 웅얼거리듯 여인은 여전히 사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사내는 그런 여인의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 올려주며 허리를 잡고 있는 가는 팔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대답했다.

“가지 말았으면 하나요?”

부드러운 사내의 음성에 누워있던 여인은 결국 몸을 일으켰다. 여인이 몸을 일으키자 시트가 흘러내리며 여인의 살결이 드러나는 시스루차림의 잠옷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인은 창피함 따윈 게의 치 않는지 풍만한 가슴골이 잘 보이는 잠옷차림으로 근처에서 옷을 갖춰 입고 있는 사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투덜거렸다.

“내가 가지 말라면 정말 안갈 건가요?”

“흐음, 글쎄요.”

“거짓말쟁이. 역시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난 당신을 잘 알아요. 내가 가지 말라 해도 결국 당신은 갈 사람이니까.”

“당신 말처럼, 당신은 나를 너무 잘 아는 것 같네요.”

상쾌하게 맞받아치는 그의 대답에 여인은 이내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며 시트에 몸을 가리곤 작게 하품을 했다. 그리곤 가자미눈을 하고선 사내의 움직임을 주시하자, 어느새 사내는 완벽하게 옷을 갖춰 입은 채로 창가로 다가가 단숨에 커튼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갑작스러운 빛에 적응이 안 되는지 여인은 잠시 동안 눈을 찌푸렸다. 서서히 빛에 적응이 될 쯤,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붉은 머리의 사내를 보며, 여인은 그의 이름을 똑 부러지게 불렀다.

“루드비카, 제발 커튼을 열 땐 말 좀 하고 열어요. 눈이 부셔 죽겠잖아요.”

“내 외모에 눈이 부신 게 아니고?”

동이 트는 새벽의 하늘. 그리고 퍽이나 그 배경이 잘 어울릴 정도로 사브레 왕국에서 가장 잘난 외모를 지닌 아니, 그녀보다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내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에 여인은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오리 주둥이처럼 삐죽 내밀었지만, 이내 콧방귀를 끼며 맹렬히 비난했다.

“당신의 그런 뻔뻔한 모습을 모든 귀족가의 공녀들이 알아야할 텐데 말이죠. 아마,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공녀들이 전부 달아날걸요? 겉은 화려하기 짝이 없는 아름다운 사내지만, 속은 시커먼 능구렁이 수천마리를 몸에 지닌 사악한 남자란 걸.”

“하지만, 그걸 잘 알고 있는 당신은 벌써 나와의 인연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게요. 그걸 알면서도 당신과 여전히 만나는 나는 미친년이죠.”

“험한 입이네요. 예쁜 입술답지 않게.”

“흥! 입이 험한 여자는 싫다 이건가요?”

여인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팔짱을 꼈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루드비카는 상쾌하게 웃으며 여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침대가 약간 기울어질 정도의 끝에 앉아 루드비카는 파스텔 톤의 노란 끈을 그녀에게 내밀며 묶어 줄 것을 부탁했다.

“자, 그럼 제 머리를 부탁드리죠.”

“흐응, 이러면서 모르는 척 하겠다? 뭐 됐어요. 어떻게 해줄까요? 땋아 줄까요? 아님 포니테일로 간단히? 아님 옆으로? 말만해요. 난 손재주가 좋으니까.”

“간단히 포니테일로.”

노란 끈을 넘겨받은 여인은 어느새 등을 지고 뒤돌아 앉은 루드비카의 붉은 머리칼을 살며시 만져 보았다. 대체 어찌 관리를 하는지 자신보다 이토록 머릿결이 좋을 수 있을까. 심지어 향기도 좋았다. 여인은 루드비카에게 어떤 향유를 쓰는지 묻고 싶었지만 왠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이내 지워버렸다. 실크인지 비단인지 모를 보드라운 붉은 머리칼을 한곳으로 모아 높게 올려 노란 끈으로 묶어 리본으로 마무리를 지은 여인은 어느새 완성된 루드비카의 헤어스타일을 보며 만족의 미소를 보였다.

“포니테일은 어차피 금방이니까. 자, 다 됐어요.”

“빠르네요. 흠, 내가 묶으면 이렇게 예쁘게 잘 안 묶여지던데…. 역시 당신은 손재주가 좋은 것 같네요.”

루드비카의 칭찬에 여인은 코웃음을 치며, 가는 눈썹을 꿈틀 거렸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럼 나랑 결혼해요, 루드비카.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만족할만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난 당신의 그런 화려한 모습에 반한 거니까요. 물론, 침대에서의 능력도.”

그녀의 당당한 청혼에 루드비카는 진하게 입 꼬리를 말아 올리며 두루뭉술하게 대답했다.

“싫다면요?”

그리고 늘 그렇듯, 그녀는 혀를 찼다.

“이로서 날 몇 번이나 찬 거죠? 열 번? 스무 번? 아무튼 당신이 그렇게 싫다는데 뭐 별수 있나요. 나도 이제 당신이 싫네요. 흥!”

“설마 삐진 건 아니죠?”

콧방귀를 풍풍 끼며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홱 돌려버린 여인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손을 뻗어 흑단과도 같은 그녀의 머릿결을 쓸어내렸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머릿결을 쓸어내리는 루드비카의 손목을 잡고서 진지하게 대답했다.

“루드비카, 오늘부로 우리사이는 이제 끝이에요. 알았어요?”

“왜죠?”

고개를 갸웃하며 이유를 묻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여인은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야 당신이 날 차버렸으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금방 평상심을 되찾은 여인은 루드비카의 볼을 꼬집듯 늘리며 투덜거리듯 뱉어냈다.

“나랑 결혼하는 거 싫다면서요. 아, 물론 여기까지는 농담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을 봐요, 루드비카. 나는 알베르셋 백작가의 장녀라고요. 물론, 알베르셋 가문은 내 동생이 이어받겠지만, 나는 출중한 가문을 가진 사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높은 자리도 말이죠. 루드비카, 당신은 분명 출중한 가문을 가진 사내는 틀림없죠. 나 말고도 많은 공녀들이 그토록 원하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차남이고 결국 라인하르트 가문의 뒤를 이을 수 없죠. 그 뒤를 잇는 건 당신의 형. 아무리 모든 여인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같이 밤을 보내고 싶다하더라도 현실은 당신의 형이자 가문, 부인의 자리에요. 그리고 당신은 차남이고. 당신은 화려하지만 아무것도 없죠. 가문도 권력도.”

여인의 현실적인 대답에 루드비카는 호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당신의 말대로 나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긴 하네요. 아! 하지만, 한 가지는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랍니다.”

“네?”

“이 외모가 있잖아요.”

“하!”

알베르셋 공녀가 기가 찬 듯한 헛웃음을 뱉어내며 루드비카를 쳐다봤지만, 이내 ‘풉‘하고 웃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짓고서 루드비카의 두 뺨을 잡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새하얀 이마에 옅은 입맞춤을 남겼다. 이걸로 그와의 마지막이자 작별의 인사. 미련이 없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작별의 아쉬움은 없었다.

“내 마지막 선물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사이는 이제 끝. 내 아버지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크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나 역시 야망이 있는 여자죠. 만약 내가 힘이 있다면 굳이 다른 이와 정략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루드비카 당신을 데릴사위로 들이기 위해 악을 썼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 내가 할 말은 못되지만, 이제 그런 방랑생활은 끝내고 좋은 여인을 찾아봐요. 당신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여인을요. 그리고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그리고 조금 농담 섞어 말하자면 당신은 날 너무 많이 찼어요.”

“복수가 섞인 작별 인사 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반반? 후후, 어쨌든 당신은 나처럼 치맛자락 너무 펄럭이는 여인은 만나지 마요. 안 그럼 살짝 질투가 날지도.”

그녀의 마지막 인사를 받고서, 루드비카는 조용히 그녀의 별장에서 나와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아직 새벽이라 그런지 도시의 거리에는 사람도, 마차 한 대 도 없었다. 마찻길이 비포장 도로였으면 나름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지금 지나고 있는 마찻길은 상당히 잘 포장되어 있는 매끄러운 도로였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라….”

알베르셋 공녀와는 꽤 오랜 인연이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화려함에 죽이 맞아 불장난을 지른 것도 있었지만, 그녀와 만날수록 오히려 친구가 되 가고 있음을 루드비카는 알 수 있었다. 그러다 후작의 명령으로 요 3년간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간간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수도로 올라와 환영식에 그녀를 오랜만에 만나보니, 여전히 화려했으며 참 잘나게 빛나는 여인이었다.

너무도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그동안 편지로서 적어내리지 못한 못 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깊은 밤을 지새우게 됐다. 물론, 이야기 도중에 그녀는 도발 비슷한 유혹을 루드비카에게 대놓고 보였다. 그리고 루드비카는 그녀의 유혹이 싫지 않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결국 그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를 안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런 루드비카의 모습에 무엇을 느꼈는지 더 이상의 강제적인 요구는 없었다. 유혹도 없었다. 그저 서로 진하게 술을 몇 번 걸친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작은 온기만 나눈 채 잠만 잤을 뿐, 오늘로서 관계는 끝. 그녀는 더 이상 친구 관계도 아닌, 백작가의 공녀로서 돌아갈 것을 원했고 권력과 가문의 힘, 백작부인 이상의 자리를 꿈꾸고 원했다. 처음부터 야망이 있는 여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야망이란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루드비카의 눈엔 야망을 가진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말처럼 사랑은 아니었다.

그저 몸만 섞는 것도 사랑이 아니란 것쯤은 알고 있었다. 모든 여인들은 사랑을 원했다. 권력도, 가문도. 한 사내를 향한 모든 것을. 그러나 혼인을 한 순간, 여인은 두 가지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맹목적인 사랑만을 원하거나 혹은 그 사랑이 버려져 오직 권력만을 원하는 것. 귀족들의 사랑은 그러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루드비카는 바람 빠지듯 피식 웃다, 이내 몸을 기대어 저택에 도착할 때까지 눈을 붙이기로 했다. 저택으로 향하는 마차너머 어느덧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다.

환영식이 언제 열리고 끝났는지 금방 머릿속에 잊어질 만큼 헤르세인은 바쁘게 보냈다. 여전히 왕비가 보낸 스파르타식의 교육들. 그리고 여전히 깐깐한 교사들의 조롱담긴 말투를 들으며 헤르세인은 묵묵히 그들의 수업에 따라갔다. 오늘도 중급 어휘문자를 테스트 보며 이제 막 공부가 끝나 운이 좋게도 헤르세인에게 처음으로 비어진 시간이 있었다.

“바람… 쐴까.”

늘 궁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갑갑한 감은 있었다. 하지만 막상 나가자니 시녀들의 눈짓이 보일 테고, 주변 궁전을 지키는 병사들의 시선도 있어 나가는 것이 꺼려지기도 했다. 한 창 동안 책상에 앉아 잉크가 묻어 있지 않은 펜을 툭툭- 책상에 두드리던 헤르세인은 결국 결정을 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닫혀 있는 문 앞에 섰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정원을 찾아볼까.’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띄지 않는 장소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반드시 하녀들이 있을 게 분명했다. 여전히 문 앞에서 나가지도 못한 채 곰곰이 생각하던 헤르세인은 ‘아.’하고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분명히 이 시간 때쯤이면 시녀들이 없는 시간이던가? 하녀들은 교대시간이고.’

주로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하녀들은 평민들을 구성해 많은 하녀들을 뽑아 교대근무를 했다. 반면 시녀들은 지방 출신의 귀족가의 자제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왕실 일가 사람들에게 차를 따라주거나 서로 담소를 나누며 하는 것이 그녀들의 주된 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시녀들이 하는 일은 그다지 없었다. 때문에 시녀들과 하녀들의 신분차이가 하늘을 찔러, 가끔씩 문밖으로 하녀들에 대한 괜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녀들의 목소리를 헤르세인은 몇 번이고 들었다.

‘일단 바깥 상황을 보자.’

조심스럽게 개미가 지나갈만한 틈을 열어 헤르세인은 바깥 복도의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맞아 떨어졌는지 복도에 지나가는 하녀나 시녀들은 없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시녀들은 왕후와 케시아 왕녀 궁전의 소속이니까, 없는 것도 당연하겠지.’

하녀들은 평민이면서도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없었다. 반면 하녀들과는 달리 시녀들은 귀족출신이 많지만,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어느 궁전의 소속이냐에 따라 활동범위가 달라졌다. 특히나 헤르세인은 이름뿐인 왕녀이기 때문에 표면상 위에서 내려진 명령으로 왕후와 케시아 왕녀 궁전의 소속인 시녀 몇몇이 그녀의 궁전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어디까지나 주인인 왕후와 케시아 왕녀일 뿐. 거기다 표면상이라는 명령 때문에 정말 어쩌다 한번 시녀들과 마주칠 뿐, 시녀들이 이곳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인 셈. 그리고 그런 시녀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지 제지하는 것조차 없었다.

‘그래도 시녀들이 없어서 나가기에는 수월하겠지.’

만약 지나가는 시녀라도 있었다간 분명 자신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며 곧바로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러 갈 것이 뻔했다. 다행이도 오늘 같은 날, 이 궁전에 없는 시녀들에게 처음으로 작은 고마움을 느끼며 헤르세인은 빠르게 문을 닫고 복도를 걸으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왕에게서 하사받은 제6궁, 레인 궁전. 분명 국왕이 하사한 궁이 맞긴 하지만 헤르세인은 아직까지 이 넓은 궁전이 익숙하지 않았다. 다른 궁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궁전에 불과했지만, 헤르세인에게는 턱없이 넓고 방도 많은 궁전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나마 좋은 점이라면 궁전이 작다보니 지리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궁에는 작은 비밀통로가 존재했다. 그 비밀통로를 발견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몰래 빠져나가기에는 안성맞춤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 비밀통로가 있는 궁전을 내어 준 것을 보면 왕실에서도 아는 이가 없는 것이 틀림없었다.

주변을 살피며, 텅 비어버린 복도를 지나 거의 폐쇄된 방이나 다름없는 허름한 어느 장소에 그녀는 도착할 수 있었다. 헤르세인은 책장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책장에는 먼지가 가득 쌓인 수 십 권의 책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몇 번이고 봐둔 익숙한 한권의 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드르르륵―

책을 살짝 끄집어냈을 뿐인데, 책장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사람한명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그녀의 앞에 드러냈다. 어느 길로 이어질지 모를 기나긴 어두운 통로. 이것이 비밀통로였다. 헤르세인은 이 비밀통로를 발견하고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주목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이름뿐인 왕녀라는 손가락질을 받고자 굳이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성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이 비밀통로를 발견한 것으로 분명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서둘러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 앞쪽으로 한발을 딛자, 아무래도 문을 닫는 버튼이 있는지 바닥이 살짝 눌리면서 드르륵 소리를 내며 책장이 빛을 내리는 공간을 닫아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져 그 찰나 동안,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벽 마다 불꽃이 활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저절로 횃불이 켜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빛이 있어 눈앞이 환해지니 헤르세인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다행이다, 불이 켜져서.”

환한 통로의 길을 보며, 헤르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 궁전에 비밀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국왕이 알았다면 과연 자신에게 내어 줬을 지에 대한 의문. 확신하건데 분명 국왕은 다른 궁전으로 내어줬을지도 몰랐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밀통로가 있는 궁전을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을까. 헤르세인은 비밀통로를 쭉 훑으며 이번엔 다른 생각에 잠겼다.

비밀통로가 궁전에 만들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일수도 있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 어느 비밀장소를 만들고자 함. 또는 살고자하는 도망치기 위한 수단. 비밀통로를 만들 이유는 많았지만, 왕실을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제일 커 보였다. 헤르세인은 이제 생각을 접고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밟고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밑으로 깊게 내려갈수록 짙어지는 오랜 곰팡이 냄새와 시도 때도 없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무수한 먼지들이 보였다. 그리고 언뜻 보면 동굴을 체험하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묘하게 모험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 이제는 평지인지 헤르세인은 묵묵히 걸어갔다.

“…출구인가?”

한참을 걷다가 드디어 출구에 도착했는지 앞의 길은 막혀 있었지만, 위로 올라가는 계단과 천장의 틈사이로 옅은 빛이 나오고 있었다. 몇 발자국 계단을 타고 올라간 헤르세인은 굉장히 낡고 오래된 두터운 문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서 조심스럽게 있는 힘껏 문을 위로 밀어냈다. 하지만 오래된 문이라 그런지 제법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에 질세라 헤르세인은 어떡해든 문을 밀어냈고, 꽤나 힘을 쓴 덕분에 드디어 천장을 덮고 있던 문을 열 수 있었다.

빛이 밝지 않은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어 그런지, 갑작스럽게 내리쬐는 강렬한 빛에 헤르세인은 살짝 따가움을 느끼며 한동안 빛에 적응 되겠끔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떠보았다. 서서히 자연 빛에 적응 되는지 시력이 돌아오면서 눈앞의 배경이 뚜렷하게 보였다. 눈의 시력이 완전히 되돌아오자, 헤르세인은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느 낡은 집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긴…?”

일단,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다. 반쯤 정도 문을 가리고 있던 카펫 때문인지, 그 무게로 인해 쉽게 열리지 않은 것 같았다. 또한 그녀가 닫은 문은 바닥과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문의 틈을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다행이도 카펫이 가린 위치덕분에 비밀 문이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카펫을 조금 더 끌어올려 문을 가린 후, 본격적으로 주변을 살펴보았다.

“비밀통로가 여기랑 이어져 있다니…. 왜, 여기랑 이어진 거지?”

비밀통로라 해도 기껏해야 자신의 궁전 뒷문으로 통하는 문 일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낡은 집과 이어진 비밀통로일 줄이야. 헤르세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유리문이 거의 깨진 창밖을 보았다, 창밖을 보니 왕성과 조금 멀리 떨어진 어느 숲속 같았다. 울창한 숲 너머로 왕성의 뾰족한 지붕이 보이자 헤르세인은 살짝 가자미눈을 하다 이내 눈을 바로 뜨고는 주변을 다시 살펴보았다. 집이라 불리기엔 어딘가 어색했고, 비밀장소라 불리기엔 묘한 느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오래된 머그컵과 쓰러진 의자, 그리고 낡은 책상. 비밀장소처럼 보이진 않지만,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어 헤르세인은 이 장소를 그냥 비밀의 집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본래 그녀의 목적은 왕성의 작은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 잠깐 바람만 쐬고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작은 비밀장소는커녕 어마 무시한 비밀이 가득하면서도 왕성과 떨어진 곳에 서있게 되니, 이 장소를 만든 사람의 전의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왕성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왕성 바깥이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서둘러 이 비밀의 집 바깥으로 나가려 했다.

‘잠깐, 이대로 나가기엔 눈에 너무 띄지 않을까?’

헤르세인은 자신의 옷차림을 보았다. 다른 시녀들 보다는 조금 눈에 띄는 수수한 드레스차림. 장신구 하나 없이, 밋밋하기 짝이 없는 원피스 형식의 드레스였다. 그러나 왕성에서 만들어진 드레스여서인지 옷감이 좋은 건 부정할 수 없었다.

혹시 주변에 옷을 가린 로브나 옷가지가 없을까하며 주변을 뒤져보니, 다행이도 드레스를 가릴 흔한 갈색의 로브를 찾을 수 있었다. 누가 벗고 이곳에 나뒀는지 모르겠지만, 로브가 있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헤르세인은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서 로브로 몸을 완전히 가린 다음, 조심스럽게 바깥세상으로 처음 발을 내딛었다.

환영식이 끝난 후로 루드비카는 현재 수도에 있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별장에서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왕성의 회의에 하루라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후작과 왕태자의 호위기사가 된 클로드마저 성으로 가버리니 홀로 별장에 있어야하는 루드비카로선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시종을 시켜 마차를 부른 루드비카는 마차를 타고 이동하여 어느 한 상단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상단에 도착하자 가벼운 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루드비카는 저 멀리 서류뭉치를 들고 이동하는 익숙한 갈색 머리 사내가 보이는 동시에 친근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라 해도 바쁜 건 여전하군, 필릭스.”

“루, 루드비카님?　세상에! 진짜 루드비카님 이십니까?!”

필릭스라 불린 사내는 이 상단의 총무이자 루드비카와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다. 덕분에 필릭스는 호들갑을 떨며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내팽겨 칠 정도는 아니지만, 서둘러 루드비카의 앞으로 다가가 오랜만에 만나는 그를 반겼다.

“돌아오셨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바깥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혹시나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돌아오신 겁니까?”

“응, 3년 만에 돌아와서 그런지 수도 전체는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어색해. 어때? 내가 없는 3년 동안 여기 상단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못 보던 얼굴들도 많고. 그보다 필릭스, 그렇게 편지를 잘 보내다가 갑자기 안 보내서 얼마나 내가 서운했는지 알아? 내가 지금 너한테 삐져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삐졌다는 투로 루드비카가 새침하게 팔짱을 끼자, 정작 필릭스의 눈에는 그의 행동이 어린 동생 같아 피식 웃음이 세어 나왔다.

‘여전하시구나. 그래도 건강하셔서 다행이다.’

필릭스는 여전히 화사한 루드비카의 모습을 보다가 어색하게 뒷머리를 슬쩍 긁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많이 삐지지 않으셔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변명하자면 요 근래 상단이 많이 커져서 많이 바빴어요. 그건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 삐지지 말아주세요.”

“뭐, 필릭스니까 봐주도록 하지.”

“그거 영광이네요. 그보다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뒤로, 3년 만의 이야기 보물이 터지느라 루드키바도 필릭스도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을 때쯤, 루드비카가 무심결에 뱉은 그 한 마디에 전쟁이 시작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필릭스. 3년 동안 내가 못 본 사이에 얼굴이 정말 좋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내가 알고 있는 필릭스의 모습은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며 옷이며 늘 단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말이지. 흐음, 옷의 취향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아닐 테고.”

자신의 턱을 잡고서 루드비카는 진지하게 필릭스의 모습을 훑자, 마침 무언가를 떠올렸는지 ‘아!’하고는 필릭스가 감탄사를 뱉어내며 태평하게 대답했다.

“아! 그러고 보니 루드비카님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정신이 없어 편지를 못 쓴 것도 있지만 사실, 저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제 곁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하하하.”

“결혼? 결혼이라고? 정말로?”

“네! 저 결혼 했―! 아, 맞다… 저, 저기 루드비카님?”

너무나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던 필릭스는 루드비카의 굳은 표정을 보자, 그제 서야 자신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다. 너무나도 당연히 그의 축복이 담긴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필릭스는 요 3년 동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동안 까먹고 있었던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은근슬쩍 루드비카의 눈을 피했다. 그러나 어느새 자신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온 루드비카의 모습에 필릭스는 자신의 요 주둥이가 미웠다.

“필릭스. 내가 그때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그새 나 없다고 까먹었군. 분명히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텐데. 아, 그런데 필릭스는 1년 동안 내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지? 이거 너무 서운한 걸?”

“헉! 루, 루드비카님! 그, 그게 말이죠! 그, 그보다 무섭다고요!! 어깨가! 아악! 어깨를 누르시면!!”

이대로 그의 손에 붙잡혀 있다간 필릭스는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닐까하는 느낌이 들 때였다. 때마침 필릭스에게 용무가 있었는지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필릭스의 구세주가 되어 나타났다.

“실례지만 손님, 저희 상단에 들어오셔서 제 부하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엄밀히 영업방해 입니다만.”

필릭스만큼이나 더 반가운 목소리를 들은 루드비카는 바로 손을 떼며 몸을 틀어 그 목소리가 들린 정면을 향했다. 그의 시야가 닿은 곳에는 살구 빛의 특이한 머리색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시종일관 화가 나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인상과 단안경 너머로 옅은 카키색의 눈동자를 가진 남자. 그는 루드비카가 찾아온 이 곳 아클레아 상단을 이끄는 단장이자 주인이기도 했다. 서류를 돌돌 말아 어깨를 안마하듯 통통 치고 있던 로렌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긋 웃으며 오랜만이라 인사를 청하는 루드비카의 두꺼운 낯짝을 똑똑히 보았다.

“오랜만이야. 로렌드.”

“퍽이나 오랜만이다. 넌 오자마자 필릭스를 그렇게 또 괴롭히냐? 이젠 좀 봐줘라, 곧 있으면 애 아빠가 될 녀석이라고. 아무리 3년이나 안 봤다지만 넌 여전하구나.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어.”

생글생글 웃고 있는 루드비카와 달리, 로렌드의 얼굴은 강철이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표정변화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루드비카의 화를 일부로 돋기 위함인지 표정 없는 얼굴과는 달리 까칠한 말투가 오만하고도 빈정거림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에 넘어가지 않고 루드비카는 이에 연기를 하듯 슬프고 한없이 가녀린 표정을 지으며 절절히 대답했다.

“한심하다니. 너무하네, 로렌드. 어떻게 3년 동안 나한테 편지 한통 안 보낼 수가 있지? 너하고 나, 우린 진한 우정의 잔을 나눈 벗 사이가 아니었던가? 난 그래도 너한테 안부 편지 정도는 보냈는데…. 내가 얼마나 너의 편지를 기다렸는지 알고는 있어?”

그러나 아무도 그의 슬프고 가녀린 표정에 대꾸하는 이는 없었다. 연기인 걸 이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얼굴에 흙을 같다 뿌려버리고 싶을 만큼 로렌드는 루드비카에게 코웃음을 쳤다.

“내 알바냐? 그리고 안부 편지 따위 보내 달라 한 적도 없어. 그리고 너, 그걸 안부편지라고 보낸 거냐? 그게 어딜 봐서 안부편지인데? 그건 그냥 네 녀석의 시답지 않은 하루 일과 스케줄뿐이잖아. 아아, 그래. 그래도 고마운 점은 있단 걸 다행으로 여겨라. 덕분에 불쏘시게 걱정은 없었으니까.”

로렌드의 매정한 말에 루드비카는 눈물 흘리고 있던 시늉을 하던 두 손을 얼굴에서 떼어내며 이내 투덜거렸다.

“아아, 매정해라. 로렌드는 너무 차가워.”

“매정하기는 무슨.”

역시 어린 시절부터 쭉 보고 자란 사이라 그런지 두 사람 모두 말은 이래도 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물론, 루드비카를 받아주는 쪽은 언제나 로렌드쪽이라 루드비카와 얘기를 했다하면 로렌드는 늘 피곤했다. 조끼 주머니 속에 회중시계를 꺼내들어 시간을 확인한 로렌드는 다시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서 시간이 여유 있음을 알렸다.

“어쨌든 서서 이야기 하긴 싫으니까, 접객실로 들어와. 느긋한 후작가문의 도련님과는 다르게 나는 이래보여도 시간이 금 같은 사람이라고. 차 한 잔 정도는 내줄테니까 얼른 와.”

그러나 여전히 입을 삐죽 내밀며 차 한 잔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지 루드비카는 아이처럼 로렌드에게 투덜거렸다.

“차 한 잔, 가지고 되겠어? 말 하는 사이에 입도 심심할 텐데. 쿠키도 잔뜩 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지.”

그 모습에 미간을 좁히며 로렌드는 혀를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드는 군말 없이 루드비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릭스에게 부탁했다.

“우리 상단을 뭐로 보고. 알았으니 얼른 들어오기나 해. 필릭스 미안하지만, 이번에 우리 상단에서 선물로 받은 쿠키 있지? 그거 가지고 들어와.”

“예? 하, 하지만 단장님. 그거 엄청 비싼 쿠키잖아요!”

“상관없어. 어차피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 먹을 걸로 설마 장식이나 할 생각이야? 얼른 가져와. 저 녀석 입에 쿠키 한 덩어리 쑤셔 넣어버리게.”

알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어디론가 향한 필릭스를 보고서 로렌드와 루드비카는 접객실로 들어갔다. 늘 귀빈과 귀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접객실로 들락날락거리는 로렌드와 달리, 루드비카는 실로 오랜만에 들어온 접객실인지라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봤지만, 그래도 진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먼저 자리에 앉은 로렌드는 주변을 둘러보는 루드비카를 보며 미간을 좁히고서 손가락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으니까, 그만 구경하고 어서 앉기나 해.”

“알았어, 알았어.”

여전히 입을 삐죽인 채로 루드비카는 투덜거리듯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 로렌드는 허리를 약간 숙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여러 종류의 차들을 보며 하나하나 판매상처럼 소개를 시작했다.

“한번만 대답해. 어쨌든 어떤 차를 마실지 말해봐. 오랜만에 만났으니 차 정도는 내가 직접 대접해주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라즈켈벨 사의 홍차와 얼그레이. 이거는 네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슈가델리 사의 밀크티. 그리고 이 두 개는 그린밤 사의 각종 허브티이고. 마지막으로 저건, 이번 서제국에 있는 상단과의 거래로 얻은 서제국의 유명한 차 회사라는 샨드밀 사의 홍차. 차는 아주 많으니까 선택 해 봐.”

만약 테이블이 작았으면 저 많은 차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만큼, 직사각형의 테이블 위로 차가 들어있는 통들이 삼각형의 탑으로 쌓아져 있었다. 루드비카는 처음엔 달달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슈가델리 사의 밀크티를 마실까 생각했지만, 서 제국에 있는 상단과의 거래로 받았다는 샨드밀 사의 홍차에 시선이 갔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 할 것도 없이 루드비카는 샨드밀 사의 홍차를 골랐다.

“서 제국에서 만든 홍차 맛이 궁금하군. 난 그걸로 하겠어.”

“흐음, 당연히 슈가델리 사의 밀크티를 선택할거라 생각했는데. 의외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가끔 모험 같아서 재밌잖아. 맛이 없으면 오래기억에 남을 테고 맛이 있으면 그 뒤로 자꾸 마시는 거지. 좋아하니까.”

로렌드는 한쪽 눈썹을 치켜뜨며 루드비카를 보았다. 평소 같으면 여인들이나 좋아할법한 달달한 밀크티를 달라고 했을 그인데, 이번에는 평소답지 않게 새로운 차를 원하는 루드비카의 행동에 로렌드는 의아했다. 뭐, 사람도 때론 똑같은 건만 주구장창마시다 가끔 씩의 변화로 새로운 걸 마실 때도 있으니 그러려니 생각하며 로렌드는 조심히 손을 움직이며 루드비카를 대접하기 위해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홍빛의 진한 색을 띄우며 빛깔 좋게 우러난 찻물을 조심스럽게 비싼 찻잔에 따라냈다. 서 제국에서 만든 홍차여서 그런지 사브레 왕국에서 흔히 맛보는 홍차와는 다르게 향이 진하게 실내에 퍼져나갔다. 로렌드가 건네 준 차를 한 모금 마신 루드비카는 음미하듯 눈을 감고서 미각에 최대한 집중을 했다. 말리는 방식이 다른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첨부해 만드는 것인지 홍차에서 미세한 새콤한 맛과 과일향이 느껴짐을 느꼈다. 새로운 맛을 느낀 루드비카는 꽤 나쁘지 않은지 기분 좋게 입 꼬리를 올렸다.

“어때, 서 제국의 홍차 맛은? 아직 샨드밀 사의 홍차를 사들인 게 아니라 일단 귀빈들에게 시험 상, 대접해 보고 맛이 어떤지 결과를 듣는 식이지. 거기다 대부분 차를 소비하는 고객들이 귀부인들과 공녀들이니 그녀들의 입맛이 비슷한 너의 감상을 듣고 싶은데.”

“내가 별로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소량으로만 구입해서 파는 식으로 해야겠지. 대체로 네가 맛있다고 하는 것들은 잘 팔리니까.”

“결국 내가 실험대상이다 이거군.”

투덜거리는 루드비카의 표정치고는 상당히 입에 맞는지 루드비카는 찻잔에서 손을 떼지 않고 기분 좋게 한 모금 더 마셨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로렌드는 결정했는지 찻잔을 내려놓고서 실험합격을 알렸다.

“그럼, 다음 거래 때부터 사들여야겠군.”

“아직 맛있다고는 안했는데?”

“맛있다고는 안했지만, 기분 좋게 잘만 마시고 있잖아. 그리고 네 녀석 면상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 네 덕분에 당분간 우리 상단 거래는 흑자가 되겠어. 고마움 표시로 샨드밀 사의 홍차를 너에게 보내도록 하지.”

“역시, 내 벗이야. 고마워 로렌드.”

“이럴 때만 좋은 벗이겠지.”

로렌드는 혀를 찼다. 여전히 루드비카의 모습이 못마땅했으나, 이미 그의 입가에는 작은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필릭스가 가져다준 쿠키에 루드비카는 호들갑을 떨며 엄청 좋아했고, 그런 루드비카의 모습을 본 로렌드는 제발 조용히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필릭스가 다시 접객실에서 나가자 한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오른 루드비카가 로렌드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보다, 필릭스는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식을 올린 거고? 그리고, 왜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 내가 누구보다 필릭스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기다린 필릭스의 결혼식. 아니, 오히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건 정작 식을 올릴 당사자가 아닌 루드비카였다. 그러나 이미 루드비카가 영지를 떠나 동쪽으로 떠나 있던 시간은 3년. 그리고 그 사이 필릭스는 식을 올리고 말았다. 그렇기에 더욱 루드비카는 용납할 수 없었다.

“애초에 두 사람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왜 네가 굳이 나서려는 건데? 난 그게 이해가 안가. 엄연히 필릭스의 결혼이지, 네 놈의 결혼이 아니잖아. 너 설마 필릭스 좋아하냐? 언제부터 그런 쪽이었지?”

루드비카의 취향이 그쪽일거라 생각한 로렌드가 강하게 찌르자, 그 말을 들은 루드비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나는 그저 필릭스가 고생한 점이 너무 많았고,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보답해주고자 필릭스를 위해, 필릭스의 부인을 위해, 성대하게 결혼식 준비를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체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게 만드는 거지?”

로렌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지쳤다. 사내주제에 뭘 그렇게 화려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좋아하는지. 로렌드로선 가끔 루드비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병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쭉 봐왔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녀석인 것을 알고 있기에 딱히 상관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만약 부하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로렌드는 꺼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딴 생각 접어. 벌써 필릭스가 결혼한지도 1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리고 설령 필릭스가 네게 부탁해도 내가 말려.”

“흐음,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루드비카는 불만인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그러나 루드비카가 어떤 표정을 짓든 로렌드의 표정은 끄떡없었다. 오히려 아까보다 딱딱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대답했다.

“작작해.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넌 나의 유일한 벗이기도 하지만, 그런 도 넘는 행동은 내가 용납 못해. 그리고 3년 동안 대체 넌 동쪽에 가서 뭐했던 거야? 거기에 갔다 왔으면 정신적이라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쪽? 아아, 그래. 동쪽 말이지.”

필릭스에 관한 일은 이제 그만 포기하기로 생각했는지, 로렌드의 물음에 루드비카는 뚱한 얼굴로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제쳐 버렸다. 그 어이없는 모습에 로렌드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알아서 루드비카가 말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쯤, 루드비카의 목소리는 지루하다 느낄 만큼 즐거움도 그 무엇도 없는 평범 그 자체였다.

“네 말대로 3년 동안 동쪽으로 떠나고 그곳에 도착한 순간, 처음에는 새롭게 보는 풍경들이 많아 재밌긴 했지. 근데 딱 첫날 뿐 이었어. 후작각하의 명령에 나도, 클로드 형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단 거 너도 알거야. 물론, 후작각하의 명이 없었더라도 형님은 제 발로 따라 나섰겠지만.”

“계속 얘기해. 들어줄 테니까.”

계속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던 루드비카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로렌드의 모습에 피식 웃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있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너도 알다시피 라인하르트 가문이 동쪽으로 가기 전, 언제부턴가 몬테올 왕국이 계속 동쪽의 땅을 노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야.”

“응, 그것 때문에 후작께서 자처하시고 동쪽으로 가신 거니까. 네가 편지에 적은 내용 기억하고 있어.”

“그래, 형님도 몬테올 왕국이 그런 식으로 나와 이참에 잘됐다 생각하고, 후작각하의 뒤를 따라 나선거지. 애초에 형님은 기사도 정신이 워낙 투철한 것도 있었지만…. 반면, 나는 전혀 떠날 생각 같은 건 없었는데 후작각하께선 내 의견하나 없이, 반 강제로 나를 마차에 집어넣어 그대로 동쪽으로 출발하시더군.”

“역시 후작다우시군. 네 놈을 그렇게라도 해야 어디 도망치지 못하게 하니까.”

비웃음은 아니지만 로렌드는 그 상황을 상상하듯 피식 웃어버렸다. 하지만 그런 로렌드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 바빴다.

“지리학이나 역사학을 보면 지금의 동쪽 지역에 있는 영토는 본래 사브레 왕국이 영토를 넓히기 전, 적국 이였던 코스틴 왕국의 땅이기도 했지. 지금은 사브레 왕국이 영토를 넓히면서 코스틴 왕국은 사브레 왕국의 첫 영토를 넓히는 땅이 됐고.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르고 코스틴 영토의 국경너머에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 됐지.”

“몬테올 왕국.”

정확하고도 바로 대답하는 로렌드의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곤 바로 말을 이어갔다.

“응, 아무튼 새로운 왕국답게 그쪽의 왕도 혈기왕성한지, 들리는 말로는 영토 확장을 위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군. 나는 직접 몬테올 왕국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 상황을 알 수가 없지만, 병권을 가지고 있는 후작각하께선 몬테올 왕국이 자꾸 선을 넘으니 상황이 꽤 심각했나봐. 결국 후작각하 덕분에 나는 강제로 동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막상 동쪽에 도착하고 국경선의 요새 쪽에 가봤을 땐 가관이 따로 없었지.”

“왜? 뭔가 있었어?”

무덤덤한 목소리로 로렌드는 물었다. 여전히 루드비카의 입 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그때를 기억하는 자조적인 미소였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섞으며 뜬금없는 질문을 로렌드에게 건넸다.

“있잖아, 로렌드. 아무리 왕국의 영토가 넓다 해도 그 나라의 왕이 무능하면 제일먼저 어디가 무너질까?”

“갑자기 질문이 다른 쪽으로 샌 것 같지만 대답은 해줘야겠지. 흐음…. 수도가 아닐까? 왕이 무능하기 시작하면 대체로 부정부패는 귀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 맞는 말이지. 하지만 정확한 답은 없기도 하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왕이 무능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제일먼저 무너지는 곳은 국경 쪽이 아닐까 싶거든.”

루드비카는 기억을 더듬어 첫날 동쪽 영지에 도착하고 나서 후작의 명령에 또다시 국경선에 위치한 요새로 가야만 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곳의 땅은 동쪽에 위치한 것과 더불어 몬테올 왕국과 가장 접전 지역이다 보니 언제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은 꽤나 심각했었다.

동쪽의 땅이자 코스틴 영토의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는 그곳의 영주는 충격적이게도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무려 그 일이 세 달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영주가 죽었음에도 다음 영주를 지목하지 못하도록 영지민들은 그 사실을 숨겼으며 서신하나 보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보낼 수 없었다.

당시 영주를 보좌하던 보좌관은 큰 야망을 지닌 사내였다. 겉으론 내색하지 않으나 속에는 수백만의 능구렁이를 품고 있었고 권력구도 상, 영주 다음으로 영주의 보좌관이 다음 권력을 행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영주가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보좌관은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하는 두려움과 과한 욕심으로 이 사실을 왕성에 알리지 않았다. 왕성에서 보낸 사신이 오면 없는 영주를 내세워 아프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부했다. 그런 갖가지의 핑계를 대고서 사신을 돌려보낸 후, 그때부터 보좌관의 월권행위가 시작 되었다.

지속적으로 영지민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물론, 얼토당토 않는 무리한 요구로 왕성에 바칠 토산품이라는 거짓을 고하며 토산품들의 과일 수확량을 최고로 올려 왕성이 아닌, 밀거래를 하는 불법 상단들과 거래를 맺어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 덕분에 점점 국경선이 취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요새에 있던 기사들과 병사들을 전부 꼬드겨 그들만의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고, 보좌관은 그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

병사들과 기사들을 위해 단순 젊은 여성들이 필요하다며 영지의 곳곳에서 강제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처자들을 데려가는 것은 물론, 거부할 시에 그 처자의 가족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결국 가족들을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젊은 여인들은 보좌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점점 그곳의 기반은 안쪽에서 점차 바깥으로 썩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 후작이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닐 정도로 변해 있었다. 굶어죽는 아이들이 빈번했으며 국경을 넘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몬테올 왕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는 보좌관과 요새의 병사들. 그리고 기사들. 결국 후작은 격노를 하며 썩어빠진 뿌리부터 모든 것을 척결하기로 결심했다.

제일먼저 후작이 한 일은 보좌관을 그 직책에서 파직하는 것. 더불어 요새에 있던 병사들과 기사들을 전부 파직하면서 후작의 사병들과 기사들로 일단은 교대근무를 돌리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었지만, 왕성으로 가야할 토산물은 대부분 불법 상단들의 손에 들어가는 바람에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후작은 그들을 기어코 찾아내 죄를 물어냈으며, 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본래의 영토에 귀속시키는 것까지 후작은 쉴 틈이 없었다.

원래 후작의 계획이라면 동쪽으로 가, 몇 달 머문 채, 요새의 상황과 영주를 만나 상담을 하고 시찰을 하는 것을 끝으로 라인하르트 영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던 후작은 기간을 늘려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을 그 땅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3년 동안 꾸준한 영토의 복구와 복원. 그곳의 부정부패를 모조리 척결한 후작은 그곳을 떠나기 전, 영지민들에게 부정부패를 일삼은 보좌관을 넘겨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들의 육신과 뼈를 갉아먹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이 자는 살을 찌운 돼지만도 못한 자이다. 그러니 난 이 자를 내 손으로 처형할 생각이 없다. 그대들을 그리 만든 건 돼지만도 못한 이 자의 악행이며 이리된 것도 본인의 업이니 그대들이 불을 태워 죽이던, 살을 찢어 도륙하던 그대들의 손으로 이 자를 단죄하라.」

그리고 영지를 떠나기 전인 마지막 날, 루드비카는 영지민들의 손에 잡혀 뜯기고 처 맞으며 온갖 구타를 당하는 그의 최후를 볼 수 있었다. 보좌관뿐만이 아닌 그의 꾀에 넘어가 함께 악행을 가담한 병사들과 기사들도 왕성에 수송되어 현재, 수감 100년 형과 또는 사형에 처한 자들이 꽤나 됐다. 그것이 루드비카의 지난 3년의 기억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루드비카에겐 그다지 좋은 기억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뭔데, 지금의 국왕이 무능해서 동쪽이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겠지?”

“아니, 분명 국왕이 무능하면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부정부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지.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 어쩌면 국왕도 한통속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어쩌면 후작도 알고 있을 사실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1년 전 그렇게 썩어빠진 뿌리들을 척결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다. 왕성에서 동쪽 영토로 사신을 보내던 그날. 사신과 보좌관 사이에 무언가의 거래가 있었으며 국왕은 사신에게서 무언가를 전해 듣고는 그때까지 방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국왕이 왜 여태까지 침묵을 하며 가만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후작을 보냄으로서 국왕은 무언가를 얻었으며 그것이 무언인지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 후작각하께서 동쪽으로 떠난다 하실 때, 국왕은 몇 번이고 거부했지. 그러나 다시, 세달 후에 동쪽 영토의 문제가 다시 올라오자 후작각하는 아예 동쪽으로 떠나길 결심을 굳으셨고, 국왕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지. 계속 말린다면 그건 무언가 있음을 알리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 날 이후로 몬테올 왕국은 잠잠해졌어. 늘 몬테올 왕국 때문에 상소문이 빗발친다고 후작각하께서 형님에게 말하시는 게 많아. 그런데 그 날 이후로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해졌지. 분명 뭔가 있어.”

어느새 심각한 표정으로 탐정이라도 된 것 마냥 추리를 하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로렌드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기껏 3년 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물어봤더니 혼자 추리하고 혼자 망상에 빠져 전혀 다른 얘기로 빠지는 바보 같은 벗의 모습에 로렌드는 혀를 찼다.

“결국은 뭐야, 국왕도 한통속이라는 너의 재미없는 추리와 더불어 결론은 3년 동안 네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란 거잖아. 국왕이 한통속? 넌 그저 후작께 그런 명령을 내린 국왕에 대한 불만이잖아. 내 말이 틀려? 하아, 내가 이딴 얘기나 듣자고 내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다니.”

“이봐 로렌드. 남이 기껏 어마어마한 추리력으로 대단한 이야기 좀 해줬건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자신은 굉장한 추리로 논리를 펼치며 이야기 해줬건만, 오히려 성을 내는 로렌드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얼굴을 살짝 구겼다. 그러나 로렌드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조차 없었다. 오히려 근처에 있던 서류 한 장을 들어 돌돌 말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루드비카의 머리에 새게 내리치고는 깔끔이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다.

“아파!”

“안 아픈 거 다 알아. 난 또 뭐라고 기껏 폼 잡고 한 얘기가 네 얘기가 아닌 국왕에 험담 겸 그저 그런 삼류의 추리잖아. 그렇게도 널 그곳으로 끌고 가게 만든 국왕이 싫었냐? 애초에 요점이 잘못됐어. 국왕은 후작께서 동쪽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내렸지, 정작 너를 강제로 데려간 건 후작이시잖아.”

“삼류추리든 뭐든, 그래도 지금까지 얘기는 제쳐 두고 솔직히 말하자면 국왕의 명령만 없었음 후작각하도 날 그곳으로 안 데려 갔을 거야. 난 거기서 며칠 동안 씻지를 못해 죽는 줄 알았다고.”

“네가 애냐?”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하지만 뭐.”

눈썹을 치켜뜨며 말끝을 흐린 루드비카의 모습에 로렌드 역시 조용히 팔짱을 끼며 무슨 말이 나올지 그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처연한 미소를 짓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로렌드는 끼고 있던 팔짱을 풀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똑똑히 알게 된 건 있어.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세삼 다시 깨닫게 됐거든.”

“...”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로렌드는 루드비카의 입 꼬리가 비틀리게 웃고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로렌드는 무시하고 못 본 척 했다. 아니, 그것이 무얼 의미하든 알 필요조차 없었다. 처음부터 보지 않았음을 연기하며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들어 시간을 보았다. 어느덧 루드비카와 얘기를 오래 나누고 있었는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녁시간이 다가옴을 알게 된 로렌드는 도로 주머니에 회중시계를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루드비카에게 오늘 저녁의 식사 초대를 전했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그래 기분이다. 오늘 내 저택에서 식사나 하고 가는 게 어때.”

무슨 생각인지 웬만하면 식사초대를 잘 안하는 로렌드였다. 그런데 식사초대를 하겠다는 로렌드의 파격적인 말에 루드비카는 의외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식사 초대해달라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도 안하더니…. 아무튼 식사 초대를 했으니, 말 돌리기 전에 받아들여야겠지. 좋아.”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필릭스에게 잠시 건네줄 서류들이 있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한번만 대답하면 족할 것을 꼭 저렇게 기분이 좋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로렌드는 괜히 식사초대를 한 것이 아닐까하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3년 만에 만난 벗이 아니던가.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로렌드는 필릭스에게 전해줄 서류를 찾고자 접객실에서 나가버렸다.

로렌드 보다 먼저 접객실 밖으로 나와 있던 루드비카는 콧노래를 작게 흥얼거리며 필릭스에게 기분 좋은 인사까지 한 채로 상단 밖에 나와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한 없이 기품 없어 보이는 방정스러운 모습이지만, 워낙 외모자체가 눈에 띄다보니 멀리서만 보아도 일반 여성들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한참 동안 로렌드를 기다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루드비카는 우연히도 시선이 꽃 가게 근처를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루드비카의 시선에 잡힌 한 여인. 이상하게도 루드비카는 로브를 뒤집어쓰고 있는 한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금방 지나가듯 잊어질 사람. 루드비카는 콧노래를 멈추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고개를 미처 돌리기도 전에 웬 꼬마와 여인이 부딪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여인의 로브가 벗겨지자, 루드비카는 그곳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아니, 발하나 손끝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환영식에서 볼 수 없었던 여인이자, 자신의 귀걸이를 찾아준 이름 모를 여인.

그녀가 지금 이 곳에 있었다.

헤르세인은 눈앞에 펼쳐진 수도의 모습에 한동안 넋을 잃은 채로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 마차를 타고 왕성으로 들어가던 그때는 창문이 작은 것도 있었지만, 마음껏 창밖을 볼 여유가 없어 수도가 어떤 모습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왕성이 아닌 또 다른 세상 밖으로 나온 헤르세인에게 있어, 지금 눈에 담기는 모든 풍경들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붉은 벽돌들이 인상적일 만큼 화려한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의 모습.

건물이 낡아 벽이 헐어져 겨울만 되면 찬바람이 들어오는 슬럼가와는 전혀 달랐다. 낡은 건물 하나 없이, 아니 낡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보존을 잘하는지 세월이 담긴 그 멋이 헤르세인의 눈에는 멋지게 보였다. 그러다 꺄르르 웃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거리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공놀이를 하는지 때가 탄 노란 공을 들고서 아이들은 분수대 근처에서 던지고 주고받으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헤르세인은 시야를 넓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을 모두 눈에 담아냈다. 적당한 속도로 바퀴를 굴리며 마찻길에 움직이는 마차들. 또, 다양한 옷을 입으며 거리를 평범히 걷는 사람들. 제각각의 다른 얼굴과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헤르세인은 그들이 이 평범한 속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아무도 자신이 슬럼가의 출신인지도 이름뿐인 왕녀인지조차 모를 헤르세인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이 그 ‘평범함’속에 함께 묻어 있었다.

언젠가는 한번쯤 바랐던 꿈이자 이룰 수 없었던 평범함이란 단어. 어릴 때는 작게나마 그 평범함을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슬럼가란 현실에 살다보니 그 평범함은 자신에게 있어 사치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것은 쓸데없는 헛된 꿈이란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평범함을 버리고 도둑질을 일삼는 무리에 들어가 모든 일을 받아들이며 헤르세인은 어둠속에 살았다. 그러나 이곳은 그 어둠과는 다르게 태양도 있고 심지 달과 새벽의 아침까지 있는 빛이 있는 곳. 어쩌면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일지도 몰랐다.

‘만약 내가 슬럼가가 아닌 이런 곳에 버려졌다면, 이런 곳에서 자라났다면 나는 그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살지 않았을 수 있을까.’

왕비가 슬럼가가 아닌 이곳 수도에 버렸다면, 아니 어느 작은 시골마을에 버렸다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싶었다. 물론, 처음엔 전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왕비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가 그렇게 버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자신을 죽이기라도 했다면 그렇게 이 악물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지독한 저주 같은 운명이 아닐까 싶었다. 결국 왕비가 버림으로서 자신이 슬럼가에서 살게 된 건 운명이었으니까. 헤르세인은 멍하니 걷다 문득 주변 노점상의 중년의 여인이 한 아이에게 인자한 미소를 보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다.

“아주머니! 이거 과일사탕은 얼마에요?”

“딸기는 2린, 사과는 1린 이란다. 우리 꼬마 숙녀께서는 뭐가 먹고 싶을까나?”

“헤헤, 딸기요! 딸기 주세요! 여기 2린 있어요!”

헤르세인은 길거리 상가에서 과일사탕을 사려 계산하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꼬마 여자 아이는 코 묻은 동전을 꺼내들며 여인에게 건넸다. 그리고 꼬마 여자 아이에게서 동전을 받은 여인은 아이가 원하는 딸기사탕을 건네는 동시에 3개의 동전을 건네주는 것도 있지 않았다.

“자자, 꼬마 숙녀께서 원하는 딸기 여기 있단다. 그리고 이건 2린이 아니라 5린짜리 란다. 나중에 계산할 때 꼭 잘 생각하고 돈을 내야 한다? 알았지?”

“네! 아주머니! 딸기사탕 잘 먹을게요!”

아이가 아직 숫자에 약한지 잘못계산 했음에도 여인은 정확히 계산해주는 것은 물론 아이가 예뻐서인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까지 잊지 않았다. 그 모습이 헤르세인에게 있어 생소하고도 놀라운 모습이라 한동안 제 자리에 멈춰 그녀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 해맑은 미소로 딸기사탕을 단숨에 먹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헤르세인은 그 모습에 과거의 자신을 겹쳐 보았다.

무리에 들어가 도둑질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훔쳤던 돈. 그리고 빵 한 조각이 절실했던 그녀는 슬럼가를 지나는 상인들이 가끔 들려 가볍게 식사를 때우고자 만들어진 빵 가게를 찾아갔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돈이 있음에도 당연히 빵을 줄 것이라 생각한 어린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던 빵가게 주인은 빗자루를 휘둘렀다.

「나가! 너 같은 거지한테 줄 빵 따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저 돈 있어요! 아저씨, 저 빵 살 돈 있다고요!」

어린 그녀는 동전을 들고서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가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이미 꿰고 있는지 더욱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바깥으로 몰아냈다.

「빠앙? 웃기고 있네. 보나마나 어디 훔쳐서 생긴 더러운 돈이겠지! 우린 너희 같은 애들한테 팔 물건도 아니고 이건 어른들이 먹을 음식이다! 감히 어디서 그딴 더러운 손으로 빵을 사먹으려 들어?! 노예상인에게 널 팔아넘기기 전에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결국 그날, 헤르세인은 빵 한 조각조차 사먹을 수 없었다. 비록 도둑질을 하여 훔친 돈이었으나 가게의 주인 말처럼 더러운 손이여서 일까. 돈이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빵 한 조각조차 끝내 먹을 수 없었다. 어디를 가든 헤르세인 그녀를 포함해 슬럼가에 있는 또래들은 늘 좋은 취급을 받을 수 없었다. 마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벌레 취급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 그러나 그곳과는 달리, 이곳은 전혀 딴 세상 같았다.

헤르세인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으며 조심스럽게 안쪽을 뒤져 보았다. 그리고 손을 꺼내보았다. 역시,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의 손에는 그저 잡히지 않은 먼지가 전부였다. 동전 한 푼조차 없는 이름뿐인 왕녀. 여전히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헤르세인은 약간의 씁쓸함을 느끼며 다시 조용히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광장을 지나 한참동안이나 걷던 헤르세인은 바로 눈앞에서 부딪칠 정도로 힘차게 뛰어오는 한 꼬마아이로 인해 강하게 부딪치고 말았다. 덕분에 반동으로 머리에 쓰고 있던 로브가 벗겨지자 로브 속에 그 눈부심을 어느 정도 가려주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 후드가 벗겨져 헤르세인은 도로 머리에 씌우려던 찰나, 어디선가 꽃의 향기가 가까운 곳에 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향기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알록달록한 화려한 색을 띄우는 다양한 이름 모를 꽃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주위로 꽃향기가 은은히 퍼져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곳을 지나가는 모습들. 자신의 손에 살짝만 쥐어도 부러질 정도의 아름답고 여린 꽃들이 수북했다.

어떤 꽃은 짙은 향기와 새빨간 색을 지녔으며 매혹적인 모습으로 유혹을 했고, 어떤 꽃은 햇살과도 닮은 노란 빛을 띄우며 작은 귀여움을 보여주었다. 또 어떤 꽃은 은은한 푸른색을 띄우며 활력 있어 보이는 생기를 띄우며 제각각 다양한 모습을 비추자 그 화려함에 이끌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새 꽃 가게의 앞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 꽃에 물을 주기 위해 물뿌리개를 들고서 가게 밖으로 나온 젊은 점주가 헤르세인을 발견했는지 빙그레 미소를 보이며 환영했다.

“어머, 꽃 사시게요? 어떤 꽃이 마음에 드세요? 천천히 골라보세요.”

“...”

단단히 그녀를 손님으로 착각했는지 꽃가게의 점주는 꽃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물을 뿌리며 그녀가 꽃을 고르길 기다렸다. 반면 헤르세인은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녀의 눈웃음과 미소를 보고 있자면 마치, 어서 꽃을 사라고 하는 것 같아 안사기도 뭐했다. 하지만 사고 싶다고 한들 애초에 꽃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돈이었다.

지금 헤르세인의 수중에는 동전 한 푼도 없는 것은 물론, 평소라면 그냥 무시해도 될법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그냥 넘어갔는지 머릿속이 점점 새하얘지고 있었다. 그러다 바로 오른편에서 들린 부드러운 중저음 목소리가 들린 순간, 헤르세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이 꽃은 어떤 꽃이죠? 생각보다 향이 진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군요.”

장미보다 더 새빨간 머리색을 지닌 한 사내의 등장으로 아주 잠시 동안, 점주는 사내의 외모에 홀리듯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정신을 잠깐 놓아버렸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얼른 좌우로 도리질을 하며 사내가 들고 있는 꽃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아, 그 꽃은 튤립이에요. 원래 튤립은 대체로 붉은 색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노란 종도 있고 여러 색이 많거든요.”

헤르세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려던 중저음의 목소리. 하지만 또렷이 기억나는 사내의 모습.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 입었던 옷과 머리 스타일이 달랐다. 푸른 리본을 길게 늘어트려 붉은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모습과 파스텔 톤의 하늘빛 코트를 걸친 것은 물론, 나비를 연상케 하듯 큰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는 하얀 크라바트. 그리고 마치 석양을 박아 놓은 듯한 호박 빛의 눈동자는 따뜻하게 들고 있는 한 송이의 튤립을 보며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잠시 동안 멍한 눈으로 헤르세인은 사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나 줄곧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헤르세인과는 달리, 루드비카는 생긋 웃더니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분명 헤르세인과 눈을 마주쳤었다. 그리곤 그 시선을 먼저 돌린 건 루드비카 쪽. 여전히 자신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녀의 시선을 알면서도 루드비카는 태연하게 모른 척하며 노란 튤립을 제자리에 내려놓고는 다른 꽃을 지목하며 물었다.

“그럼, 이 꽃의 이름은 뭐죠?”

부드럽게 입 꼬리를 말아 올리며 루드비카가 지목한 푸른 꽃. 헤르세인과는 달리, 그의 외모에 넋이 나가 있던 점주는 다시금 정신을 붙잡으며 얼른 설명을 했다.

“아, 아! 그 꽃은 물망초라는 이름을 가진 꽃 이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작고 여린 꽃답지 않게 꽃말은 애절하다 할까요. 대체로 이 꽃은 많은 남성들이 여인에게 특별한 날 선물해주는 꽃이기도 하죠.”

“흐음, 특별한 날이라…. 그럼 물망초는 무슨 꽃말 인가요?”

보통 이 꽃은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쩌다 예외가 있는 법. 꽃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순간들은 대부분 전쟁이나 절실하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받치고자 하는 꽃이니 말이다. 점주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물망초 꽃을 사간 수많은 남성들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또는 「진실 된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거의 앞의 꽃말을 많이 생각해서 사가는 분들이 많죠. 참 애절한 꽃말이죠? 물론 어떤 식으로 꽃을 주냐에 따라 그 꽃말의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물망초를 사가 시는 분들은 전쟁으로 인해 강제 징집되어 연인에게 선물해주고자 물망초 꽃다발을 사들고 가시는 분들이 한때는 많았죠. 물론, 여기까지는 제가 할머님께 들은 이야기지만요. 저희 같은 평민 사람은 고가의 물품을 줘서 의미를 두거나 할 수 없으니 그나마 싼값에 살 수 있는 꽃에 의미를 많이 두니까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인가. 예쁘면서도 구슬픈 꽃말이군요.”

루드비카의 시선이 푸른 물망초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 흘긋 눈동자를 움직여 자신을 여전히 쳐다보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자, 덕분에 큰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 루드비카는 굽히고 있던 허리를 곧게 피며 물망초를 가리켰다.

“이 꽃, 예쁘게 포장 부탁드리죠.”

“무, 물망초 말인가요? 하지만 물망초 말고도 예쁜 꽃이 많은데요?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점주는 저도 모르게 더듬으며 되물었다. 그처럼 빼닮은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럼에도 그는 물망초를 골랐다. 그런 점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루드비카는 물망초를 택했다. 그의 취향을 말하자면 단연 화려한 붉은 장미 쪽을 택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유독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오는 꽃 이여서일까. 루드비카는 확고했다.

“물망초로 부탁드리죠.”

“아… 예에…. 그,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점주는 당연 그 아름다운 사내가 그 미모만큼이나 화려한 꽃을 고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단호하게 물망초를 고르는 모습에 의아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찌됐든 꽃을 사주는 손님이 아니던가. 아름다운 손님덕분에 외모도 보고 돈도 벌었다 생각하며 기분 좋은 걸음으로 물망초 꽃을 한 아름 들고서 점주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점주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동안 옆에 있는 그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루드비카는 또 다른 고민이 됐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고민과는 다르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헤르세인은 한발자국씩 뒷걸음치며 얼른 움직이려 했다.

“잠시만―”

탁―!

손과 손이 부딪치는 소리가 조용히 주변 소음으로 금방 사라졌다. 헤르세인은 혼란스러운지 눈동자가 파동을 일으키듯 잠시 동안 크게 흔들리다, 이내 자신의 손과 허공을 맴돌고 있는 그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이번에는 그때처럼 손이 붙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붙잡히지 않은 것이 놀라 잠시 동안 자신의 빈 손목을 보았다. 조심스럽게 눈동자를 움직여 헤르세인은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있는 그의 손을 볼 수 있었다.

“아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부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좀 서운하네요.”

서운하다는 말투치고 그는 입 꼬리를 말아 올리며, 오히려 이 상황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불편해. 불편한 남자야.’

오늘로서 두 번째 만남. 두 번째이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자꾸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 생각했다. 헤르세인은 그가 무슨 말을 하던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때처럼 또 이름을 묻기라도 한다면 큰일 날 것 같아 무시하고 이제 막 뒤를 돌려했다.

“어이, 루드비카. 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아, 로렌드.”

눈 깜짝할 사이, 쳐낼 반응조차 없이 헤르세인은 그에게 다시 손목을 붙잡히고 말았다. 만약 그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를 부른 낮선 사내도 자신을 향해 시선을 주는 일 따윈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드럽게 잡고 있음에도 도무지 놓을 생각 없는 그의 행동에 헤르세인은 그의 손목을 물어 도망칠까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생각을 모른 채, 루드비카는 진하게 미소를 짓더니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두 발자국 걸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도록 그녀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서 로렌드에게 빙긋 웃었다.

“뭐야, 아는 사람이야?”

로렌드의 질문에 그 순간,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의 시선이 아주잠깐 맞물렸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시선을 떼기도 전에 여전히 헤르세인의 눈을 마주하고 있는 루드비카는 그대로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

“그게 무슨….”

로렌드는 낮선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봤다. 반면 상대는 오히려 놀랐는지 커진 눈동자로 루드비카를 보는 모습에 무언가 있음을 눈치 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뜬금없이 근처 꽃 가게에 있어 설마 꽃다발이라도 사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꽃다발은커녕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곤 여인을 놔주지 않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로렌드는 가만히 눈을 좁히며 물었다.

“설마, 그 사람을 내 저택까지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로렌드의 말에 루드비카는 상쾌하게 웃더니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루드비카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함께 식사하는 게 어때?”

“너―! 후우…. 네 마음대로 해.”

로렌드는 잠시 입을 벙긋하다가, 귀찮은지 대충 대답하고는 먼저 상단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마차 쪽으로 움직였다. 반대로 두 사람의 이야기들은 헤르세인은 그것도 제 멋대로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그의 행동에 얼른 그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무슨 힘이 그리도 강한지 헤르세인은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 헤르세인은 그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뱉어냈다.

“누구 마음대로 당신의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는지 루드비카는 오히려 커진 눈을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아는 사이 아니었나요? 벌써 두 번째 만났으니 당연히 아는 사이이죠.”

기가 막혔다. 두 번 만났으니 아는 사이라니. 거기다 헤르세인은 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지만 엄연히 그는 낮선 남자였고 알고 있는 단계조차 아니었다. 그런데 아는 사이? 헤르세인은 ‘웃기지 마!’ 라고 외치던 찰나 루드비카가 먼저 선두를 빼앗았다.

“자, 그럼 우리 이동할까요? 아, 물론 제 마차로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루드비카가 슬쩍 고개를 틀어 시선을 꽃 가게로 향했다. 때마침 점주 나오는지 잘 포장한 꽃다발을 들고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루드비카는 점주와 계산을 마치고서 꽃다발을 받을 수 있었다. 물망초가 한 아름 예쁘게 포장된 푸른 꽃다발이었다. 한껏 꽃다발의 향기를 듬뿍 마신 루드비카는 진하게 미소를 짓고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녀의 손에 살짝 힘을 주며 싱그럽게 대답했다.

“그럼, 갈까요?”

작게 흔들리는 마차의 외부와는 다르게 마차의 안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로렌드가 타고 있는 마차가 선두로 달리며 그 뒤를 따르는 평범한 마차가 달리고 있었다. 마차 안에는 두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지만, 헤르세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고 루드비카의 시선은 부담스러울 만큼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슬슬 입에 가시가 돋았는지 그 정적을 먼저 깬 것은 루드비카였다.

“실례지만, 어느 가문의 분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

고상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것은 물론, 부담스러울 만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의 시선을 헤르세인은 느꼈다. 거기다 짜증나게도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한 번도 입 꼬리를 내린 적이 없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혹시 광대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종일 웃고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헤르세인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에겐 자신이 누구인지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 대답하면 저 남자는 어떤 반응을 할까.’

솔직하게 헤르세인이란 이름을 가진 이름뿐인 왕녀라 말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할까. 경멸할지, 비난할지, 조롱할지 어느 쪽이 되었건 그는 자신을 좋게 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모든 귀족들이 그랬고, 그도 귀족인 이상 똑같으니까.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저리 웃고 있다지만 알게 된 순간, 그의 미소가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어느 정도 두려움은 있었다. 결국 헤르세인은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설마, 말을 못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처음 만났을 땐, 당신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었는데 말이죠. 물론 아까 꽃 가게 앞에서도 잠깐 들었지만…. 하지만 계속 입을 다무시는 걸 보아하니 혹 제가 싫으신 건가요? 아님 불편? 흐음, 결국 둘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어찌됐든 당신은 제 존재가 불편하건 틀림없네요. 그렇죠?”

의외로 눈치가 좋다고 해야 할지, 헤르세인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어찌 보면 남들 눈엔 입 한번 열지 않는 까다롭고도 고귀한척 하는 여자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도 지금 눈앞에선 저렇게 미소를 보이며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자신을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인지 상대방은 ‘아! 알겠다.’라고 혼잣말을 뱉어내더니 더욱 진한 미소를 보이며 헤르세인에게 물었다.

“혹시, 부끄러움을 타시는 건? 하하하. 하긴, 제가 워낙 한 미모해서 부끄러움을 타시는 건 당연합니다.”

“...”

이런 걸 나르시시즘이라 하던가?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할 지경이었다. 순간이지만 헤르세인은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워낙 어이가 없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잠깐 고민을 했다. 하지만 그 짧은 고민을 걷어 버리곤 헤르세인은 생긋 웃고 있는 그의 면상을 보다가 천천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쭉, 그의 모습을 눈동자를 움직여 훑었다. 드레스차림과 여성용 속옷, 그리고 화장까지 한다면 완벽한 여장이 따로 없었다. 아니, 여장이라기 보단 그렇게 입어도 위화감이 들지 않을 만큼 그는 어떤 모습을 해도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다.

그보다 이런 남자가 어째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건지 더 신기할 따름이었다. 혹시 남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은 이상 남장은 이미 머릿속에서 없어진 단어나 다름없었다. 헤르세인은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옅은 한숨을 쉬며 내리깔고 있던 시선을 중앙으로 옮기자, 그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그의 잘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너무 잘난 외모를 가져서 한숨을 내쉰 건 아니지요?”

이 남자는 정도란 것을 모르는 걸까. 헤르세인은 결국 미간을 좁히고서 맹렬히 비난했다.

“그만해. 당신, 어지간히 뻔뻔하네.”

“아, 드디어 목소리 들려주셨네요.”

“...”

설마 이런 걸 노리고 있었나? 어쩐지 그가 바라는 대로 된 것 같아 기분이 영 찝찝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을 이끈 것과 목소리를 들어서 더욱 즐거운지 루드비카는 서로 엇갈려 있던 팔짱을 풀어 이내 처음 듣는 정중한 목소리로 본인을 소개했다.

“그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인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또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인하르트….”

헤르세인은 어디선가 들어본 가문의 이름 같아 곰곰이 생각했다.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그 순간,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헤르세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라인하르트 후작을 위해 국왕이 직접 주최한 환영식. 그리고 눈앞에 있는 남자는 라인하르트 후작의 차남이었다. 옷 상태를 보나 외모를 보나 보통 귀족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일 줄이야. 거기다 헤르세인은 그에게 평범히 반말을 해버린 상태였다. 그것도 후작가의 공자에게 말이다.

‘혹시 내가 반말했다고 후작에게 일러 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 모습을 상상하자, 왠지 그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헤르세인은 평생 눈에 띄지 않도록 궁에 처박혀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래, 오늘은 우연치 않게 만났다 치더라도 더 이상 만날 일은 없겠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 헤르세인은 다시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확실히 후작 가문의 자제답게 잘난 외모를 가진 사내였다. 비록 처음엔 여인으로 착각하긴 했지만 그는 누가 봐도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이라고 얼굴에 쓰여 있을 만큼 기품이 넘치고 고귀해 보였다. 자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자 태생부터 다른 사람. 막상 그 생각을 하니 속에서 쓴물이 올라옴을 느끼며 헤르세인은 그것을 억눌렀다.

높은 작위를 가진 귀족일수록 안면을 트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하는 것이 상책. 그가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만남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인물은 아닐 것 같았다. 물론, 자신의 이름을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에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왕성으로 돌아갈 때까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자 생각한 헤르세인은 이내 마주보고 있던 시선을 거두어 창밖의 풍경으로 향했다. 그러자, 어째서인지 아쉬운 듯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물어보실 건 없습니까? 전 이래 뵈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만. 혹, 저의 가문에 대한 궁금하신 거는 없나요? 아님, 저의 형님에 대한 거나, 저 이거나.”

“없어. 아무것도.”

정말로 그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그가 어떤 가문이건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자신이 그걸 알아서 어쩌란 말인가. 성격상 타인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왕비를 향한 복수를 빼곤 헤르세인에겐 그 무엇의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오히려 그것이 불만인지 어느새 다시 팔짱을 끼고서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흐음, 곤란하네요. 보통 다른 분들이라면 가문의 이름을 듣자마자 질문 공세를 펼치던데. 아, 저에 관한 질문도 무척 많아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문도?”

참, 이상한 면으로 끈질긴 사내였다. 보통 관심 없다고 말하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설마 관심종자 인가? 헤르세인은 목 끝까지 나오려던 그 말들을 도로 삼켜내며 이내 눈을 감아 버렸다. 그러나 대뜸 나온 루드비카의 그 한 마디에 헤르세인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떠버리고 말았다.

“저는 당신이 무척 궁금하네요. 어느 가문의 사람일지, 이름이 무엇일지. 당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헤르세인은 자신도 모르게 뻥긋하려던 입술을 빠르게 억눌렀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성격의 남자도 처음이었다. 살짝 눈동자를 돌려 흘긋 보니, 잔잔히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호기심이 충만한지 그토록 물어봤음에도 끝내 침묵하는 자신을 보며 더는 묻지 않는 모습. 그는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그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물론, 은근슬쩍 말을 유도하려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것만 빼면 그는 그 선을 지키는 것 같기도 했다.

‘저 남자에게 말해도 괜찮을까.’

만약, 헤르세인이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었다면, 어쩌면 솔직하게 말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은 진짜 이름이 없었다. 설령 헤르세인이란 이름이 진짜 일지라도 이름뿐인 왕녀란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일 뿐. 헤르세인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머릿속에서 기억한 그의 이름을 떠올렸다. 「루드비카」 눈앞의 있는 그의 이름이자 분명 태어나자마자 한껏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불려 졌을 그의 이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움직여 보았다. ‘루드비카’ 입이 모아지고 혀가 살짝 이에 닿다가 좋은 음색으로 퍼지는 아름다운 이름. 헤르세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에 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작은 씁쓸함과 질투도 담겨 있었다.

“루드비카, 아름다운 이름….”

“…예? 지금 뭐라고….”

그 작은 중얼거림을 혹시 들었을까. 서둘러 묻는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지금 자신이 무슨 헛소리를 한 걸까.

“…아니. 아무것도.”

“흐음… 그렇군요.”

서둘러 부정하며 어느새 무표정으로 돌아와 다시 창밖을 보고 있는 헤르세인과는 달리, 루드비카는 똑똑히 그 중얼거림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분명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며 뱉어내던 옅은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부러움. 어째서 그녀가 부러움을 느끼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름답다고 작게 속삭인 그 말을 듣는 순간, 루드비카는 심장의 작은 떨림을 느꼈다.

모여드는 화려한 귀족 가문의 여인들.

드레스며 장신구며 스스로를 화려하게 가꾸고 그것을 무기 삼아 남심을 얻으려는 여인들이 루드비카는 싫지 않았다. 또한 그녀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자신을 대하며 어떤 목적으로 다가오는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 제 아무리 형보다 잘난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루드비카는 결국 차남에 불과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형인 클로드와 가까워지려는 그녀들의 목적을 알면서도 루드비카는 상냥하게 속삭이며 때론 그녀들을 유혹했다. 어차피, 자신을 향한 그 시선들이 외모뿐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머, 라인하르트 공자님은 오늘도 멋지시군요.」

「어떻게 하면 공자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공자님, 오늘은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자님.

라인하르트 공자님.

공자님, 공자님, 공자님.

꺄르르 웃으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던 수많은 여인들. 반면, 뒤에서 시기하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대부분이 귀족가의 공자들이었지만 말이다.

「도대체 공녀들은 저 계집 같은 사내놈이 뭐가 좋다고 붙어있는 건지.」

「저 놈만 보면 사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니까?」

「사내놈이 맡긴 한 거야? 얼굴만 계집처럼 번지르르 해선…. 사내구실은 하나 몰라.」

「저런 놈이 남창을 끼고 산다니까? 계집보다 사내를 좋아할지도 몰라.」

「어쩌다 라인하르트 가문에선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 태어났는지. 후작각하께서도 고생이 많겠어.」

방탕하기 짝이 없는 놈, 사내인 척 하는 계집. 사내구실 못하는 차남 등등. 뒤에서 욕질 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루드비카는 수 없이 들었지만 못들은 척 했다. 그리고 오히려 보란 듯이 여인들을 유혹하거나 더욱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며 그들 앞에 섰다. 루드비카는 사교모임이 좋았다. 특히나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하고 나타난 공녀들이. 하지만 그 화려함을 보아도 자신을 아무리 화려하게 가꿔도 갈증이 났다. 모두가 자신을 봐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럴수록 미치도록 목이 타는 갈증. 그리고 어느 순간 알았다. 그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외모가 아닌, 온전히 자신을 봐주길 원하는 눈동자.’

하지만 알고 있었다. 온전히 자신만을 봐주는 그 눈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직까지 루드비카는 얼마 전에 알베르셋 공녀가 말하던 그 ‘사랑’이란 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도 없었다.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모르며 여인들은 대부분 끝내 자신의 외모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전부였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본심을 알기에 루드비카는 아무리 그것이 갈증이 나도 거의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직도 이름조차 모르는 눈앞의 그녀에게서 루드비카는 외모가 아닌 다른 말을 듣게 되었다. ‘루드비카’란 이름이 아름답다고 중얼거리던 그 작은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진심으로 나온 말임을 그는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 목소리와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아이처럼 순수해보여 멍하니 시선을 떼지 못하던 루드비카는 마차의 작은 흔들림에 정신 차릴 수 있었다.

“이런,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군요. 자, 그럼 내리실까요?”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온 루드비카는 진하게 웃으며 그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마차 문을 열고 나오자 그의 눈앞에는 오랜만에 와보는 로렌드의 저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로렌드는 저택으로 들어갔는지 시종과 하녀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리고 다시 문이 열린 마차 안으로 부드럽게 뻗은 손을 내밀며 루드비카는 그녀의 손을 기다렸다.

“자, 제 손을 잡으시길. 아가씨.”

“…아가씨?”

헤르세인의 떨떠름한 표정을 봤는지 루드비카는 픽 웃으며 살짝 고개를 기울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니 아가씨라 부를 수밖에요. 그리고 가장 평범하면서도 무난한 호칭입니다만.”

“...”

루드비카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었다. 헤르세인은 문득 그가 자신을 ‘야’라고 부른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으나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싫어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문 밖에서 기다려 자신에게 손을 내민 루드비카의 손을 보았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손. 그러나 헤르세인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남의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까. 혼자서도 가볍게 내려갈 수 있는 마차의 높이였고, 에스코트를 바라지도 않았다. 루드비카의 손을 무시하며 헤르세인은 마차에서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순식간에 그녀의 허리는 루드비카의 두 손에 잡혀 두 다리가 공중에 떠 버렸다.

“무, 무슨―!”

처음으로 당황한 그녀의 얼굴을 봤는지 루드비카는 더욱 진하게 웃고는 대답했다.

“제 손을 거부한 벌입니다.”

순식간에 두 다리가 공중에 잠깐 떠 있었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어느새 바닥에 착지해 땅을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다시 자신의 앞으로 내민 루드비카의 손이 보였다. 결국, 헤르세인은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루드비카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모습에 루드비카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 손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어느새 루드비카가 이끄는 대로 헤르세인은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때처럼 그의 손에는 하얀 고급소재의 면장갑이 껴져 있어 손의 감촉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그가 잡은 손이 묘하게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손을 거두려 했다. 그러나 그걸 알아챘는지 루드비카는 그녀를 잡은 손에 약간의 힘을 주곤 놓지 않았다. 저택에 발을 디딜 때 까지.

헤르세인은 긴 테이블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테이블 한 가운데는 장식으로 해놨는지 금장식의 촛대와 하얀 양초 위로 붉은 촛불이 살랑 거리듯 살짝 일렁이고 있었다. 시선을 살짝 내리니 그 밑으로는 먹을 수 있을지 의심되는 여러 가지 과일이 촛대를 중심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과일을 먹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헤르세인은 가짜 과일일거라 생각했다.

테이블에서 시선을 때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다. 순식간에 날이 어두워져서 인지 지금 그녀가 있는 장소에는 중간 크기의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공하여 장식되어 있는 샹들리에만큼이나 주변 곳곳에는 비싼 장식품들이 나열 되어 있어, 루드비카 만큼이나 이 저택의 주인도 한 재력 하는 사람일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가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가.’

헤르세인은 식당의 반을 차지한 창가의 밖을 보았다. 날이 저물고 있는지 하늘은 어스름이 해가 지고 있었다. 아마 식사까지 모두 마친다면 해가 완전히 질 것 같았다. 처음에는 보고 싶은 풍경들이 많아 후회보단 한 눈에 담아내고 싶은 욕심뿐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회가 들기도 했다.

‘혹시 하녀들이 저녁식사 거리를 안에 들여놓지는 않았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미치자 불안감이 들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으며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녀들은 침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원채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다 보니 하녀들은 아침 식사든 점심 식사든 은쟁반 위로 간단한 식사거리를 들고서 침실의 문 앞에 두곤 했다. 그 점은 헤르세인도 편해 별다른 말은 안했지만, 처음 왕성 바깥으로 나와서인지 약간의 불안함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자신의 두 다리는 다른 장소의 땅을 밝고 있었다. 나름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던 도중, 다른 목소리가 그녀의 정신을 깨어냈다.

“그럼 자리에 앉지, 그쪽 분도.”

설마, 진짜로 앉으라는 건가? 헤르세인은 물고기처럼 입을 벙긋하며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어색하게 망설이는 모습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루드비카가 손수 나섰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의자를 끌어 줄 테니 조심히 앉으시길.”

루드비카의 손에 이끌려 헤르세인은 로렌드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다. 만약 테이블이 짧았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다행이도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이었다. 그걸 다행을 생각하며 헤르세인은 어색히 자리에 착석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앉는 게 좋을까나. 로렌드의 옆?”

루드비카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사뿐한 걸음걸이로 로렌드쪽으로 가려하자, 앉아서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로렌드는 단칼에 저지했다.

“오기만 해, 나이프로 네 놈의 낮 짝은 오늘로서 끝이니까.”

“은근히 로렌드는 내 미모에 시기한다니까. 할 수 없지. 아가씨의 옆에 앉을 수밖에.”

로렌드가 정말로 위협을 가하듯 살짝 나이프를 쥐고 협박을 하자, 루드비카는 약간 아쉬움이 담긴 새침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바로 헤르세인이 앉아있는 근처로 다가간 루드비카는 의자를 옮겨 그녀가 앉아 있는 모퉁이 쪽의 근처에 앉았다. 로렌드는 그런 루드비카를 보며 나름 풀어진 표정으로 물을 마셨지만, 반면 루드비카와 가장 가까이 앉은 헤르세인은 어느새 꽃받침을 하고서 생글 생글 웃고 있는 그를 보고 있자니 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체하지 않기만을 빌자.’

그런 걱정을 품고서 헤르세인은 본격적으로 하녀들이 가져다주는 요리들을 볼 수 있었다. 제일 먼저 나온 첫 요리는 크림스튜인지 뽀얀 국물과 안에 들어있는 야채와 고기들이 먹음직스럽게 접시에 담겨 있었다. 왕성에 있을 때는 늘, 간단한 야채수프와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함부로 왕성의 식당에 갈 수도 없었고, 이름뿐인 왕녀이다 보니 원래부터 왕실 사람이었던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식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왕실에서 받는 간단한 식사일지라도 만족했다. 슬럼가에서 살았던 때는 수프조차 먹을 수 없는 굶주린 환경이었으니까. 헤르세인은 처음 먹게 될 스튜에 호기심을 가지며 이제 막 은수저를 들었다.

“잠깐, 아가씨. 냅킨을.”

“아….”

저도 모르게 처음 보는 요리가 있다 보니 냅킨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헤르세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하얀 천을 들어 조심스럽게 펼치고는 무릎 위로 덮어두었다. 예법 수업 때는 그렇게 많이 복습을 했는데 정작 자신의 궁전에서 식사를 할 때면 냅킨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늘 혼자 먹고, 냅킨을 하지 않아도 될 간단한 요리밖에 없었으니까. 그녀는 이제 된 건가 싶어 슬쩍 루드비카를 보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제 먹어도 되겠지.’

헤르세인은 은수저를 다시 들어 작게 스튜 한 수저를 떴다. 그리고 스튜의 국물을 단숨에 마셨다. 진하면서도 야채에서 우러난 담백함. 스튜란 것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란 걸 처음 알게 된 헤르세인은 동그랗게 커진 눈을 하며 잠시 동안 스튜를 빤히 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차분히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던 루드비카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서 오히려 뿌듯한 느낌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첫 요리가 크림스튜를 시작으로 지문하나 없는 새하얀 접시위로 마치 아름답게 무언가를 장식하듯 화려한 요리들은 계속 나왔다. 또, 그런 요리들은 처음 먹어보기에 헤르세인은 서둘러 먹기 보단 근처에 있는 루드비카가 어떤 식으로 먹는지 조용히 살펴본 다음 그를 따라 포크나 나이프를 들어 식사를 했다.

“메인요리입니다.”

하녀가 메인요리임을 알려주며 그녀의 앞으로 미디움 레어로 잘 구워진 스테이크가 보기 좋은 각도로 접시에 놓여 있었다. 처음 스테이크를 썰어볼 생각에 약간 들뜬 마음으로 헤르세인은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 막 스테이크를 자르려던 찰나, 헤르세인은 동작을 멈췄다. 한 번도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기에 어떤 식으로 썰어 먹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반으로 잘라서 한 입에 먹는 건가? 아님 그냥 한입에 먹는 건가?’

구멍이 뚫려질 만큼 헤르세인은 스테이크를 쳐다보았다. 한 입으로 먹기에는 스테이크의 크기는 꽤나 컸고, 반으로 잘라 그걸 다시 한입에 먹기에는 역시나 무리였다. 만약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궁전이나 슬럼가였더라면 헤르세인은 포크로 한 번에 찍어 먹거나 아님, 손으로 들어 뜯어 먹거나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곳은 낮선 공간이었고, 거기에 익숙한 자세로 품격 있게 요리를 먹는 두 남자가 있었다.

결국, 아무렇게나 한 입에 넣기 편한 크기로 막무가내로 자르자 생각한 헤르세인은 다시금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 전투태세를 취하려던 찰나, 그녀의 옆으로 똑같은 접시가 내밀어졌다. 처음엔 뭔가 싶어 그 스테이크를 쳐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먹기 좋은 크기로 스테이크가 일정하게 썰려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 루드비카를 보니 그가 빙긋 웃고 있었다. 그 접시를 내민 건 루드비카였다.

“제 것을 드세요. 그리고 아직 썰지 않은 그 접시는 제게 주시길.”

그렇게 말하고선 헤르세인이 주기도 전에 스스로 그 접시를 들고서 자기 앞으로 가져갔다. 그 모습에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빤히 쳐다보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그는 배려심이 많다고 해야 할지, 아님 무슨 목적이 있기에 이러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의심이 아주 많았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단 한 번도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을 본적이 없었다. 왕비도 그러했다.

어느새 접시를 가져가고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며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우아하게 씹다가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시선을 마주하며 생긋 웃자 헤르세인은 그 시선을 피해 서둘러 고기 조각을 찍어 입안에 넣고 씹었다.

‘…맛있다.’

그가 썰어준 것이긴 했지만, 고기는 정말로 맛있었다.

한편, 로렌드는 고기를 음미하며 씹기 보단 무슨 맛인지도 잊어버린 채 우물우물하며 저 멀리 앉아 있는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가씨’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로렌드는 그녀가 누구인지 관심은 없었다. 다만, 루드비카의 행동이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녀에게 극진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애초에 여자에겐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오늘은 뭐랄까….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

오랜 사이이기 때문에 로렌드는 루드비카의 취향은 물론, 좋아하는 여자의 취향도 알고 있었다. 외모만큼이나 화려하게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루드비카.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을 좋아하는 루드비카. 성격까지 따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예쁜 여자는 지나치지 않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저 녀석의 취향이 아닐 텐데. 취향이 바뀔 일도 없을 테고.’

하녀가 따라준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로렌드는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짙은 남색의 머리를 단순하게 하나로 묶은 모습이며 화장기 하나조차 없는 맨얼굴. 장신구조차 없는 너무도 수수한 드레스차림. 여태까지 거래 대상으로 많은 귀족 공녀들을 봐왔지만, 확실히 그녀는 화려함도 없었고 평민처럼 수수하기만 했다.

‘그래도 입고 있는 드레스는 평민치곤 값이 꽤 되어 보이지만.’

두 모금 째. 로렌드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이제 그 관심을 끝내 버렸다.

‘괜한 생각이겠지. 상대 여자가 어떻든 저 녀석은 여자에겐 다 저러는 녀석이니까. 그만 신경 꺼야겠군.’

하얀 냅킨을 들어 로렌드는 입가를 닦고서 식사를 모두 마쳤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루드비카를 보며 물었다.

“난 다 먹었으니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려 하는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다 먹고 차라도 내줘? 아님 그냥 갈 거야?”

식사를 전부 마친 로렌드의 목소리가 루드비카의 시선을 옮기게 했다. 루드비카는 그의 말처럼 처음에는 식사를 다 끝내고나면 차를 마실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어차피 식사만 하기로 한 약속 이였으니 고개를 저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럴 때만은 칼같이 약속을 지켰다.

“어차피 식사만 하기로 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내가 차 한 잔 달해도 주지 않을 거, 다 알아. 로렌드.”

“틀린 말은 아니지. 알았어. 배웅은 안 하겠어. 조심해서 가.”

“그래, 나중에 또 상단에 들려주도록 하지.”

“아니, 안 와도 돼. 오지 마.”

루드비카는 로렌드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지만, 매정한 친구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나가 버렸다. 하지만 서운함 따위 없는 루드비카는 다시 시선을 그녀에게 돌렸다. 그녀를 보고 있자면 뭐라 해야 할까, 참 새롭고도 묘한 기분을 느꼈다. 식당에 들어와 앉은 모습이며 식사를 시작할 때며 루드비카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스튜는 흔히 먹는 요리이자 어느 요리사가 만드냐에 따라 맛은 최고급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리게 먹는 요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루드비카는 스튜에 별 감흥이 없었지만, 그녀는 달랐다.

마치 스튜란 것을 처음 먹는 아이처럼 스튜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모습. 서둘러 먹고 싶었는지 냅킨 까는 것조차 잊은 채로 은수저를 들던 그녀에게 루드비카는 상냥히 웃으며 냅킨을 가리켰다. 루드비카는 그녀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아주 살짝 당황해하던 그녀의 모습을. 서둘러 냅킨을 까는 모습까지 보며 식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녀는 요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살짝 들뜬 표정이 나왔다는 걸 본인조차 모르고 있어 보였다. 그러다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가 나오고 루드비카는 당연 그녀가 잘 칼질하며 먹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먹기는커녕 무슨 고민이 있는 건지 나이프를 들고선 그녀는 스테이크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마치, 어떻게 먹어야할지 아예 모르는 것처럼. 혹시나 하며 루드비카는 자신의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전부 썰어 낼 때까지 그녀를 흘긋 쳐다봤지만 여전히 손을 데지 않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다.

‘설마, 써는 방법을 모르는 건가? 흐음….’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었다간 스테이크는커녕 다음 요리조차 못 먹을 것 같아, 루드비카는 자신이 썰어 낸 스테이크를 그녀의 앞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 썰어내지 못한 스테이크를 대신 가져다 문득 자신의 행동에 루드비카는 칼질하려던 동작을 멈췄다.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챙겨줬던가?’

루드비카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의 어머니는 늘 여성들에게 신사답게 행동할 것을 주입시키듯 가르쳤으며, 이제는 몸에 밴 습관처럼 매너는 루드비카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모든 귀족 공녀들에겐 두루두루 부드럽게 다가가 상냥히 대했다. 물론 아름다운 여성일수록 더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 챙겨주는 것까지는 아니었다.

‘여태까지 내가 본 여인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독특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그녀를 보고 있자면 확실히 여태 만나본 여인들과는 달랐다. 평소 자신이 만난 여인들 같았다면, 먼저 다가와 통성명을 하고 담소를 나누며 우아하게 차를 나누거나 와인을 마셨을 텐데, 눈앞에 있는 그녀는 처음부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귀걸이를 찾아준 답례로 감사한 보답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으며 상대방이 누구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녀. 확실히 독특한건 틀림없었다.

‘그럼, 한번 유도해 볼까.’

모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로렌드의 저택에서 나왔다. 마차를 타기 전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산책?”

“네, 제가 광장에서 잘 알고 있는 단골가게가 많아서 그러는데, 구경 시켜드리고 싶군요. 어떤가요? 저의 제안이.”

헤르세인은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망설이며 의심했다. ‘혹시 그렇게 챙겨준 이유가 고작 산책 때문에?’ 란 의심이 한 가득 했지만, 그의 제안이 조금 솔깃한 것도 있었다. 처음으로 나온 왕성의 바깥. 이제 왕성으로 들어가면 언제 또 나올 수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눈앞의 그는 마치 악마가 속삭이듯 유혹하는 것 같았다. 아직은 돌아가지 말라고. 헤르세인은 생긋 눈웃음을 하고 있는 루드비카를 잠시 보다 이내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럼, 일단 산책을 하려면 마차를 타야겠지요?”

이미 몇 발자국 앞으로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먼저 마차위로 올라가 아까처럼 손을 내밀며 그녀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루드비카가 있었다. 헤르세인은 저 손을 또 잡아야 하나 싶었다. 알아서 올라 탈 수 있음에도 굳이 손을 내밀다니. 하지만 아까처럼 손을 잡지 않고 그냥 탄다면 또 허리를 붙잡고 그가 태울 것 같아 헤르세인은 망설인 끝에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루드비카는 더욱 진한 미소를 보이며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끌어당겼지만, 일부로 그런 것인지 헤르세인은 자신의 허리를 감싼 루드비카의 또 다른 손을 느꼈다.

덕분에 또 다시 움찔했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배려인지 그녀가 마차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루드비카의 손은 더 이상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마차의 문이 닫히면서 맞은편에 앉은 루드비카는 다리를 꼬고 앉아 창가를 두 번 두드리는 신호를 보냈다. 그 신호를 마부가 들었는지 덜컹 소리를 내며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 보던 수도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법한 풍경들이었다. 알록달록한 벽돌이며 햇빛에 따사로이 하얀 빨래를 말리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 거리에 곳곳에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여인들의 웃음소리, 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팔려는 장사치의 목소리, 아이들의 즐거움이 담긴 웃음소리 등 슬럼가에서는 보지 못할 그림 같은 광경들을 헤르세인은 보았다. 그리고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밤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붉은 석양이 저물어 어느덧 하늘은 새카만 잉크로 물들어버렸는지 태양이 있던 푸른 하늘대신 하얀 보석을 박은 밤하늘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헤르세인이 가장 놀란 것은 유독 별빛이 잘 보이는 밤하늘의 모습이 아닌, 마치 낮처럼 환한 등불을 곳곳에 밝혀 낮 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는 밤에 잠긴 수도의 모습이었다. 낮처럼 온 주변이 모두 밝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등불로 거리를 비추며 어두컴컴한 세상을 낮처럼 비추는 것이 헤르세인에겐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 보고 있는 눈앞의 풍경에 꼼짝할 수 없었다.

‘정말로 나는 다른 세상에 있는 걸까.’

등불로 거리를 밝히는 이곳과는 달리, 슬럼가는 등불조차 없는 암흑의 세상과도 같았다. 그곳은 처음부터 암흑의 세상이란 것을 말해주듯 아침도 낮에도 으스스한 유령이 나올 만큼 어두운 곳 이었다. 분명 하늘에는 태양이 떠있을 텐데 마치 태양을 어둠이 그림자로 가려버린 듯 슬럼가의 거리는 늘 어두웠다. 하지만 그곳과는 별개인 세상처럼 눈부시도록 밝은 수도의 모습.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다.

‘나도 여기서 자라났다면 저 사람들처럼 평범히 웃고 다닐 수 있었을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아니, 질문부터 잘못 되었다. 자신은 이미 태어난 그 순간부터 슬럼가에 버려질 운명이었고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것. 제 아무리 빛나는 사람이라도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둠에 물들어 빛을 잃고 말 것이다. 슬럼가가 그런 곳이니까. 멍하니 상념에 잡히듯 헤르세인의 눈동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온전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 중저음의 목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아가씨, 아가씨?”

“…아.”

헤르세인의 눈동자에서 그림자는 순식간에 도망치고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 서서히 빛을 잃던 생기가 돌아오게 되면서 그녀의 시야는 다시 또렷해졌다.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는 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루드비카의 얼굴이 보였다. 낮이 아닌 밤이 찾아오고 있는 밤이어서 일까. 그의 얼굴을 밤의 거리에서 보니 낮과는 다른 외모가 보이는 것 같았다. 거리에 은은하게 비추는 노란 불빛 때문인지, 아님 달빛이 좋아서 달라 보이는 건지, 루드비카의 얼굴은 밤이 되니 요염하게 보여 한 순간이나마 헤르세인은 또 다시 그가 여자가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래도 그가 사내라는 걸 다시 인식하니 머리도 제정신을 차리는 건지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불편한 건.”

그녀의 건조한 대답에 루드비카는 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를 잘 따라오시길. 그리고 지금부터 딴 생각은 금지입니다. 아셨죠?”

저도 모르게 뜨끔한 헤르세인은 이대로 그냥 자신이 앞장서서 가버릴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곳의 지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금방 포기하고 말았다. 어서 빨리 그가 앞장서길 바라며 헤르세인이 기다리자, 그녀의 기다림을 눈치 챈 루드비카는 사뿐히 뒤를 돌아 앞장서기 시작했다.

현재 두 사람이 위치한 곳은 왕성 뤼에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앙 광장. 그리고 젊은 남녀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는 시가지를 걸으며 주변 구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루드비카는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이곳저곳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곳은 어느 가게인지, 또 저곳은 몇 대째 내려오는 정통의 가게인지, 소녀마냥 재잘재잘 혼자 잘도 떠들며 헤르세인에게 전부 알려주었다.

“이곳 마카롱 가게는 저의 단골 가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대 째 내려오는 가게라 하는데 혹시 마카롱을 드시고 싶다면 여기를 추천하죠. 다만, 그만큼 가격이 좀 비싼 것이 흠이지만, 일단 드시고 나면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마카롱?”

처음에는 그가 말하는 마카롱이 무엇인지 조차 몰랐다. 마카롱이란 발음이 워낙 생소하고, 이상해 혹시 놀리는 건가 싶었다. 루드비카가 친절히 바깥 유리창에 전시된 것을 가리키며 알려주자 그때서야 헤르세인은 마카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어쩐지 만져보면 딱딱해 보일 것 같은 매끈하고도 둥근 모양으로 된 표면과 잼인지 크림인지 알 수 없는 속의 내용물이 보였다.

하지만 마카롱이란 것이 종류가 많은지 색이 알록달록하면서 마치 장신구로 쓰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귀엽고도 예뻤다. 과연 저것이 진짜 사람이 먹는 건지 의심이 들다가 갑작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간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말없이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 바깥으로 나온 루드비카는 분홍색의 포장지로 리본 끈이 달린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저 두 눈을 깜박이며 루드비카가 하는 양을 지켜보다가 어느새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낸 루드비카는 파스텔 톤의 노란 빛깔의 마카롱 하나를 들고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마카롱?”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자, 아아―”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까진 좋았으나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모이라도 주는 것처럼 시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질겁했다. 사람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네주면 될 것을 본인이 직접 먹이려고 하다니. 괜히 닭살이 돋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입을 꾹 다물고는 슬쩍 뒤로 물러났다.

“아이참,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자신이 어딜 봐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까, 이 남자는. 헤르세인은 슬쩍 노려보듯 루드비카를 보다가 이내 자신의 손을 들어 그가 쥐고 있던 마카롱을 가볍게 빼앗아 작게 한입을 깨물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루드비카는 정말로 아쉬운 표정을 하고는 투덜거렸다.

“아아, 제가 먹여주고 싶었는데….”

헤르세인은 그의 말을 못들은 척하며 마카롱을 작게 우물우물 씹었다. 처음 마카롱 한입을 깨물었을 땐 바삭하게 울리는 소리와 입안으로 퍼지는 촉촉함에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그럴 사이도 없이 혀끝에서 퍼져가는 진한 달콤함에 다시 마카롱을 씹으려 했지만, 이미 입안에서 사라진 후였다.

‘독특한 맛이 났는데 뭘 넣은 거지? 그래도 상큼하면서 달콤하고 맛있어.’

헤르세인은 손에 마저 있던 마카롱을 다 먹어치웠다. 몇 번 안 씹었을 텐데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여운을 남겨 사라진 마카롱의 맛이 벌써 그리웠다.

‘분명 이 남자의 말로는 마카롱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귀족들은 이렇게 비싼 걸 계속 사먹는단 건가?’

아무리 비싸도 맛이 좋으면 산다고, 딱 마카롱이 그랬다. 색감이며 모양이며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을 만큼 마카롱의 맛은 각별했다. 돈만 있다면 몇 개를 사도 아깝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헤르세인에겐 마카롱을 살 돈은 없었다.

‘하나는 먹게 됐으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루드비카를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처음부터 계속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는지 기분 나쁜 음흉한 미소를 보이며 물었다.

“어때요? 맛있죠? 달콤하죠? 제가 아가씨께 준건 레몬 맛이랍니다. 아, 참고로 저는 딸기 맛을 좋아한답니다. 어때요? 한 개 더 드릴까요?”

평소 같았으면 헤르세인은 단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번 맛본 그 달콤함을 잊을 수 없어서 일까. 입안에 감돌던 그 촉촉함과 달콤함의 유혹이 헤르세인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어 버렸다. 루드비카는 여전히 연분홍빛의 마카롱을 하나 들고서 그녀의 눈앞에 좌우로 흔들흔들 장난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먹어주길 기다리며. 그러나 루드비카의 그런 짓궂은 모습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헤르세인은 고개를 틀어 단호히 거절했다. 만약 그 마카롱을 받아먹으면 은근 기분 나쁘다고 해야 할까. 거기다 고작 마카롱으로 인해 자존심을 굽힐 순 없었다.

“필요 없어.”

단칼의 거절. 루드비카는 마카롱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린 그녀의 표정을 낱낱이 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먹고 싶단 표정이 다 쓰여 있는데도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지 그녀는 보이지 않는 뚱해 있는 얼굴로 마카롱을 쳐다보고 있지도 않았다.

‘상당히 귀여운 아가씨군.’

루드비카는 그녀 모르게 요염한 미소를 보이다 다시 한 번 그녀에게 재차 물었다.

“정말로 안 드실 건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드릴 때 먹는 편이 좋을 텐데요? 저는 무척 단걸 좋아하는 설탕 광이라 양보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살짝 헤르세인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번이 마지막. 만약에 그 마카롱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먹을 기회조차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여전히 루드비카는 마카롱이란 미끼를 던지며 그녀를 살살 골려주고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놀리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보고 있자면 그녀의 반응이 워낙 재밌으니 관둘 수가 없었다.

“…안 먹어.”

“정말로요?”

“안 먹는다니까.”

“진짜로?”

“먹고 싶지 않아.”

몇 번이나 눈앞에서 유혹했지만, 끝내 그녀는 자존심 쪽을 지키기로 했는지 안 먹는 것을 택했다. 거기다 더 놀렸다가는 그녀가 이대로 그냥 가버릴 것 같아 루드비카는 이쯤에서 장난을 그만두기로 하고서 마카롱을 봉지에 도로 집어넣었다.

“안 먹겠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잘 먹도록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죠. 가실까요?”

“...”

루드비카가 키득 웃고는 벌써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헤르세인은 틀림없이 그의 키득거린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마카롱은 그의 손 안에 있었다.

헤르세인은 왠지 모르게 두 번 다시 마카롱 따위 먹고 싶지 않았다.

시가지의 거리에는 어둑한 밤거리임에도 길을 밝히는 상가의 불빛과 거리의 불빛이 있어서 인지 사람은 여전히 많았다. 특히나 연인 사이로 보이는 남녀가 유독 많이 보였지만, 그들처럼 헤르세인과 루드비카는 함께 걷지 않았다. 앞장서서 걷고 있는 루드비카와 두 걸음 정도 거리를 벌리며 조용히 뒤에서 걷고 있는 그녀. 그리고 루드비카의 재잘거리는 목소리는 끝이 없었다. 족족 발견하는 가게마다 단골가게라며 한 번 멈추고, 두 번 멈추고, 세 번 멈추며 루드비카는 친절의 끝을 보여주듯 바깥의 유리 전시장의 내용물을 스스럼없이 소개했다.

누가 보면 그 가게의 주인이나 홍보를 하는 직원처럼 보일정도였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한 가지 면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을 위해 시가지의 거리를 안내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이 상황을 즐기며 안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저 남자는 광대인건가? 어떻게 하루 종일 웃고 있을 수가 있지?’

저렇게까지 즐겁다는 듯이 미소를 보이며 재잘재잘 이야기를 하는 그가 신기할 정도였다.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 건가 싶었다. 한발 한발 거리의 땅을 밝으며 걷는 루드비카의 모습은 마치 책에서 본,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처럼 걸음걸이가 구름을 걷듯 사뿐 사뿐히 걸어갔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새빨간 붉은 머리칼. 낮에 보면 마치 불꽃같은 머리 색 일 텐데 밤에 보면 붉은 실크와도 같아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꼬리처럼 살랑거리는 그의 머리카락을 잡을 뻔했다.

‘내가 지금 뭐하려고 한 거지….’

어떤 여인들보다도 아주 긴 머리카락.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서 꼬리처럼 살랑거리는 그의 긴 머리를 보고 있자면 머리는 알고 있음에도 영락없는 여인의 뒷모습과도 같아 아주 잠시 뿐이지만 몹쓸 생각을 했다. 드레스를 입고 거리를 걷는 여장남자. 그리고 그가 여장 한 것을 모른 어느 남자가 작업을 거는 모습. 이렇게 웃길 수가 있을까. 헤르세인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신에 놀라,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그저 잠시 답답하던 머릿속을 비워내고 싶었다. 잠시 동안 왕성 바깥의 세상을 구경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그와의 만남과 뒤틀어진 일정. 어찌 보면 이것이 첫 일탈이 아닐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도 마지막이겠지.’

비밀통로는 아직까지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통로를 이용해 언제든 마음이 내킬 때면 왕성 바깥으로 나온 것도 간단했다. 하지만 헤르세인에겐 그저 잠깐 머릿속을 비워내는 짧은 시간만 필요할 뿐, 그 이상으로 원하진 않았다. 이렇게 평범히 거리를 걷고 구경할 수 있는 건 보통의 사람뿐이니까. 헤르세인은 자신을 평범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왕비의 동정으로 이름을 갖게 된 이름뿐인 왕녀일 뿐. 오직 복수만을 위해 있는 왕비가 원하는 대로 하는 왕녀에 불과했으니까.

루드비카와 함께 거리를 구경하던 헤르세인은 어느덧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왕성의 바깥 구경도 충분히 눈에 담았겠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돌아가겠다는 그녀의 대답에 루드비카는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산책을 끝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루드비카는 더 붙잡지 않았다.

“아쉽네요, 벌써 돌아가다니.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제가 데려다 드리지요.”

“아니, 됐어. 혼자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밤길은 여인이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위험합니다.”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루드비카의 마지막말에 헛웃음을 뱉을 뻔했다. 그의 말처럼 밤길은 여자뿐만이 아닌, 누구에게도 위험한 길이었다. 하지만 슬럼가에서 생활하기를 수 십 년. 슬럼가만큼이나 위험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다. 거기다 자신이 사는 곳이 어딘 줄 알고 데려다 주겠다는 건가. 헤르세인은 혹시라도 그가 붙잡기 전에 빠르게 몸을 돌려 대답했다.

“내 몸 하난 지킬 수 있어. 그럼.”

혹시라도 그가 끈질기게 쫓아올까봐, 혹시라도 그가 붙잡을까봐 헤르세인은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런데 두발 정도 발걸음이 움직였을 때,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아가씨!”

이번엔 또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옅은 숨을 쉬며 뒤를 돌았다. 하지만 뒤를 돌자마자 루드비카가가 무언가를 그녀를 향해 가볍게 던졌다.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물건에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듯 그가 던진 물건을 가뿐히 잡을 수 있었다.

“이건…?”

그녀가 받은 건, 루드비카가 처음 샀던 마카롱이었다. 그런데 언제 두 개를 사서 꽁꽁 감춘건지 마카롱은 예쁜 분홍빛 파스텔 톤의 봉투로 포장되어 있어 뜯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어째서 이걸 자신에게 주는지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루드비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시선을 받아 친 루드비카는 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오늘 저와 어울려준 보답의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

선물이라니. 헤르세인은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타인에게 받아본 물건이자 선물. 왜 그가 굳이 자신에게 이런 것을 주는지 헤르세인은 잠시 머리가 멈춰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그가 준 선물에서 떼어낼 수 없었다. 어쩐지 기분이 묘했다.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로.”

저도 모르게 진심으로 나온 대답이었으나 헤르세인은 미처 알지 못했다. 자신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가 준 선물을 보고 있음을. 그리고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루드비카의 시선 역시.

안개가 낀 습한 아침. 라인하르트 가문의 별장에는 이미 이른 새벽부터 하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도 일찍이 준비를 하며 정원 손질을 하고 있었고, 마구간의 시종들은 건초더미를 준비해 말의 식사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모두가 바삐 움직이고 있을 시간. 이미 후작은 아침 회의를 위해 왕성으로 출근을 했으며, 뒤이어 클로드도 빠른 시간에 일어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로 왕성에 출근을 한 상황. 하지만 기사의 작위도 없으며 왕성으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 루드비카는 안개가 그치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루드비카님, 루드비카 도련님.”

“으음…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루드비카를 깨운 건 다름 아닌 라인하르트 가문을 오랫동안 책임진, 집사 헨드릭. 올해로 50대가 된 헨드릭은 라인하르트 가문의 가주인 후작보다도 나이가 많은 축이었다. 대대로 후작 가를 모시는 베어울 자작가문. 그리고 그곳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헨드릭은 벌써 이 집의 집사가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곧 점심을 드실 시간이십니다. 계속 주무시다간 주인님께서 가만있지 않으실 겁니다.”

“으으… 알았어. 아, 피곤해….”

결국 헨드릭의 진지한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무거운 몸을 들어 간신히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다. 머리를 묶지 않아 그의 기나긴 머리는 침대위로 마구 흩어져 있었다. 뒷머리까지 살짝 눌렸으며 앞머리조차 단정치 않은 상태지만, 아직 잠결에 취해있는지 루드비카는 상체를 일으켰음에도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주인의 둘째 아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던 헨드릭은 슬쩍 고개를 돌려 침대 근처에 있던 테이블을 보았다. 역시나 했지만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이 비어 있었다. 그것도 혼자 전부 마신 건지 빛에 반사되어 한 방울 조차 없는 모습에 헨드릭은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요즘 들어 와인 한 병을 계속 비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자꾸 이러시면 제가 주인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루드비카 도련님.”

‘주인님’이란 단어를 듣자 루드비카는 슬슬 잠에서 깨어나는지 길게 하품을 하고선 슬슬 뻣뻣해진 몸을 움직였다. 어깨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손목, 팔, 목, 허리까지 상체 위주로 스트레칭을 하며 어느 정도 몸의 개운함을 느끼자 거의 잠에서 깨어난 루드비카는 턱을 괴곤 헨드릭에게 대답했다.

“알겠어, 자중하도록 하지.”

잠이 덜 깬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헨드릭은 눈을 좁히고서 의심스러운 표정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원래는 하녀가 치워야할 몫이지만 루드비카를 깨울 겸, 겸사겸사 치우기로 생각한 헨드릭은 비어진 와인 병과 와인 잔을 들어올렸다.

“점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숙취를 위해 수프 말고 스튜를 준비하라 할까요?”

“상관없어. 그리고 생과일주스도 준비해주면 더 좋고.”

“알겠습니다. 하녀에게 시켜 욕조에 물을 받아 놓으라고 일러뒀으니 바로 씻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헨드릭은 몸을 돌리다가 침대 머리맡 서랍위로 놓여있는 꽃다발을 볼 수 있었다. 헨드릭은 구두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가 만지지는 않고 시선만 내려 꽃다발을 보았다. 파스텔 톤의 하늘색 포장지로 감싸여진 이름 모를 푸른 꽃. 그런데 언제 샀는지 꽃은 점점 수분이 빠져나가 말라가고 있었다. 헨드릭이 알고 있는 루드비카는 꽃을 좋아하긴 하나, 이런 수수한 꽃을 좋아할 성격이 아니었다. 외모만큼이나 화려한 장미 종류를 좋아하는 그의 취향을 잘 알고 있기에 헨드릭은 이런 수수한 꽃다발을 이곳에 둔 루드비카가 의아했다. 거기다 선물치고는 너무 값싼 축이 아니던가.

“이 꽃다발은 무엇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보다 의외군요. 도련님께서 장미꽃이 아닌 이런 꽃을 가지고 계실 줄은.”

“아, 그 꽃은….”

루드비카는 헨드릭이 가리킨 꽃다발을 향해 고개를 틀었다. 그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 온지 3일 째. 요 며칠 사이 루드비카는 사교계에서 날라 온 초대장에 응하느라 본인조차 까먹고 있었다. 로렌드와 오랜만에 만났던 날. 그리고 그녀를 만나 자신도 모르게 돈을 주고 산 값싼 푸른 꽃.

‘분명 꽃 이름이 물망초… 라고 했던가.’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으며 루드비카는 그 푸른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겨우 기억할 수 있었다. 꽃 가게의 점주가 알려준 이름, 물망초. 그리고 애잔한 꽃말을 가진 가녀린 꽃. 물망초를 보다 문득 그녀를 떠올렸다. 물망초보다 더 짙은 남색의 푸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던 그녀. 아쿠아마린보다 진하고 사파이어보다 더 영롱한 코발트블루의 눈동자를 지닌 그녀. 또, 물망초처럼 화려함도 없이 수수하기만 하던 그녀의 모습. 그녀의 얼굴을 안본지도 삼일 째가 된 날.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그 기억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라 루드비카의 입 꼬리는 자연스럽게 호선을 그었다.

“꽃이 말라가는 것 같은데, 처리할까요?”

꽃의 신선도는 하루 사이에 금방 떨어진다. 특히나 직접 키우는 꽃이 아닌 야생화 일수록 꽃의 신선도를 유지하기란 어려웠다. 헨드릭은 벌써 말라가는 꽃을 보며 당연 루드비카는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로 뭐가 있는지 고개를 저으며 루드비카는 헨드릭을 말렸다.

“아니, 그냥 가만히 둬. 바짝 말려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장식할 생각이니까.”

“장식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빨리 내려가서 요리장에게 얘기를 하고 올 테니 도련님께서 얼른 준비하십시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헨드릭을 보내고 나서 루드비카는 조금 무거워진 걸음으로 욕실에 들어갔다. 욕실에 들어가 옷과 속옷을 다 벗고서 완전한 나체로 장미꽃잎이 뿌려진 뜨거운 물에 푹 몸을 담자, 이게 바로 지상낙원인지 개운하면서도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똑똑―

"도련님 목욕 시중을 들러 왔습니다."

노크소리와 함께 두 명의 하녀가 욕실에 들어왔다. 두 하녀는 소매를 걷어 한명은 샤워 볼에 거품을 내었고, 또 다른 한명은 루드비카의 긴 머리에 거품을 내어 본격적으로 일을 목욕 시중의 일을 시작했다. 샤워가 다 끝날 동안 루드비카는 뜨거운 물의 기운으로 잠시 피로 풀리는 기분에 눈을 감으며 샤워를 만끽했다. 몸을 개운하게 씻어낸 후, 루드비카는 침실에 돌아가자 기다리고 있었듯이 이번에는 속옷과 오늘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 하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루드비카의 몸을 감싼 가운이 쑤욱 내려가자 하녀들은 일체 동요 없이 제각각 맡은 일로 행동을 옮겼다. 하녀가 된 이상, 귀족의 나체를 보는 건 늘 상 있는 일이자 익숙해져야만 하는 일. 물론, 처음 하녀를 시작한 하녀들은 당연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녀란 직업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귀족 자제의 몸이던 영애의 몸이던 몇 번이나 본다 해도 동요할 틈이 없었다. 그들은 주인이자 그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줄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으며 주인의 명은 절대적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부드럽게 팔에서 어깨를 타고 올라가 피부에 감기는 고급 면 소재의 하얀 블라우스. 소매 끝에는 사파이어로 장식된 커프스버튼. 그리고 진한 아이보리색의 면바지. 금박으로 장식된 넝쿨무늬 단추가 하나하나씩 잠겨 블라우스 위로 덮여 감색의 조끼가 맵시를 살려주었다. 무릎가까이 오는 하얀 롱 버튼 부츠는 최고의 장인이 만든 수제 부츠이기 때문에 가죽의 질부터가 남달랐다.

종아리 옆으로 복사뼈 부근까지 부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여러 개의 은색의 단추와 높은 검은 굽. 루드비카는 인형처럼 하녀들의 손에 옷이 입혀지고 신이 신겨지며 평소의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허전한 목을 돋보이기 위해 푸른 리본 끈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가넷으로 만들어진 귀걸이를 끝으로 루드비카의 단장은 어느새 끝이 났다.

“도련님,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던 하녀가 물어보자 루드비카는 잠시 동안 고민하다, 대답했다.

“오늘은 간단히 끝에만. 그리고 녹색 끈으로.”

루드비카의 말을 알아들은 하녀는 고개를 끄덕이곤 정성스럽게 빗질을 시작했다. 여인보다 더 윤기가 흐르며 허벅지까지 찰랑이는 긴 머리카락. 하녀는 잘 빗겨진 그의 머리카락의 끝 부분을 모아 잡고서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녹색 리본 끈으로 잘 묶어 매듭을 지었다.

“다 됐습니다, 도련님. 이제 재킷만 입으시면 됩니다.”

다른 하녀가 짙은 녹색 계열의 재킷을 들고 다가왔다. 그리고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또 다른 하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주었고, 재킷을 들고 있던 하녀들은 조심스럽게 루드비카의 팔에 소매를 끼어주며 완벽히 마무리를 지었다. 제 할 일을 모두 끝낸 하녀들이 인사를 하고 뒤로 물러나자 루드비카는 살짝 옷을 가다듬고서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당으로 내려오자 타이밍 좋게도 준비되어 있었는지 테이블 위로 오늘 루드비카가 식사할 몇 가지의 요리가 나와 있었다. 이미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헨드릭이 의자를 끌어 루드비카를 기다리자 루드비카는 의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자리에 앉는 동시에 헨드릭은 의자를 살짝 밀어 넣었다.

“사과와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생과일주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실 메뉴는 허브 샐러드와 닭고기로 만든 스튜와 연어 훈제구이입니다.”

“연어 훈제구이는 됐어.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만 먹을 생각이니까.”

“네, 그럼 연어 훈제구이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도련님.”

“응, 헨드릭은 그동안 할 일하러 가도 좋아.”

루드비카는 이만 됐다는 뜻으로 손을 휘휘 저었다. 하녀 두 명 정도 식당에 대기시키고는 헨드릭은 할 일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긴 테이블이 허전할 만큼 루드비카는 식당에 홀로 앉아 늦은 점심을 시작했다. 조금씩 갈증 나던 목을 생과일주스로 촉촉이 축인 다음, 이제 막 스튜 한 수저를 뜨려할 참이었다. 잠시 동작을 멈추고 식당 주변을 둘러보던 루드비카는 적막하리만큼 허전한 테이블의 비어진 곳곳을 보았다.

아무리 세 식구가 산다지만 세 식구가 앉기에는 터무니없이 긴 테이블이었다. 의자는 테이블의 길이만큼 많았지만 그만큼 앉는 사람이 없어서 일까, 루드비카는 입맛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매일 혼자 먹기도 슬슬 질리는데 로렌드랑 같이 먹을까.’

루드비카는 같이 점심 식사할 로렌드를 떠올렸지만, 그의 성격상 분명 시간이 금인 것을 외치며 귀빈인 그들과 먹을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로렌드의 부하인 필릭스와 먹고자 하면 필릭스마저 로렌드를 따라다녀 같이 먹기 바쁘니 두 사람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으음, 그럼 알베르셋 공녀?’

하지만 루드비카는 그 생각을 금방 버려야 했다. 그날의 이후로 완전히 헤어지게 된 루드비카는 바로 어제 사교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녀를 볼 수 있었다. 헤어 진지 얼마나 됐다고 금세 반려를 찾은 건지 그녀는 사교모임에서 그녀가 선택한 남성과 약혼을 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다. 그녀와 약혼을 한 남성은 발렌티스 백작 가문의 장남인 발렌티스 공자. 대체로 발렌티스 가문은 왕당파에 속하는 가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다른 출세를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다.

소문으로는 발렌티스 백작이 후작으로 작위 상승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찌됐든 발렌티스 공자와 약혼 한 것을 보면 그녀가 충분히 원하는 배경, 재력, 권력이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그 약혼은 그녀에게 있어서도 더 좋은 선택이 없는 약혼이나 다름없었다.

어찌됐든 미래에 백작부인의 자리는 따 놓은 자리가 아니던가. 루드비카는 이내 머릿속에서 알베르셋 공녀를 지워내며 은수저를 다시 들어 스튜를 먹기 시작했다. 일단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다.

늦은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난 후, 조용하던 라인하르트 가문의 별장에선 한동안 들리지 않던 피아노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별장에서 일을 하던 하녀들은 피아노 소리에 의아하다 홀로 있는 루드비카를 떠올리곤 금방 수긍했다. 라인하르트 가문에서도 유일하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둘째 도련님. 그리고 워낙 그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녀든, 바깥에서 일하는 시종이든 루드비카의 피아노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유일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후작이긴 했지만, 형인 클로드조차 루드비카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으니 하녀들은 입을 모아 혹시 둘째 도련님이 기사가 아닌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아노는 어디까지나 취미에 불과한 루드비카는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미 연주에 심취하여 그 연주 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가늘고 희며 길게 뻗은 손가락을 유연히 움직이는 손가락.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 위로 춤을 추듯 움직이는 손가락은 모든 음표를 기억하듯 건반을 부드럽게 눌렀다. 악보 한 장 없는 이름 모를 연주.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 된 음으로 잔잔하면서도 낮은 음으로 천천히 흐르던 연주는 절정에 달하는 클라이맥스 없이 마지막을 향해 조급함 없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리고 완전한 끝을 알리는 종장. 이름 없는 악보의 연주는 그렇게 끝났다.

“도련님께서 연주하시는 피아노의 선율을 듣자면 제목이 계속 궁금합니다. 아직도 곡의 제목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구경하고 있었는지 헨드릭이 살짝 인자하게 웃으며 루드비카의 근처로 다가갔다. 루드비카는 고개를 슬쩍 끄덕이며 피아노의 덮개를 닫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 아직 이 연주와 어울리는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 이것저것 아름다운 단어도 찾아보긴 했는데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래도 언젠간 어울리는 제목이 붙여지겠지.”

“제가 죽기 전에 그 제목을 들을 날이 왔으면 좋겠군요.”

헨드릭은 미리 은쟁반 위로 가져온 시원한 물 한잔을 건넸다. 안 그래도 슬슬 갈증 나려던 찰나였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았는지 제때 가져온 헨드릭을 보며 루드비카는 싱긋 웃으며 단숨에 유리잔에 든 물을 마셨다.

“죽으면 큰일 나지. 헨드릭은 라인하르트 가문의 하나 뿐인 집사인데 만약 죽게 되면 후작각하와 클로드 형님이 크게 상심할지도 몰라. 물론, 헨드릭의 그 때가 온다면 나는 아마도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나온 후겠지만.”

루드비카는 헨드릭이 들고 있는 은쟁반 위로 비어진 유리잔을 조심히 올려두었다. 헨드릭은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인 루드비카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는 알고 있었다. 루드비카의 말처럼 아마 그때의 미래쯤이면 클로드는 후계자 자리를 받아 가주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차남인 루드비카는 가문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 라인하르트 가문은 완전히 클로드의 통치로 움직이는 새로운 후작가문이 될 것이었다. 그저 농담 삼아 한 말일 뿐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은근히 진심으로 받아치는 루드비카를 보고 있자면 헨드릭은 그런 루드비카가 조금은 가여웠다.

“나오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지 않습니까? 클로드님의 밑에서 보좌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귀족의 차남들은 모두 가주의 보좌관이 되서 가문에 남으려 하니까요.”

그러나 루드비카는 고개를 저으며 픽 웃었다.

“만약 그런다면 내가 기사 작위를 따야할지도. 지금 누구보다도 후작각하께서 내가 기사 작위를 받아 클로드 형님의 밑에서 보좌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실 걸? 헨드릭도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난 애초에 검을 다루기에는 이미 늦었어. 또, 검보단 사교모임의 왈츠가 더 좋기도 하고.”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집사인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미래를 선택하는 것도 도련님의 몫이니까요.”

“그럼 난 내 침실에 잠깐 들렸다 서재에 가있을게. 중요한 말이 있으면 그곳으로 하녀를 보내도 좋아.”

“예, 도련님.”

루드비카는 헨드릭을 지나쳐 아래층으로 내려가 자신의 침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잠시 쉬기 위해 침대에 걸터앉던 그는 침대 근처의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는 꽃다발을 볼 수 있었다. 아마 잠을 자러 돌아올 때까지 침실에 오지 않았더라면 또다시 꽃다발의 존재를 잊을 뻔했다. 루드비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꽃다발을 들어올렸다. 역시 수분이 없어 말라가고 있는 꽃다발이었다.

점점 바싹 말라가는 푸른 꽃잎을 보다가 루드비카는 집게손가락을 움직여 꽃잎을 살며시 만져 보았다. 꽃잎의 촉감은 아직 부드러웠지만 오래만지고 있으니 어떤 꽃잎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꽃잎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까지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던 루드비카는 푸른 꽃잎보다 더 진하고 더 이채로운 색을 가지던 그녀를 떠올렸다. 콧대가 높은 건지, 아님 자존심이 높은 건지, 또 아님 철벽인건지,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계속 시선이 가던 여전히 이름 모를 정체불명의 아가씨.

어떻게 보면 순수해보이기도 하면서 표정하나 하나 유독 잘 보이던 그녀. 그러나 그렇게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녀가 그날 밤. 어색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루드비카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로.」

고작 어색히 웃는 그 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저렇게 너무도 청명하게 웃는 여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웃음은 여지 것 루드비카가 수많은 여인들에게서 봐온 웃음과는 달랐다. 화려함은 없지만 아름다웠다. 눈앞의 물망초처럼 푸르고 시원한 바람이 나부끼듯 그 미소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야생화와도 같았다.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을까.’

자신과는 정반대인 여인. 하지만 자신의 시선은 어째서인지 그녀를 쫓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독특함 때문인지 다른 여인들에게서 보지 못한 모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루드비카는 입 꼬리를 말아 올리며 한 치의 의심조차 없이 단정했다.

‘그 아가씨와는 분명 다시 만나게 되겠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니 루드비카는 벌써부터 그녀와 만날 날이 기다려지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나타날지 모를 그녀. 말라가고 있는 물망초의 꽃다발을 코끝의 근처까지 갔다 대며 향기를 맡아 보았다. 확실히 신선할 때와는 달리 꽃의 향기는 많이 사라지고 여운을 남기듯 은은한 향이 아직 남아 있었다. 루드비카는 그 향기를 맡고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듯 꽃다발과 함께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다.

＊＊＊

고작 이름뿐인 왕녀일 텐데, 그녀가 배우는 것은 많았다. 왕비는 그녀가 이름뿐인 왕녀이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싫은지 헤르세인에게 붙이는 교사는 끝이 없었다. 언제까지 배워야 할지 끝이 없는 예절과 예법. 손짓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쉴 틈 없었다. 지루하기 만한 왕실의 역사 수업. 그리고 왕국의 고대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사회와 지리 등등 무궁무진했다.

슬럼가에서 살았을 때는 왕이란 사람은 그저 편히 먹고 자며 왕 노릇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왕녀가 되다보니 잠자리가 좋은 것 빼고는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다. 물론, 슬럼가에서 살 때와는 달라 배부른 소리란 것쯤은 알고 있었다. 다만, 이름뿐인 왕녀라 불리는 자신에게 굳이 그런 것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지 헤르세인은 아직도 왕비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찌됐든 왕비가 원해는 대로 해주다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보다, 이 수업은 언제쯤 끝나는 거지?’

헤르세인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사브레 왕국의 고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보았다. 테이블 위로 닿을 정도의 길고 긴 흰 수염을 가진 늙은 교사는 상당히 깐깐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땐 어땠는지 몰라도 그는 하나부터 열 까지 헤르세인이 대답하는 모든 것과 행동 모습 등 하나도 빠짐없이 지적을 하기 바빴다. 알려준 그대로 필기를 적고 있으면 글씨체가 엉터리라며 쓴 소리를 하기 일 수며, 역대 사브레 왕국 국왕의 연도 외우기 등등, 발음하나 잘 못 틀려도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다.

다른 수업 같았으면 행동으로 직접 배우는 것이 많기에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익히면 그만이지만, 어려운 암기 쪽이나 공부 쪽으로는 헤르세인에겐 지루하고 취약했다. 교사를 슬쩍 보며 헤르세인은 양피지에 낡은 깃털 펜으로 잉크를 묻혀 움직였다. 이제는 익숙해진 펜을 잡는 법과 의외로 듣기 좋은 글씨 쓰는 펜의 소리. 헤르세인은 점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다 썼습니다.”

“제게 주시죠, 어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르세인은 그에게 빼곡히 글이 적인 양피지를 건네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다렸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오늘따라 조용한 교사의 반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다. 그녀가 적은 양피지를 가만히 보던 교사는 ‘흐음’이란 소리를 내며 잠시 동안 침묵을 가졌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교사는 그 침묵을 거두었다.

“아직도 글씨체가 엉망이십니다. 그리고 사브레 왕국 초대 국왕은 누구죠?”

“윌그람 엘 코스카 라그디알… 입니다.”

역시나 글씨체를 지적하던 교사는 뜬금없이 초대 국왕의 묻는 질문에 헤르세인은 빠르게 머리를 굴려 대답할 수 있었다.

“정답입니다. 그럼 사브레 왕국의 가장 황금기를 가져다 준 국왕은 누구입니까.”

그것으로 끝 날거라 생각했는데 또 다시 물어보는 급습에 헤르세인은 다시 머리를 굴렸다. 이번에는 몇 초 정도 늦었다.

“제14대 국왕이신 발엘드 엘 마르스 라그디엘 입니다.”

간신히 대답하긴 했지만, 교사는 또 다시 말이 없었다. 설마 답이 틀린 건가 싶어 헤르세인은 그동안 외운 국왕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머릿속에 나열했다. 거의 제10대 국왕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을 때쯤, 교사는 다시 헤르세인을 불렀다.

“제가 왕녀전하께 질문한 것들은 가장 쉬운 문제이며 외우기 쉬운 선대 국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래도 제 질문에 정답을 맞히신 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뜻이니 오늘은 이쯤에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글씨체가 좋아지려면 몇 번이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러워 보이는 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곤 가볍게 인사를 하고 헤르세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녀는 옅은 숨을 내쉬며 일어나 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교사의 모습. 하지만 교사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무언가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다.

‘일일이 이것저것 지적한 것보다는 낫겠지.’

헤르세인은 이제 주변을 정리해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역사책과 양피지를 치우려 했다. 그런데 생전 들리지 않던 작은 노크소리에 그녀는 움직이던 행동을 멈추고 굳게 닫혀 있는 문 쪽을 보았다.

똑똑―

정확하게 두 번 두드리며 다시금 노크를 하는 소리에 헤르세인은 의아했다. 시녀나 하녀들 같으면 두 번 두드리고 벌써 목소리를 내며 들어왔을 법도 한데, 아직도 문은 열리지 않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왕비일리도 없고. 왕비라면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것이다.

똑똑―

그리고 또 다시 들리는 노크소리. 헤르세인은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문 앞까지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고서 문을 당기자 문 밖에는 처음 보는 소년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왕실의 핏줄임을 상징하는 금발 머리와 녹안과는 전혀 다른 푸른 눈동자. 그 푸른 눈동자를 보자 제일먼저 떠오른 건 왕비의 푸른 눈동자였다.

‘설마, 이 아이가….’

보고 있자면 왕비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 눈동자. 그리고 국왕보다 왕비와 많이 닮은 외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곤 왕비와 빼 닮았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오히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더 왕비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헤르세인을 보며 잠시 주춤하다 뺨에 홍조를 붉히며 미성어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아, 안녕하십니까. 누, 누님. 저는 빈센트 드 레이람 미르세니안 이라고 합니다. 누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누, 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센트 드 레이람 미르세니안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누님께 찾아온 건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 인사를 못 드려서… 이기도 하고 얼른 뵙고 싶은 마음에 찾아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왕비의 진정한 혈육이자 왕실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축복받은 아이. 자신은 부를 수 없으나 너무도 쉽게 ‘어머니’라며 부를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자신과는 달리 고귀하게 자란 아이, 빈센트. 헤르세인은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세상의 때 묻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누님’이라 부르는 목소리. 자신은 더러움 따윈 몰라요, 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 ‘어머니’란 단어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르기 쉬웠어요, 라고 왕비를 언급하는 빈센트를 보니 헤르세인은 속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이 아이는 왜 나랑 이렇게 다를까.

이 아이는 왜 나와는 다르게 태어났을까.

이 아이는 왜 모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을까.

이 아이는 왜 나도 부르지 못한 ‘어머니’란 단어를 쉽게 부를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왜, 왜… 왜 하필 나의 동생인 걸까. 미치도록 ‘질투’가 날 만큼.

손잡이를 잡은 손이 새 하얗게 질릴 만큼 헤르세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색 한 번 없이 헤르세인은 힘을 풀어 문을 활짝 안쪽으로 당겼다. 그리고 빈센트를 보지 않은 채로 안에 들어올 것을 허락했다.

“들어와.”

들어오란 말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는지 빈센트는 환하게 웃으며 활짝 열린 공간으로 발을 디뎠다. 아직까진 왕비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자신의 공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간에 들어온 자신의 동생이라 불리는 빈센트. 헤르세인은 조용히 문을 닫고서 주변을 구경하고 있는 빈센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어림잡아 본다면 12살에서 13살 사이로 보이는 앳된 모습. 하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이던가. 그녀는 그 생각을 바로 지워내 버렸다. 일단은 빈센트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 쪽으로 안내해 헤르세인은 어느새 마주 앉은 빈센트를 보았다.

자신은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으나 빈센트의 금발을 보고 있자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미 가리키고 있었다. 국왕과 왕비의 핏줄을 받아 태어난 두 사람의 자식. 고귀한 혈통을 지닌 어린 소년과 천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사생아’인 자신. 고작 이렇게 잠깐 마주보고 앉아있을 뿐인데 벌써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 것 같았다.

헤르세인은 빈센트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테이블 밑으로 치맛자락을 꾸욱 잡았다.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당장 저 눈앞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헤르세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빈센트는 해맑게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누님께 물어도 봐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거라고?”

“예!”

빈센트가 궁금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야기는 나눠야 하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빈센트는 바로 질문을 시작했다.

“누님의 궁에 들어오자마자 생각했습니다만… 왠지 누님의 궁전은 무언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차 한 잔 내주는 시녀조차 보이지 않고… 혹시, 하녀들과 시녀들에게 휴가를 내주신 겁니까?”

“...”

휴가라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정말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구나 싶었다. 헤르세인은 어느 정도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던 손의 힘을 풀어내며 나지막한 숨을 뱉고서 대답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전속시녀나 하녀 따윈 없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전속시녀랑 하녀가 없다니… 누님께선 누구나 다 아시는 왕녀이신데 어째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걸 귀찮다고 해야 하나. 고작 오늘 처음 봤을 뿐인데 마치 자기 일 마냥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빈센트를 보니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빈센트는 다른 질문을 시작했다.

“누님, 혹시 식사는 제때 하시는지요? 전속하녀가 없으면 대체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식사는 식사시간 때 맞춰 하녀들이 제때 갖다 주니 걱정할 거 없어.”

“그럼,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을 때는요? 설마 혼자서 입으시는 건 아니시죠?”

슬슬 짜증이 났다. 제가 뭔데 이것저것 참견하는 걸까. 아니 애초에 왕비의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생부터가 다른 존재가 아니던가. 거기다 꼬박꼬박 누님이라 부르는 그 호칭조차 가증스러웠다. 정말로 이 아이는 자신을 누이로서 생각하는 걸까. 자신이 사생아란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걸까?

“누님!”

첫 만남이다. 왕비의 부탁도 있었고, 비록 빈센트가 껄끄러운 건 사실이나 지금 이 상황을 망치고는 싶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최대한 짜증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만. 네가 무슨 생각으로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나에게 전속 시녀랑 하녀가 없는 건 내가 이름뿐인 왕녀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무도 날 왕녀로서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 괜히 네가 나서 일을 벌이지 말아줬으면 하구나.”

“네… 누님.”

시무룩한 얼굴을 한 빈센트의 표정이 보였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았다. 왕비가 동생이라 말해도 눈앞의 있는 소년이 스스로를 동생이라 칭해도 헤르세인의 눈앞에는 그저 다가지고 태어난 왕자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시무룩한 얼굴을 하다가 이내 기운을 다시 차렸는지 빈센트는 밝아진 얼굴을 하며 슬쩍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바빴다.

‘얼른 돌아 가 줬으면….’

직접적으로 돌아가라 말 할 수도 없고, 이 눈치 없는 어린 왕자는 아직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헤르세인은 빈센트가 알아서 돌아가 주길 바라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역사책을 괜히 펼쳤다. 빼곡하게 적혀 있어 수업 때보다 더 눈이 안 들어오는 글씨들. 그래도 빈센트를 보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며 헤르세인은 아예 빈센트에게 시선을 떼 버렸다. 그렇게 있기를 몇 분이 흘렀을까.

눈은 책을 향해 있지만 헤르세인의 귀는 빈센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자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혹시 돌아가는 건가 싶었다. 그러나 돌아가기는커녕 어디론가 걸음걸이를 옮기더니 무언가를 가리키는 빈센트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책에서 시선을 뗐다.

“누님, 이건 무엇 입니까?”

“그건─!”

처음엔 빈센트가 가리킨 것에 헤르세인은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좁히고 집중했다. 그리고 빈센트가 그 물건을 손에 쥔 순간,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눈치 채지 못한 빈센트는 천진난만이 포장을 뜯으려 했다.

“으음, 이거 먹는 거 같은데… 누님! 이거 마카롱인가요? 포장도 안 뜯겨져 있는 거 보면… 혹시 제 선물인가요?! 와아!”

저 눈치 없는 왕자는 대체 뭘 착각하는 걸까. 헤르세인은 서둘러 빈센트가 있는 곳으로 거의 뛰어가다 시피 했다. 그리고 빈센트가 제멋대로 포장지를 뜯고 마카롱을 꺼내 그것을 한 입 깨물자, 헤르세인은 결국 꾹 누르고 있던 인내심을 폭발시켜 버렸다.

“당장 멈추지 못해?! 누구 마음대로 먹는 건데! 누구 마음대로!!”

“누, 누님!”

그날, 루드비카가 준 마카롱을 헤르세인은 단 한 번도 포장을 뜯지 않았다. 먹지도 않고 그가 준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처음엔 먹을까하고 생각도 했지만 포장지가 예쁜 것은 물론이고 왠지 마카롱 자체가 예뻐 보여 먹기가 아까웠다. 결국, 포장 한번 뜯지도 않은 채, 관상용처럼 머리맡의 테이블위에 올려두며 눈으로 먹는 것에 만족했다. 그런데 자신조차 아까워 뜯지 않은 저 마카롱 포장지를 마음대로 뜯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먹기까지 하다니.

헤르세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 내 허락 없이 네 멋대로 뜯을 수가 있지?! 나도 그저 먹지 못한 채, 보기만 한 걸 네가 왜 뜯는 건데!!”

“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야가 분노로 뒤집어져 지금 헤르세인의 눈앞에 있는 빈센트는 그녀의 것을 빼앗는 ‘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크게 손을 휘둘러 있는 힘껏 손을 내리치려 했지만, 무언가에 막히듯 그 손을 내리칠 수 없었다. 아무리 힘으로 당기려 해도 단단히 붙잡힌 손. 헤르세인은 고개를 홱 틀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뒤에는 살벌한 표정으로 헤르세인을 쳐다보고 있는 왕비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서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헤르세인! 감히 네가!”

찰싹──.

쫙 소리가 나도록 부딪치는 소리와 고개가 강하게 돌아갔다. 헤르세인은 자신의 뺨에 느껴진 쓰라린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여태껏 슬럼가에서 갖은 고통은 느껴봤지만 오늘처럼 억울하고 이렇게 쓰라릴 만큼 뺨의 고통이 아픈 건 처음이었다. 그저 뺨을 맞았을 뿐인데 속에서 무언가 치밀 듯이 목이매이는 이 감정들은 뭐란 말인가.

헤르세인은 손을 들어 그녀가 때린 뺨을 살짝 만져보았다. 손의 마찰 때문인지 아님 부풀어 올라 열이 나는지 뺨은 뜨거웠다. 그리고 아팠다.

“헤르세인! 정신이 들었으면 어디 한번 네 입으로 말해 보거라! 지금 빈센트를 네가 때리려 했던 것이냐!? 그런 것이야?!”

그러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빈센트가 고개를 크게 저으며 왕비를 말렸다.

“아, 아닙니다, 어머니! 누님이 저를 때리다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넌 나서지 말거라 빈센트! 네가 잘못을 했든 안했든, 지금 내가 보기엔 분명 네 누이는 너를 때리려 한 것이 틀림없다!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헤르세인!”

“어머니!!”

머리가 윙윙 울렸다. 자신의 편을 들려는 빈센트의 외침과 그것을 부정하려는 왕비의 칼날 같은 목소리. 두 사람이 외칠수록 머리가 지끈거리듯 아파왔다.

“헤르세인!!”

“...”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왕비와 눈을 마주했다. 저 여인은 대체 자신에게 뭐가 그리 화가 난 것일까 생각했다. 그리고 뺨에서 느껴지는 쓰라린 고통이 마음을 흔들자 정신이 맑아지듯 헤르세인은 그제 서야 왕비의 시선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딸을 향한 어머니로서의 시선 따위가 아니었다.

그의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려던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당신이 뭔데 날 그렇게 보는데… 난 내 것을 그저 지켜내고 싶었을 뿐인데!’

헤르세인은 그녀의 시선과 맞서며 당당히 대답했다.

“네, 때리려 했습니다. 어리석은 동생이 제 것을 탐냈기에 누이로서 동생을 훈육시키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지만 제 훈육을 막으신 왕비전하를 보니, 왕비전하께서 얼마나 저 아이를 아끼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훈육시킬 생각 따윈 오늘로서 접겠습니다. 왕자로서 대우해 드리죠. 저는 빈센트와는 혈통이 다른, 감히 왕자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사생아 따위니까요!”

헤르세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마카롱을 보았다. 분노를 참지 못해 포장지가 이미 많이 구겨졌고, 안에 들어 있던 마카롱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고작 이깟 마카롱이 뭐라고 자신은 그토록 화를 냈던 걸까. 고작 아무의미도 없이 받았을 마카롱에 불과한데. 누가 먹던 상관없을 마카롱에 불과한데….

결국 헤르세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마카롱을 들고서 근처에 있는 창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활짝 문을 열고서 망설임 없이 던졌다. 어쩌면 자신에겐 마카롱조차 사치일지도 몰랐다. 버린 것에 후회 따윈 없었다.

다만, 그 마카롱을 제게 준 루드비카에게 약간의 미안함이 남아 있을 뿐.

“누, 누님! 어째서 그걸 버리시는 겁니까! 누님!”

그녀의 행동에 오히려 빈센트가 놀랐는지 창밖으로 내던져진 마카롱을 보며 빈센트는 다급히 창가 쪽으로 뛰어왔다. 하지만 빈센트가 잡기에는 이미 늦은 후였다. 자신을 보는 빈센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헤르세인은 무시했다.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는 왕비를 보며 헤르세인은 나지막이 입술을 움직였다.

“나가주십시오. 여긴 제 궁입니다. 그리고 사과 따윈 하지 않을 겁니다. 전 잘못한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빈센트가 저지른 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벌을 내리시든 전 사과 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어떻게 보던 헤르세인은 당당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신의 것을 탐낸 빈센트가 나쁜 것이라고. 만약 빈센트의 뺨을 때렸다 해도 헤르세인은 후회하지 않을 거라 장담했다. 그 뺨을 때린 순간, 자신의 온갖 질투와 원망이 담긴 건 사실이었으니까.

“돌아가자꾸나. 빈센트.”

“어, 어머니!”

“어허! 어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어서 가자는 데도!”

“예에… 누, 누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가 풀리시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오겠습니다.”

왕비와 빈센트가 자리를 떠났다. 문이 활짝 열리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때까지 헤르세인의 시선은 줄곧 바닥에 있었다. 누군가에게 밟혀 형태를 잃은 마카롱만이 처참하게 뭉개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루드비카의 부탁으로 오늘 왕태자가 있는 왕성으로 데려가게 된 클로드는 신중하게 자신의 동생을 보고 있었다. 혹시나 평소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감시나 다름없었다.

“형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도 오늘은 얌전히 입을 생각입니다만.”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곤 언제 한번 얌전히 입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잔말 말고 어서 입기나 해.”

아예 작정하고 감시할 생각인 클로드는 의자를 끌어 자리에 앉아 심사를 하듯 루드비카의 옷 입는 모습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다. 눈에 띄지 않는 가는 붉은 끈으로 얌전한 포니테일을 한 붉은 머리. 하얀 블라우스 위로 단정하게 매여진 딱딱한 검은색의 넥타이와 채도가 낮은 남색의 조끼와 검은색의 롱코트. 그리고 작은 사파이어로 세공하여 만들어진 은장식의 배치를 마무리로 루드비카의 준비는 확실히 평소보다는 빨리 끝났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클로드와 달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들여다본 루드비카는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은 표정을 드러냈다.

“칙칙… 하네요. 하나도 화려하지 않고….”

“보통은 그게 정상이다. 나도 아버지도 다른 사내들도 전부 그렇게 입는 것이 정상인거다. 네가 유독 정신없게 입는 것뿐이지.”

“결국은 제가 비정상이란 말이네요.”

루드비카는 귀찮듯이 하녀를 물리며 다른 테이블 쪽으로 하녀들이 진열해놓은 장신구를 보았다. 하나같이 클로드의 명령을 받고 내놓은 밋밋하기 짝이 없는 장신구들이었다. 클로드에게 투덜거리며 장신구를 훑던 루드비카는 그나마 괜찮은 귀걸이를 발견하여 작은 귀걸이 함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계속 루드비카를 주시하고 있던 클로드는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귀걸이 따위 하기 만 해봐.”

“어째서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며 머리 끈이며 장신구며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입지 않았습니까. 귀걸이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귀걸이 말고 눈에 띄지 않고 장식 없는 피어스로 해. 거기까진 봐주마.”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었다. 클로드는 피어스까진 봐주려 했지만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완강했다.

“싫다고 하면 어쩌실 겁니까?”

“루드비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사 출신이라 그런지 목소리한번 쩌렁쩌렁한 클로드의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나 클로드의 외침에도 귀걸이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루드비카는 손에 들고 있던 함을 내려놓으며 일종의 거래를 했다.

“귀걸이까진 하게 해주십시오.”

“안 돼, 피어스로 해.”

“그럼, 큰 사이즈 말고 작은 큐빅이 박힌 걸로 하겠습니다.”

“안 돼.”

“후우, 그럼. 흔들리지 않는 귀걸이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러다 피어스조차 클로드가 원하는 걸로 귀에 걸을 것 같아 루드비카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겁니까? 후우… 좋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형님? 저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보면 계속 반대로 행동하고 싶더군요.”

루드비카는 기고만장하면서도 묘한 웃음을 지으며 뒤를 돌아 성큼성큼 드레스 룸으로 향했다. 클로드는 루드비카가 무엇을 가지고 나올지 알 수 없었으나 불길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저런 묘한 미소를 짓는 루드비카를 보면 분명, 무언가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지 손바닥만 한 검은 벨벳 상자를 들고 나온 루드비카는 클로드 앞으로 내밀며 짙게 입꼬리를 올렸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형님.”

“뭐지, 그건.”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형님께선 이걸 보면 좋아하실 지도 모르겠군요.”

“너 설마, 이상한 귀걸이 같은 건 아니겠...”

클로드가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루드비카는 잽싸게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활짝 열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 보이는 건 핏빛으로 착각할 만큼 짙은 붉은 색을 띄우는 물방울 모양의 세공된 루비. 백금으로 둘러싸여 세공된 루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귀걸이였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평소 하고 다니는 화려한 귀걸이들과는 달랐다.

보석이 크게 박힌 것도 아니고, 진주 귀걸이나 다이아 귀걸이처럼 단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루비 귀걸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귀걸이를 본 클로드는 단숨에 표정을 어둡게 만들어 미간을 좁힐 수밖에 없었다. 그 귀걸이는 다름 아닌, 클로드가 잘 알고 있는 주인의 귀걸이이기 때문이었다.

“너… 이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고 하시니 제가 할 수 있는 귀걸이는 이것 밖에 남아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 귀걸이는 안하려고 했지만….”

클로드와는 달리, 루드비카의 목소리는 너무도 평화로웠다. 거기다 콧노래까지 부르면 금상첨화처럼 보이겠지만, 루드비카는 클로드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알기에 그 선을 넘지는 않았다. 태연하게 상자에서 귀걸이 한쪽을 빼내어 자신의 왼쪽 귓불에 귀걸이를 달았다. 그리고 오른쪽을 끝으로 귀걸이를 전부 달자 루드비카는 왼쪽 귓불에 달려 있는 귀걸이를 슬쩍 만져보았다. 또, 클로드에게 일부로 더 부각시켜 보여주듯 짓궂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습니까? 이 귀걸이. 형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너… 무슨 생각인거냐.”

“저는 도통 형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어깨를 으쓱이며 되묻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목에서 무언가 끌어 올랐지만, 간신히 억누르며 아까보다 차분해진 목소리를 뱉어냈다.

“그 귀걸이는 너의...”

“저의 뭐가 말이지요?”

차분해질 거라 생각한 목소리와는 달리, 어느새 감정이 또 섞여 버렸는지 클로드는 차마 마지막의 그 말을 뱉어낼 수 없었다. 그 단어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금기’이며 더욱이 루드비카의 앞에서 말하는 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루드비카는 오히려 입 꼬리를 말아 올려 그 ‘금기’를 클로드에게 유혹하듯 유도하고 있었다. 결국, 그 금기를 입에 담을 수 없던 클로드는 항복하듯 루드비카에서 시선을 돌려 버렸다.

“오늘까지만 이다.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 서둘러.”

“진즉에 양보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이래서 전 형님이 무척 좋을 수밖에요.”

문을 열고 나가려던 클로드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무시하듯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클로드가 사라질 때까지 진하게 웃고 있던 루드비카의 입꼬리는 힘이 풀리듯 내려갔지만, 여전히 그 미소는 옅게 남아 있었다. 귓불에 걸려 있던 루비 귀걸이를 가볍게 떼어 낸 루드비카는 상자에 도로 넣고서 잠시 동안 눈을 떼지 않았다. 자신의 하나 뿐인 소중한 것이자 유품이기도 한, 루비 귀걸이.

그것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던 루드비카는 귀걸이의 주인을 떠올리듯 나지막이 입술을 열었다.

“...어머니.”

핏빛 루비만큼이나 아름다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자신의 어머니. 자신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언제나 그 미소를 잃지 않던 자신의 어머니. 그러나 이내, 루드비카는 떠오르는 어머니의 기억을 지워버렸다. 단단히 상자의 덮개를 닫고서 루드비카는 그나마 덜 화려한 자수정의 귀걸이를 들어 귓불에 걸었다. 그리고 핏빛 루비 귀걸이가 있는 상자를 한참이나 보던 루드비카는 손에 들고서 근처의 서랍장으로 다가가, 구석진 곳에다 넣어두곤 클로드가 기다릴 1층으로 향했다.

위스턴 국왕의 다음 후계자로서 특히나 왕당파의 귀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올해로 스물셋이 된, 윌리스 왕태자. 하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지 위스턴 국왕은 라인하르트 후작의 장남인 클로드를 호위기사로 붙여 놓았다. 왕당파 중에서도 왕실에 대한 충성이 드높은 라인하르트 가문. 비록, 당분간이지만 호위기사로 임명된 클로드를 윌리스 왕태자는 아주 흡족했다.

신임할 수 있는 기사이자 기사단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기사 클로드. 왕태자에게 있어 이토록 마음에 들며 클로드 보다 더욱 마음에 들 기사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때문에 클로드의 부탁이라면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던 왕태자는 바로 얼마 전, 클로드의 부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클로드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왕태자는 눈앞에 있는 두 형제를 보고 있었다.

“왕태자 전하, 제 아우를 데려왔습니다. 루드비카, 왕태자 전하께 인사 올리거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왕태자 전하.”

여전히 클로드의 감시 어린 눈이 붙고 있다는 걸 느낀 루드비카는 최대한 절제하듯 왕태자에게 인사를 전했다. 왕태자는 그런 루드비카를 보며 흡족한 웃음과 함께 손을 들어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했다.

“그만 일어나도록. 보아하니 클로드 경이 자네에게 꽤나 눈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형님이 그래서야 쓰나. 클로드 경은 내게 있어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니 그리 예를 차릴 건 없다.”

“감사합니다. 전하.”

“자, 자리에 앉지.”

두 사람 모두 소파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왕태자가 먼저 자리에 앉자 뒤이어 두 형제도 나란히 앉아 테이블 사이로 마주 않게 되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왕태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을 울리며 차를 준비할 시녀를 불러 들였다.

“어떤 차로 마시겠는가?”

“저는 왕태자 전하와 같은 것으로 마시겠습니다.”

뼛속까지 기사 정신인지 아니면 왕태자의 충실한 신하이고 싶은지 차가 다양할 것이 분명함에도 클로드는 선택하지 않았다. 덕분에 왕태자는 더욱 기분 좋은 미소를 보이며 시녀에게 ‘얼 그레이 두 잔,’을 부탁했지만 루드비카는 그런 클로드를 따라할 생각이 없었다.

“저는 홍차로 하겠습니다.”

시녀가 내오는 차를 기다릴 동안 두 형제는 왕태자에게 지난 3년 동안 동쪽에 있었던 이야기 꾸러미를 풀어 놓았다. 대체로 진지하게 이야기 하는 쪽은 클로드였고 왕태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자잘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 건 루드비카 쪽이었다. 한창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세 사람의 앞에 각각 찻잔이 놓아지자 이야기는 잠시 쉬게 되었다.

“그래, 일단 동쪽에 관한 이야기는 클로드 경에게 또 나중에 듣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따로 있지 않았나. 안 그런가? 클로드 경.”

“예. 전하.”

차를 한 모금 들이킨 왕태자는 옥색의 찻잔을 내려놓으며 클로드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본론으로 들어갔다.

“클로드 경에게 말했다지? 내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왕실 도서관 출입에 대한 부탁 말일세.”

“그렇습니다. 전하.”

루드비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다. 그러나 왕태자는 무슨 생각인지 한참 동안 루드비카를 보다, 눈을 좁히고는 그 이유와 또 다른 질문을 건넸다.

“왕실 도서관에 출입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그리고 자네에겐 참 궁금한 것이 많아. 명색의 라인하르트 가문의 피를 이은자가 아닌가? 라인하르트 가문이야 말로 기사 가문에서도 가장 오랜 명문의 무가 가문일터. 그런데 클로드 경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기사 작위를 받지 않다니… 물론, 이런 말이 간섭으로 들리겠지만 나쁘게 듣지는 말게나. 그저 개인적인 궁금증일 뿐이니.”

“아닙니다. 모두가 제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전하께서도 궁금하신 건 당연 하십니다.”

루드비카는 더욱 입꼬리를 올리며 눈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한 템포를 쉬다, 왕태자가 궁금하고 있을 그 이유를 설명했다.

“왕실 도서관에 출입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문학 책을 많이 접하여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 작위를 받지 않는 건...”

루드비카는 살짝 고개를 틀어 차를 마시고 있는 클로드를 보다 다시 고개를 틀어 이어갔다.

“기사 작위를 받지 않는 건, 제가 영 검술에 소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대의 천재소리를 듣는 형님과는 다르게 억울하게도 저는 정말로 검에 소질이 없습니다, 또한 기사 작위를 받으려면 보통 실력 정도는 돼야 하는데 체력도 검술에도 소질이 없는 제가 감히 기사 작위를 받았다간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이신 후작각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기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또… 제 형님을 위해서도.”

“흐음, 그래도 기사 작위를 받으면 나쁠 것이 없을 텐데… 대부분의 대귀족가의 차남들이나 그 밑의 형제들은 어떡해서든 기사 작위를 따내어 가문에 남거나 형제의 밑에서 보좌하려 하지. 그래도 자네 미래를 위해선 어느 가문의 데릴사위로 들어간다 해도 기사 작위는 필요할 텐데?”

“송구합니다,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왕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루드비카에게서 시선을 돌려 버렸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무이유도 없는 고개 짓으로 보일지 몰라도 루드비카는 방금 왕태자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현재 왕당파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 윌리스 왕태자. 국왕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덕분인지 그 기세를 입어 윌리스 왕태자는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국왕의 세력이 아닌, 앞으로 자신의 완전한 세력이 될 권력을 가진 귀족들을 말이다. 때문에 윌리스 왕태자는 권력에 관심도 없고 힘도 없는 자, 특히 자신의 세력이 되지 않을 자에겐 터무니없을 만큼 금방 관심을 끝내 버렸다.

루드비카는 딱히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왕이 될 자는 권력이 필요하고 힘이 없는 자는 필요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왕후의 성격을 많이 닮은 것인지 권력과 야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마지막 남은 한 모금을 모두 마신 왕태자는 탁─ 소리가 나도록 찻잔을 내려놓으며 루드비카가 왕실 도서관에 출입할 것을 허락했다.

“그럼, 자네의 왕실 도서관 출입을 허락하도록 하지. 출입증은 내가 왕실 사서 장에게 따로 말해 둘 터이니 자네가 편할 때 도서관을 들려도 좋네.”

“감사합니다, 전하.”

이제는 본론도 끝났겠다, 클로드와 루드비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왕태자가 마련한 접견실에서 나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노크 소리가 들리면서 세 사람의 시선은 문 쪽으로 향했다.

"왕태자 전하, 케시아 왕녀전하께서 오셨습니다."

“케시아가 이곳엔 왜... 들라 해라!”

왕태자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문 너머로 왕태자와 똑같은 금발머리를 지닌 케시아 왕녀가 들어섰다.

케시아 왕녀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이미 일어나 있던 두 형제는 그녀에게 예를 차리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런 두 형제를 발견한 케시아 왕녀는 싱그러운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받았다.

“어서 고개를 드세요. 저는 그저 오라버니를 만나러 왔을 뿐인데 설마 두 분이 계실 줄은 몰랐네요.”

싱그럽게 웃는 케시아와는 달리, 남자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동생이 마음에 안든 왕태자는 퉁명한 목소리로 케시아를 불렀다.

“그보다 케시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다른 때는 내가 그렇게 불러도 오지 않더니.”

“오라버니도 참.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저는 정말로 제 일에 바빠 오라버니께 찾아가지 못한 것뿐인 걸요?”

한 떨기의 꽃처럼 싱그럽게 웃던 케시아는 농담 섞인 말투로 제 오라버니의 말을 가뿐히 받아쳤다.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그리고 같은 핏줄이여서 인지 두 남매는 왕실에서도 칭찬이 자자 할 만큼 남매의 유대는 돈독했다. 케시아는 제 오라버니에게 생긋 웃다가 녹안을 또르르 굴려 자신과 몇 발자국 떨어진 두 형제의 모습을 보았다. 모든 귀족가의 공녀들이 반려가 되길 꿈꾸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형제. 하지만 케시아의 시선은 줄곧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만 가 있었다.

특히 붉은 머리칼을 가진 단 한 사람을.

“그럼, 이만들 물러가도 좋네.”

케시아 왕녀가 왔으니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왕태자는 지금부턴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내보냈다. 그리고 그것을 정중히 받아든 클로드와 루드비카는 나란히 걸으며 접견실에서 나왔다.

“난 기사단의 일이 있어 다른 장소로 가려한다만…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루드비카.”

“바로 별장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도서관으로 향할 줄 알았건만 별장으로 바로 돌아간다는 루드비카의 대답에 클로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저택에서 보자는 표시로 동생의 어깨를 두세 번 두드린 클로드는 먼저 앞서 걸어갔다. 어차피 나가는 입구의 방향은 같기에 클로드의 뒤를 따라 가려던 루드비카는 언제 나왔는지 바로 옆에서 들리는 케시아 왕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틀 수 밖에 없었다.

“라인하르트 공자.”

케시아 왕녀가 왕태자에게 볼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 볼일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클로드는 멀리 가고 없는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복도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시녀들까지. 자신을 불러준 왕녀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 루드비카는 눈웃음을 보이며 닫고 있던 입술을 뗐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왕녀전하.”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뜻밖의 초대였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 티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데… 공자께선 어떠신지요?”

차가운 적막이 감도는 왕비의 궁전. 헤르세인도, 왕비도 마주 보고 앉아있긴 했으나 보고 있는 시선은 서로 달랐다. 소리 하나 없이 찻잔을 들어 올려 차를 마시는 왕비와 그저 시선을 내리깔고 있는 헤르세인. 그리고 차를 따르는 시녀는 이 차가운 공기가 시려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헤르세인의 눈앞에 있는 차까지 완전히 따라내고서 시녀가 세 걸음 정도 물러나자 드디어 적막이 깨졌다.

“그때의 일은 묻지 않으마. 하지만 네가 반성을 했다 생각하고 묻지 않는 것뿐이니 또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간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

“어찌 대답이 없느냐.”

그날 이후로 자신을 부른 왕비의 호출에 드디어 벌을 받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벌을 받기는커녕 그냥 봐준다는 셈으로 넘어간다는 왕비의 대답에 헤르세인은 살짝 미간을 좁혔다. 찝찝한 기분. 그날 빈센트에게 한 짓은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뺨을 때리기까진 아니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의 것을 멋대로 뺏어간 건 빈센트의 잘못이니까.

하지만 반성이라니? 자신은 아무잘못이 없는데 왜 반성을 해야 하는지 헤르세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당당히 왕비를 보며 답했다.

“전 그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 전 제 행동이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해야 할 사람은 빈센트가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말을 잘도 하는 구나.”

찻잔을 강하게 내리치며 왕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덕분에 찻잔에서 출렁이던 붉은 찻물이 왕비의 소매에 튀었지만 왕비는 개의치 않고 헤르세인을 쳐다봤다. 그 눈빛을 차분하고도 담담히 마주친 헤르세인은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건드는 대답을 내놓았다.

“혹시 제가 사생아이기 저만 트집을 잡으시는 건 아니신지요? 왜 제게만 유독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태생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혼내도 좋고, 잘못을 저지른 빈센트는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찻잔을 잡고 있는 왕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만약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표출한다면 그녀는 이번엔 뺨을 때리는 것 대신 찻잔을 집어던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왕비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마치 왕비로서의 체통을 지키기 위함처럼. 하지만 이미 그 쓰라린 기억을 잊을 수 없는 헤르세인은 왕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입술을 덤덤히 뗐다.

“지금이라도 후회가 되신다면 내치십시오. 어차피 전 왕비전하의 티끌만큼의 진심도 없는 동정으로 이름뿐인 왕녀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 그만 하거라! 너하고 이런 시답지 않은 말싸움을 하고자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다!”

시답지 않은 말싸움이라. 헤르세인은 속에서 쓴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눌렀다. 자신은 진심으로 말한 것인데 정작 왕비는 자신의 말을 시답지 않은 말이라며 치부하다니. 그녀가 당장이라도 이 왕성에서 나가라 말하면 자신은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만큼, 이젠 눈앞의 친모가 ‘어머니’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헤르세인은 더 이상 그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궁전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앉으라는 강압적인 왕비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을 놓아주지 않았다.

“아직 내말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일어나라 했느냐. 당장 자리에 앉거라. 왜 너는─!”

고개를 틀어 헤르세인은 왕비를 보았다. 심연처럼 깊은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파도처럼 일렁였다. 왕비는 감정이 격해져서 인지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런 왕비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본 헤르세인은 생각했다. 혹시 자신에게 끝까지 닿지 못한 말은 ‘왜 너 같은 것이 자신을 이렇게 속 썩이는 것이냐.’란 말이 아닐까 싶었다.

뺨까지 때렸으면서 그 말이 뭐가 어렵다고 왕비는 끝내 입을 열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녀가 어떤 이유로 붙잡듯 결국 다 명령에 불과했다. 헤르세인은 그것을 알기에 다시 고개를 틀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 그렇게 나와 마주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이라도 거기서 듣거라.”

“...”

“얼마 후면 케시아 왕녀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릴 것이다. 드레스와 장신구들은 내가 준비해서 보낼 터이니 연회에 참석해라.”

“예, 왕비전하.”

헤르세인은 더 이상 왕비의 말에 이유를 묻거나 하진 않았다. 지금 상황이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어차피 그녀의 명령은 거절 할 수 없었다. 헤르세인은 왕비의 궁전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왕비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의 뒷모습을 봤을지 예상은 됐지만 상상하진 않았다. 하녀나 시녀 한명조차 없는 홀로 걸어가는 궁전의 길. 헤르세인은 걷고 있던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밟으며 헤르세인은 발길이 닿는 목적지가 없는 곳으로 향했다.

왕태자와 함께 마시던 찻잔과는 전혀 다른 문양과 모양의 찻잔. 특히나 귀족 여인일수록 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다기일수록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다. 짙은 주홍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윤기 나는 찻잔이 눈에 들어왔다. 충분히 계산해보니 이 찻잔 하나만으로도 분명 집 한 채 값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았다.

“혹시 밀크 티는 싫어하나요? 라인하르트 공자?”

이번엔 이 찻잔은 얼마의 값어치 일지, 속으로 값을 매기던 루드비카는 조심스럽게 들리는 케시아 왕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현재 루드비카가 있는 곳은 제4궁인 슈아 궁전. 케시아 왕녀가 머무는 궁전이자 왕후의 궁전 다음으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라 일컫는 곳이기도 했다. 이미 왕태자와의 만남으로 홍차를 한 잔 마신 루드비카는 썩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달달한 밀크 티가 다시금 눈앞에 보이면서 먹음직스러운 왕실의 수제 쿠키까지 눈에 보이니 루드비카는 그 유혹에 조금 넘어가듯 왕녀에게 눈웃음을 보였다.

“아닙니다. 저는 본디 달달한 것을 좋아하는지라 밀크 티 역시 좋아합니다.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왕태자와 있을 때는 클로드가 있어 나름 자제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루드비카를 감시할 클로드가 없었다. 루드비카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밀크 티의 향기를 잔잔히 맡고는 바로 한 모금 들이켰다. 역시, 왕실에서는 최고급의 찻잎을 들이는지 맛은 기가 막혔다.

“왕녀전하께서 내어주신 차라 그런지 향이 진하고 맛이 좋군요.”

“어머, 별말씀을.”

칭찬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케시아는 루드비카의 칭찬에 살짝 볼을 붉히며 생긋 웃었다. 그런 왕녀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보던 루드비카는 다시 한 모금을 마시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주 작게 찻잔의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히려 듣기 좋은 마찰의 소리라 루드비카의 입술은 작게 호선이 그려졌다.

그리고 그 미소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던 케시아는 저도 모르게 그만 루드비카의 호박 빛의 눈동자와 마주치자 다급히 차를 마셨다.

뜨거울 텐데도 그녀는 마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차의 뜨거움은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리기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케시아는 자신의 맞은 편에 앉아 있는 루드비카를 천천히 가득 담아 보았다.

“...”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던 그의 얼굴.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던 그녀의 눈에는 그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이 순간이 좋았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처음 그를 만난 건, 그녀의 성인식이 있던 어느 날이었다.

열다섯이 되면 대체로 성인식을 일찍 치루기 때문에 특히나 왕실의 성인식이 있는 날이면 많은 귀족들이 성인식에 대거 참여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왕후의 입김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연회를 보고 있던 도중, 케시아는 한 청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오늘 같은 날. 분명 자신이 주역임이 틀림없는데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새빨간 붉은 머리칼과 토파즈 일지, 아님 호박일지 분간 되지 않던 아름다운 샛노란 빛의 눈동자.

또, 여인보다 매끄러운 피부며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는 이뤄 말할 수 없었고, 살짝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던 모든 공녀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그 모습을 케시아는 하나도 놓침 없이 볼 수 있었다. 대체 저자는 누구이기에 저렇게 주목을 받는지. 또, 저런 외모를 가진 자를 난생 처음 보게 된 케시아는 이미 성인식을 오래전에 치룬 오라버니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오라버니, 저 사내는 누구인가요? 제가 여태껏 왕실의 연회는 전부 참가했지만 저런 외모를 가진 사내는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오라비인 윌리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쉽게 대답했다.

「저 공자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자제일거다. 저 눈에 띄는 새빨간 머리칼을 가진 사내는 저 공자 밖에 없으니 아마 틀림없을 거다. 근데 난, 저 공자는 별로구나. 사내면 사내답게 다닐 것이지 계집마냥 머리를 기르고 다니다니. 웃는 것도 그렇고 옷차림새도 그렇고… 설마 케시아. 넌 저런 사내가 취향인 것이냐?」

설마 하는 표정으로 아니길 바라는 오라비의 물음에 그때까진 케시아도 그의 존재를 썩 좋게 보지는 않았다.

「오라버니도 참… 저는 저보다 저렇게 눈에 띌 외모를 가진 사내는 별로인걸요? 그리고 제 반려가 될 분은 사브레 왕국의 훌륭한 기사 분이여야 하고요. 저는 듬직하고 사내다운 기사가 제 이상형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긴… 넌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사내가 이상형이라며 노래를 불렀으니까.」

분명,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녀의 이상형은 듬직하며 기사 중에 기사인 사내가 줄곧 이상형 이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들으며 그의 목소리와 함께 가까이서 얼굴을 직접 마주한 순간, 케시아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미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기 때문이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케시아 왕녀전하.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인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왕녀전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신을 향해 생긋 웃던 그 미소와 눈웃음. 그리고 가까이서 본 그의 외모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어찌 이런 사내를 보고도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였다. 그가 참가하는 사교모임이란 사교모임은 전부 찾아가 우연을 가장하며 그의 모습을 쫓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그를 줄곧 쫓으면서 케시아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화려한 전적이 상당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오는 여자는 받아들이되 떠나는 여자는 절대로 붙잡지 않는 남자. 또한, 수많은 여인과 잠자리를 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케시아는 처음으로 미치도록 질투를 감춰야했다. 그는 자신만의 것인데 어째서 다른 여인과 동침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와 잠자리를 했음에도 하나같이 다 떠나는 그녀들의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케시아는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다.

가문을 잇는 장남과는 다르게 차남과 그 밑의 형제들은 혼인을 하기가 어려웠다. 데릴사위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귀족가의 공녀들은 결국 현실을 택하기 마련이었다.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에 대한 야망. 특히나 대 귀족가의 여식일수록 그녀들의 권력욕은 남달랐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서 그는 절대로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한 채로 케시아는 여전히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3년 전, 국왕의 명령을 받고 후작을 따라 동쪽으로 가게 된 루드비카를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마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편지를 보내 그의 소식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를 짝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 또한 고백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케시아로서는 편지조차 보낼 수 없었다. 그러다 드디어 3년이 되서야 수도로 돌아온 루드비카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그가 어디를 향하든 케시아는 조용히 루드비카를 기다렸다. 그리고 하늘이 돕는지 지금 그녀의 눈앞에 그녀가 그토록 연모하는 그가 있었다.

“그동안 공자를 사교모임에서 많이 뵙긴 했지만, 이렇게 둘이서 티타임을 가진 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혹시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는지요?”

옅은 홍조를 보이며 케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교모임에선 그렇게 많이 만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도 가슴이 두근거리긴 했지만, 그것도 단 둘이서 차를 마시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도 기쁘다니. 지금 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슴이 벅차올라 어떻게 정의를 내려 말할 수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케시아의 기분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지 루드비카는 딱 두 잔만 마시고 더 이상 입에 대지 않은 밀크 티를 보며 대답했다.

“왕녀전하의 말씀처럼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나, 저는 오히려 이런 초대를 주시어 더 없이 영광일 따름입니다. 한 가문의 차남인 제가 왕궁을 구경하는 일은 드무니까요.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우신 왕녀전하와 단 둘이 있으니, 오히려 제가 쑥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머, 쑥스럽다니… 공자도 참.”

호호호 웃으며 뺨을 붉히는 케시아 왕녀와는 달리, 루드비카는 그녀를 향해 생긋 웃고 있지만, 뱉어낸 말과 생각은 달랐다. 위스턴 국왕이 가장 아낀다는 케시아 왕녀. 특히나 이미 왕태자비가 있는 왕태자와 달리, 올해 열아홉이 됐음에도 케시아 왕녀에겐 아직 혼인 이야기가 없었다. 귀족들의 말로는 위스턴 국왕이 왕녀를 너무 아낀 나머지 시집을 아직 보내기 싫다는 설도 있지만, 제일 유력한건 위스턴 국왕이 왕녀의 신랑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케시아 왕녀와 혼인을 하게 될 귀족 자제는 분명 미래의 윌리스 왕태자의 힘이 되어줄 것이 자명했고, 왕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왕실의 핏줄을 이어받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국왕은 왕태자와 왕녀를 위한 미래의 길을 만들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국왕이 제 아무리 왕녀를 극진히 아낀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똑같을 수 없었다. 또한, 루드비카는 케시아 왕녀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 채고 있었다.

자신에게 접근하는 수많은 공녀들과는 다른, 온전히 사랑받기를 원하는 연모의 시선. 만약 그녀가 왕녀가 아니었다면 루드비카는 이미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케시아 왕녀는 누가 봐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만큼 아름다웠고 사교계의 꽃과도 같은 존재이니까. 그런 사교계의 백합과도 같은 꽃을 꺾는다는 건, 어찌 보면 영광이 아니던가.

하지만 상상과 현실은 달랐다. 제 아무리 그녀가 저를 향해 연심을 품고 있다 해도, 결국 그녀는 국왕이 가장 아끼는 하나 뿐인 왕녀에 불과했다. 국왕이 찾는 이상적인 신랑감에 있어 차남인 자신은 눈에 차지도 않을 이상적이지 못할 신랑감이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국왕폐하께서는 오래전부터 클로드 형님을 염두 해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래전, 우연히 후작의 집무실을 지다던 도중 루드비카는 손님으로 온 어느 귀족과 후작의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이보게 라인하르트 후작, 국왕폐하께서 자네 아들인 클로드 공자를 케시아 왕녀전하의 배필로 생각하시고 계신다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폐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 해도, 사람의 일은 모르는 일일세.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테지. 그러니 난 그런 이야기는 믿지 않네.」

당시, 후작은 부정했지만 몰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꽤 기뻐하는 듯한 목소리이기도 했다. 클로드와 케시아 왕녀의 혼인. 그야말로 국왕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혼인이자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두 쌍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독이 있다고 해야 할까… 케시아 왕녀는 분명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꺼려져.’

어떤 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왕녀를 보고 있자면 루드비카는 다른 여인들처럼 그녀를 대하기가 좀 꺼려졌다. 왕녀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꺼려지는 기분.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도 루드비카는 이 자리가 좀 불편했다. 왕태자보다 더 말이다. 하지만 왕녀가 먼저 티 파티를 초대했고 어느 누가 감히 그녀의 티 파티 초대를 거절 할 수 있을까?

싫어도 싫지 않은 척. 루드비카는 평소 때 보다 더욱 거짓을 숨긴 미소를 보여주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왕녀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만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녀전하의 궁에 그것도 사내인 저와 단 둘이서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좋지 않은 이야기가 퍼질 것입니다.”

“이런, 제가 그 생각까지 미처 못 했군요.”

“아닙니다, 왕녀전하. 티 파티에 초대해주시어 영광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공자. 아, 그러고 보니 제가 한 가지 깜박했군요!”

이제 막 자리에 일어나려던 찰나, 무언가 생각났는지 다급하게 외치는 케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루드비카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를 보자, 그녀는 잠시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더니 이내 테이블 위로 금박의 장식이 된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루드비카의 물음에 케시아는 더욱 진해진 홍조를 하며 부끄럽다는 듯이 대답했다.

“초,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이라니… 그 말씀은?”

“며칠 후면 저의 생일이랍니다. 폐하께서 제 생일날 성대한 연회를 여신다하니, 부디 라인하르트 공자도 그날 참석해 줬으면 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던가? 루드비카는 왕녀가 내민 초대장을 조용히 쳐다보다 이내 받아들였다. 요즘 들어 사교모임이 적은 것도 있지만, 크게 마음을 흔들 연회가 적어 지루하던 참이었다. 비록 왕녀의 탄생일이란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왕실의 연회는 빠질 수 없기에 루드비카는 그 초대장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왕녀전하. 그럼 그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공자도 분명 만족할 연회가 될 겁니다.”

왕녀가 건네준 초대장을 고이 품속에 넣고서 슈아 궁전에서 나온 루드비카는 이젠 정말로 별장으로 돌아가고자 되도록 걸음을 빨리 움직였다. 한참을 걷다 거의 왕성 바깥으로 나가는 입구가 보일 때쯤, 루드비카는 잘 걸아가고 있다가 지나가던 시녀들의 떠드는 목소리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헤르세인 왕녀가 아라네아 왕비전하의 궁전에서 나온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나?”

“아아, 맞다. 그래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던 왕비전하의 시녀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케시아 왕녀전하의 탄생일이라 하잖아. 그것 땜에 불렀다 하더라고. 별다른 건 없더라.”

“그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사생아라 할지라도 왕비전하의 핏줄이잖아. 정작 중요한 일을 빼곤 아예 딸 취급도 안하시니 말이야.”

“우리 같은 시녀가 왕비전하의 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어.”

시녀들은 지나가다 눈이 마주친 루드비카를 보며 잠시 멍 때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곤 후다닥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반면 루드비카는 두 시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헤르세인 왕녀의 존재가 문득 궁금해졌다.

‘저번 환영식 때, 얼굴을 비췄다고는 들었는데… 결국 나는 못 봤지만.’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헤르세인 왕녀의 존재. 그러나 하필, 환영식 날 이상하게도 연회가 지루해보여 루드비카는 처음부터 다른 장소에 있었다. 모두가 말하는 헤르세인 왕녀. 루드비카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범히 궁금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순식간에 잊혀졌다. 오히려 그날 처음만나 자신에게 귀걸이를 주워주던 이름 모를 그녀를 떠올리자, 루드비카의 입가는 저절로 진한 미소가 그려졌다.

‘그러고 보니… 그날 왕성에서 처음 만났었던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왕성 성문 앞을 나가면 별장으로 돌아가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왠지 모를 기대감을 품으며 오히려 뒤를 돌았다. 왜 일까. 그녀를 떠올리니 이 성안에 그녀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루드비카는 다시 성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분히 주변을 둘러보며 그녀의 그림자를 찾듯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봐도 마치 허상이었던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포기해야하나 싶을 때쯤, 루드비카는 흰 장미가 가득 핀, 이름 모를 정원에 발을 딛고 있었다.

왕성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루드비카는 흰 장미들을 구경하듯 둘러보다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저 멀리 있음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 그리고 벌써부터 가슴까지 차오르는 반가움. 루드비카는 확신했다. 틀림없는 그녀임을.

헤르세인은 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어디가 어느 궁전이고, 또 어디가 어느 곳의 정원인지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궁전이 아닌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을 뿐인데 도착한 곳은 인적이 없는 작은 정원. 처음엔 구름 정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야에 닿는 곳이 전부 백색이었다. 그러나 바람에 몸을 맡기며 구름이 게이듯 하얀 꽃잎들이 흔들리자 그제야 그것은 구름이 아닌 하얀 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얀 꽃의 정원인지 꽃송이가 활짝 만개하여 탐스러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멍 하니 하얀 꽃들만 봐서인지 헤르세인은 머릿속조차 하얗게 백지장으로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하얀 백지장처럼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고 머리를 비우니 머릿속의 답답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

헤르세인은 문득 그 하얀 꽃을 꺾어보고 싶은 마음에 허리를 숙여 손을 꽃줄기까지 가까이 가져다댔다. 그리고 가시를 피해 조심스럽게 꽃을 꺾으려던 순간, 세 번째로 들린 익숙한 목소리에 꽃을 꺾으려던 손끝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건 우연인가요? 아님 운명일까요? 그것도 아님… 필연?”

인기척이라도 내고 다가왔으면 좋았을 텐데….

헤르세인은 그의 목소리 덕분에 손가락의 끝은 잠깐의 놀람으로 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가시는 상당히 날카로웠는지 어느새 검지손가락의 끝은 붉은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헤르세인은 결국 꽃을 꺾길 포기하고 굽히고 있던 허리를 반듯하게 펴냈다.

그리고 그가 눈치 채기 전에 자연스럽게 가시에 찔린 손가락을 뒤로 숨겨버렸다.

“우연이라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갔으면 됐을 걸….”

둘째 날은 정말 어쩌다가 또 우연히 만났다 쳐도, 그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마주치는 것이 헤르세인은 썩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그녀의 매정한 목소리에도 입가는 자연스럽게 호선을 그리고 있었다.

“어째서죠? 혹시 자꾸 제 얼굴 보면 생각날까봐 그런 건가요? 아이참,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전 하네… 그 뻔뻔함은.”

이미 그의 성격을 대충 파악했다. 어떤 말을 뱉어내든 단 한 번도 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다시 피곤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곳은 많은 눈들이 있는 왕성. 바깥이라면 몰라도 저 멀리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치자 헤르세인은 더 이상 루드비카를 상대하지 않으려 했다.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듯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이놈의 손목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다시 그에게 쉽게 붙잡히고 말았다.

“저랑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까?”

“안 해. 그리고 불쾌하니까 이 손 놔.”

헤르세인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듯 무조건 부정적으로 대답할 생각이었다. 전처럼 그에게 끌려 다니는 것도 싫었고 그의 눈을 보고 있자면 마치 무언가를 집요하게 보는 것 같아 루드비카랑 같이 있으면 껄끄러웠다. 그래도 이번엔 힘을 안주고 있었는지 헤르세인은 그가 잡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니, 그건 속임수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이번엔 손이 전부 잡히면서 가시에 찔린 손가락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치료라도 해드리죠. 이 상태로 있다간 상처가 덧날 겁니다.”

이슬처럼 맺혀있던 핏방울은 처음과 달랐다. 손가락을 타고 피눈물을 흘리듯 핏방울이 주르륵 떨어져 내려 살짝 비위가 좋지 않은 기분을 만들게 했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루드비카를 보았다. 고작 손가락에 난 상처 따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신도 신경 쓰지 않을 상처를 어째서 이렇게까지 그가 신경 쓰는 걸까?

어릿광대마냥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건 여전했지만, 손을 잡고 있는 힘은 여전히 부드러우면서도 강했다. 헤르세인인은 그런 루드비카를 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크게 신경 쓸 상처가 아니야. 고작 가시에 찔렸을 뿐이고 고작 핏방울 몇 번 흘렸을 뿐이니까. 그러니 이깟 상처로 덧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하지만 헤르세인의 대답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루드비카는 상처 따위 우습게보지 말라는 투로 잔소리처럼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런 상처는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이런 자잘한 상처가 나중에 큰 상처가 되고 병이된다는 걸 모르시군요. 또, 이런 상처일수록 빠르게 치료해야 피부에 상처자국도 남지 않답니다.”

“글쎄 나는──.”

“후우… 제가 계속 말만 늘어놓는 것보단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는 편이 낫겠죠.”

“그게 무슨──! 자, 잠깐만! 뭐하는 거야!”

처음에는 손가락을 얼굴가까이 가져가다니 무엇을 하나 싶었다. 그런데 점점 손가락이 그의 입술 가까이로 다가가면서 붉은 입술이 벌려지자 헤르세인은 있는 힘껏 끌어당기는 힘을 저지시켰다.

“응급처치라고 말씀 드렸을 텐데요?”

“그, 으, 응급처치가! 설마… 내 손가락을 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처음으로 겪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헤르세인의 머릿속에는 지금 루드비카가 하려는 행동의 단어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았다. 거의 대충 끼어 맞추기 식으로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히려 그 표현을 들은 루드비카 역시 당황스러웠다.

손가락을 먹는다니…. 아마 그런 표현을 쓰는 여인은 그녀 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그 표현도 썩 나쁜 표현은 아니라 생각했다. 핥거나, 빨거나, 물거나, 먹거나 어차피 행동은 비슷하니 말이다. 오히려 먹는다는 표현에 묘한 느낌이 든 루드비카는 짙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입술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로 입술을 움직이며 루드비카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짓궂게 물었다.

“먹는다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아가씨의 손가락을 물어 버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핥은 다는 건...”

“그, 그만!!”

거의 손가락을 입술가까이 가져가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손가락을 핥으려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자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정말 심각하게 당황한 모습을 하며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밀치고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호하듯 꼬옥 끌어안았다.

“미, 미쳤어?! 지, 진짜로 머, 머, 먹으려 했어!”

거의 사색이 된 표정으로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와의 거리를 더욱 벌렸다. 덕분에 정말 몹쓸 남자로 찍힌 루드비카는 자신의 장난이 지나쳤다 인정하며 두 손을 들었다. 일종의 항복 겸 그녀에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미안함이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장난이 심했네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제가 더 상처 받을 것 같네요.”

루드비카는 두 손을 들어 그녀에게 사과를 했지만, 헤르세인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의 모습은 진심이 없어 보였다. 애초에 그가 어떤 사과를 하든 진심이란 게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헤르세인은 제자리에 꼼짝하지 않았다. 결국, 루드비카는 안 되겠다 싶어 품속에 넣어둔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 보이는 손수건이었다.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단 일초의 망설임 없이 하얀 손수건을 찢어, 다른 쪽의 손수건을 품에 넣고선 대답했다.

“자, 이제 정말로 손수건으로 치료해 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거짓말.”

헤르세인은 한번 의심 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았다. 단호히 거절하며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곤란하다는 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그녀에게 이런 장난을 쳤다간 정말로 변태로 몰려 두 번 다시 안볼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겨우라고 말하기엔 어감이 아직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벌써 그녀와 만난 횟수는 세 번째였다. 그가 만난 여인들과는 거의 반대성격을 지닌 그녀.

말을 섞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친해지는 것도 여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들고양이처럼 처음엔 찬바람이 횅하니 불만큼 매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만남. 정말로 우연히 만나 식사까지 하게 되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다른 여인들처럼 드레스와 장신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 마치, 눈앞에 있는 음식을 난생처음 먹어보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물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루드비카의 눈엔 그것이 잘 보였다. 그리고 마카롱이 비싼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맛보자 생전처음 맛보는 달콤함에 눈을 빛내던 그 모습. 다른 여인들에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녀에겐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씩 보여줄 때면 그녀는 호기심 어린 아이처럼 다가왔다.

처음엔 타인의 손길을 경계하지만, 계속 얼굴을 비추고 해치지 않겠다는 두 손을 보이면 어떤 들고양이도 결국 다가오기 마련.

하지만 그녀는 들고양이보다 더한 야생의 살쾡이와도 같았지만 루드비카는 그녀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꾸만 만날수록 흥미롭고 그녀의 반응을 보고 있자면 즐거웠다. 과연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놀라게 할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흥미를 돋게 할지. 그런데 괜한 장난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루드비카는 정말로 미안한 표정과 함께 찢어낸 손수건을 보여주며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정말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손을 주세요. 상처를 계속 내버려두면 쓰라리고 아플 겁니다.”

“...”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님 장난이 섞인 거짓인지 판별하기 위해. 그런데 정말로 진심인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지만, 한 없이 진지한 그의 표정에 헤르세인은 굳어 있는 두 다리를 조금씩 움직였다. 그리고 루드비카와 가까운 거리가 됐을 때, 상처가 난 손가락대신 손바닥을 내밀었다.

“응급처치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 그건 내게 줘. 내가 할 테니까.”

아쉽다는 루드비카의 표정이 보였지만, 순순히 그녀의 손바닥 위로 찢어낸 손수건을 내려놓았다. 그 손수건을 받은 헤르세인은 조용히 다른 손을 움직여 붕대를 감듯 손수건을 감기 시작했다. 하얀 면이라 그런지 붉은 핏물이 하얀 면 위로 붉은 꽃이 피어나듯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면을 둘둘 감아 겹칠수록 핏자국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쯤, 헤르세인은 매듭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바로 눈앞에 지켜보고 있어서인지 아님, 오랜만에 한 손으로 감아봐서 인지 매듭은 쉽게 묶여지지 않았다.

몇 번이나 묶어 봐도 도로 풀리는 매듭에 헤르세인은 슬슬 곤란해지던 찰나, 매듭 위로 낮선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양 끝을 조심스럽게 잡아 루드비카는 너무나 쉽게 손수건의 매듭을 지었다.

“다 됐습니다.”

“...”

“고맙단 말씀은 안 해 주실 건가요?”

“고… 마워….”

생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해본 적 없는 말. ‘고마워’란 말이 이토록 어려운 말인가 싶었다. 슬럼가에 있을 땐 누군가에게 고마움이란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애초에 고마움이란 마음을 느낄만한 곳도 아니었고, 모두가 적인 그곳에서 제 몸 하나 살기 바빴으니까. 자신을 왕녀로 만든 왕비에게 조차 고마움 따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깟 상처 치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고작 매듭한번 묶어줬을 뿐인데, 고맙다는 말은 물론 이런 사소한 것에 고마움 느낌이 들다니.

왠지 그런 말을 뱉어낸 제자신이 낯설고도 부끄럽기도 하며 한편으론 고마움이란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루드비카를 올려 보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루드비카 쪽이 더 놀랐는지 동그랗게 커진 눈동자를 하다, 이내 경쾌히 웃으며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하하하! 이건 좀 의외네요. 설마 아가씨께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그럼 다시 취소할까? 헤르세인은 저렇게 웃는 루드비카를 보고 있자니 괜히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고픈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미 뱉어낸 말이었고, 주워 담기에는 늦어버렸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만큼 고작 사소한 일임에도 작게나마 고마운 건 사실이었으니까. 이상하게 그에게서 받는 것이 많은 것 같았다. 마카롱도 그렇고 매듭도 그렇고.

‘아, 그러고 보니 마카롱... 차라리 마카롱은 생각하지 말자.’

망가진 마카롱을 버리던 그 날이 떠올라 헤르세인은 금방 그 기억을 지워냈다.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자 먹기조차 아까워 그저 보기만 하던 마카롱. 포장지조차 예뻐 뜯기도 아까웠던 마카롱. 결국 그 날은 먹지도 못한 채 괜한 자존심으로 버리긴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루드비카에겐 은근히 미안한 일이었다. 물론, 그 사실을 헤르세인은 말 할 생각이 없었다. 그에겐 괜히 미안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무슨 자존심인지 몰라도 루드비카에겐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튼… 그럼 난 가보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 정원에 있는 시간도 꽤 지나지 않았을까 싶었다. 헤르세인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이 모습을 보이기 전에 궁전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자, 잠깐!”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남자와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인지 쉽게 보내주는 법이 없는 것 같았다. 헤르세인은 어서 말해보라는 얼굴로 루드비카를 기다렸다. 그러자 루드비카는 정말로 무슨 생각인지 상쾌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던가.

“혹시, 그 고마움의 보답으로 제게 이름을 알려주실 생각은….”

“그럼, 이만.”

혹시나 했지만 그는 어떤 면으로 끈질겼다. 저번에는 분명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그 말을 꺼내다니. 이정도면 거의 집착수준이 아니던가. 결국 이번에 조차 단칼에 거절당한 루드비카는 숨을 쭉 내쉬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체 어디서 나오는 활력인지 금방 원상복귀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나고 싶지 않은지 이름은 포기해도 다른 건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럼 다른 걸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가씨는 시녀인가요? 아님, 귀족 인가요?”

“...뭐?”

“그것도 아님, 혹시 ‘헤르세인’ 왕녀전하이신가요?”

헤르세인은 그가 귀족이냐고 물을 때까진 태연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헤르세인 왕녀전하’라고 나온 순간, 순식간에 온 몸이 굳어지고 말았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왕녀라고 대답하면 그는 어떻게 변할까?

헤르세인은 가까스로 표정을 유지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를 더 이상 만나지도 마주치지도 않을거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계속 마주치게 되어버렸다. 마치, 하늘이 제멋대로 간섭하는 것처럼. 몇 번이고 다짐했음에도 그것은 필연처럼 헤르세인은 벌써 그의 얼굴을 세 번째나 보게 되었다.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상, 그와는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이상한 호의를 보이는 그였다. 여전히 그가 어떤 속마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를 보고 있자면 거짓하나 없는 진심 같아 보여 헤르세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가 망설여졌다. 자신의 정체가 밝히기 전과 밝힌 후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되면서도 손이 뒤집히듯 사람은 언제든 자신이 생각한 것과 뒤 바뀌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결국 제 정체를 숨기길 택했다.

“당신 의외로 멍청하네. 내가 왕녀로 보인다니.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 내가 왕녀로 보일정도면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나는──.”

“…나는?”

“나는… 귀, 귀족이야! 난, 지방 출신의 귀족… 이라고.”

이정도면 먹혀들었을까? 얼핏 그의 얼굴을 봤음에도 속내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루드비카는 다음 질문을 했다.

“귀족이었군요. 그럼, 또 한 가지. 어느 작위를 가진 귀족 가문의 아가씨인가요?”

루드비카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생긋 웃으며 그녀가 차분히 답해주길 기다렸다. 반대로 스스로를 비하하며 귀족이라 대답한 헤르세인은 제 자신을 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못할 수 있을까, 하며 말이다. 그래도 그 거짓말은 통하는 것인지, 오히려 납득했다는 표정을 보이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안심을 하며 서둘러 다음 거짓말을 생각했다.

“어느 작위의 귀족 가문인지, 거기까지는 알려주실 수 없는 건가요?”

“남작… 가문. 남작가문 출신의… 시, 시녀!”

“남작가문의 시녀라...”

본인의 아랫입술을 검지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루드비카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초조함을 느낀 헤르세인은 두 손이 젖을 만큼 땀이 축축하게 베여있었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루드비카는 요염이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입술을 움직였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뭐, 뭐가?”

“남작가문이라 밝히셨으니 하는 말인데, 작위는 제 가문이 높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말을 놓아도 이상하지 않고, 반대로 당신은 제게 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후작가의 아들이고, 당신은 남작가문의 딸이니까요. 또, 시녀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냥 후작가문이라 할 걸 그랬나? 하지만 후작가문의 딸이라 하기엔 자신의 모습은 평민차림이나 다를 바 없었다. 거기다 어딜 봐서 후작가문의 딸처럼 보일까. 그리고 루드비카의 말은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었다. 그는 후작가의 자식이었고, 남작가문의 딸이자 시녀라 외친 자신은 그에게 말을 놓아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높임말을 쓰기엔 어색하고 반말을 하기엔 눈치가 보이고.

헤르세인은 슬쩍 뒷걸음을 치며 루드비카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반면 루드비카는 처음부터 헤르세인의 모습을 빠짐없이 보고 있었다. 그저 농담 삼아 한 말인데 벌써부터 자신의 눈치를 보는 그녀를 보니 웃음이 계속 나왔다.

‘그래서 환영식 때 참석했던 건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은데... 뭐, 그래도 재미있으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 해줄 수밖에.’

여전히 그녀가 어떤 식으로 환영식에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금도 그녀가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란 것도 루드비카는 눈치 챘지만, 꽁꽁 비밀을 숨기고 싶어 하는 그녀를 위해 모른척하기로 했다. 언젠가는 그녀가 본인 스스로 대답해주기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지만 아가씨는 제가 특별히 모르는 척 해드리죠. 저는 아가씨가 제게 말을 놓아도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젠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

보통이면 궁금해 미치거나 아님 기분 나쁘다며 예를 차리길 원할 텐데, 이 남자는 대체 뭘까.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다리며 너무도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걸까. 헤르세인은 그날 처음으로 루드비카란 남자를 제대로 보았다. 언제나 귀찮듯이 먼저 피하던 시선이 아닌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진지함으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 그곳에는 아직 어린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빛 한줄기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근처에는 작은 불꽃이 일렁이는 횃불이 있었지만, 그 어둠을 전부 밝혀줄 빛은 되지 못했다. 오히려 빛이 어둠에 삼켜진 듯 횃불조차 빛이 희미했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주변을 보았다. 새카만 어둠속에 눈동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지 희미한 사물의 모습은 보였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두려운지 저마다 몸을 웅크리며 바들바들 떠는 것이 보였다. 어린 그녀조차 처음 겪은 상황. 도무지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도가 보이지 않았다. 사방은 암흑에 드리워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알 수 있었다. 눈앞에 있는 철창이 열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면서 어둠을 걷어내는 빛 무리가 아이들 앞으로 쏟아져 내렸다.

오랜만에 보는 그 빛에 헤르세인도 아이들도 적응이 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 빛 속으로 걸어 나오는 세 남자의 모습에 금방 상황파악을 했다. 저 남자들이 바로, 자신을 이 철창 안에 가두어버린 남자들임을.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들의 등장으로 한 아이는 무슨 희망을 품었는지 철창 밖으로 손을 뻗어 외쳤다. 살려달라고, 여기엔 있기 싫다고.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잡아가지 말라고. 하지만 아이의 외침에 빛이 있음에도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샛노란 이를 드러내며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남자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래, 그럼 이 아저씨가 착한 아이의 부탁을 들어줘야겠지? 키키킥. 얘들아 오늘은 저 아이다.」

부하들은 아이들이 갇혀 있는 철창으로 다가왔다. 한 부하가 굳게 잠겨 있는 자물쇠를 따며 문을 열자, 다른 부하는 남자가 지목한 그 아이를 철창 밖으로 끌고 나왔다. 남자에게 살려 달라 외친 아이는 여전히 헛된 희망을 품은 채로 남자를 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말을 들어준 그 남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듯 아이는 밖으로 나오자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아이의 미소는 남자의 말이 떨어지자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다.

「낙인을 가져와. 아주 뜨거운 걸로.」

「사,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제 부탁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이는 현실을 도피하듯 외쳤다. 그러자 남자는 더 기괴해진 웃음소리를 내며 부하에게서 받은 잘 달궈진 인두를 들고서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남자가 아이의 곁으로 다가갈수록 여전히 철창에 갇혀 있는 아이들은 그 두려움에 뒷걸임질을 쳤고,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 제 손으로 눈을 가린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속에 헤르세인은 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바깥에 있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이미 뒤는 철창으로 막혀 도망조차 칠 수 없어 아이는 계속 뒤로 엉덩이를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 양쪽 손을 잡힌 아이는 순식간에 위통이 벗겨지면서 강제로 맨살의 등이 보여 졌다. 그리고 남자는 미치광이처럼 웃으며 아이의 등 중심에 새빨갛게 달궈진 인두를 대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아아아아악! 악! 아아아아악!」

살이 타는 냄새와 살이 지져지는 소리. 그리고 고통어린 비명. 이미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아이들은 더는 볼 수 없어 제각각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눈을 돌릴 수 없었다. 헤르세인이 그곳에 붙잡혀 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시선을 돌릴 틈조차 없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보게 만드는 것처럼 헤르세인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남자는 낙인을 찍은 인두를 바닥에 버리더니 부하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걸 가져와.」

부하는 남자의 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가지고 있었는지 금방 대령했다. 남자가 부하에게서 받은 것은 무언가를 뚫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뾰족한 것은 물론 숫자가 적힌 종이가 걸려 있었다. 남자는 그걸 보고는 씨익 웃고선 철창으로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너희들도 이걸 보렴. 이게 뭔지 아니? 여기에 오래 있었던 몇몇 아이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아이들도 있으니 내가 알려주마. 이건, 너희들을 평생 노예로, 인간도 아닌 가축으로서의 증표인 노예 고리다! 이걸 끼는 이상, 뺄 수도 없으며 죽을 때까지 낄 수밖에 없는 노예 고리란 소리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고리를 끼어주는 거지! 키키킥! 크하하하하!」

남자는 반쯤 미쳐있었다. 그 모습이 흡사 미치광이와도 같아 아이들은 그 모습에 더욱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남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란 듯이 낙인을 찍은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 외쳤다.

「이게 다 네놈들이 노예가 되는 과정이다! 무서워 할 것도 없어! 어차피 네놈들은 전부 슬럼가에서 태어나 버려진 놈들이니까! 슬럼가에서 사나 노예가 되나 둘 중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 결국 이게 너희들의 운명이란 거다! 노예가 되는 운명 말이다!!」

남자는 광기에 물든 웃음소리와 함께 손을 번쩍 들었다. 번쩍 든 그 손을 빠르게 아이의 바깥귀 쪽을 찌르자 아이는 비명소리와 함께 기절하고 말았다. 그 뒤로, 아이들은 두려움보단 더욱 공포감에 몰려 어떤 아이는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렸다. 하지만 남자와 그의 부하들은 매일같이 찾아왔고, 철창 안에 갇혀 있던 아이들도 그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예 낙인이 찍히는 그 과정과 비명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 헤르세인의 차례가 왔을 때, 어린 그녀는 힘이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자, 이제는 네 차례구나. 키키키킥.」

양 손을 꽁꽁 붙잡힌 채, 불에 달궈진 인두가 눈앞으로 다가올 때의 극심한 공포와 남자의 기괴한 웃음소리. 극심한 공포에 몸은 무력하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점점 인두는 눈앞까지 다가오고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오고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너도 이제 노예가 되는 거다! 크크큭! 크하하하하!」

그 순간, 인두가 피부에 닿으면서 살이 타는 냄새와 소리가 헤르세인을 미치게 만들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 헤르세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아아아아악!”

거친 숨을 뱉어내며 헤르세인은 눈을 떴다. 아직 해조차 뜨지 않은 깊은 새벽. 땀방울이 머리에서 턱까지 내려가 손등으로 툭 떨어진 순간, 몽롱하던 의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헤르세인은 다급히 자신의 몸과 얼굴을 확인하듯 이리저리 고개를 움직였다. 그리고 한참이나 더듬어 봤음에도 보이지 않는 낙인에 그때서야 헤르세인은 안도 할 수 있었다.

“하아, 하아… 꿈 이었어… 꿈...”

콰르릉─!

그때였다. 콰르릉 소리를 내며 창밖이 번쩍이더니 또 다시 거대한 소리로 바깥을 울렸다. 번개가 내려치는 소리. 하늘이 노하기라도 했는지 번개를 내려치며 거친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헤르세인은 숨을 고르며 털썩 제자리에 다시 누워버렸다.

“악몽 이었어… 악몽… 다행이다….”

악몽에 질려 있던 몸은 서서히 진정이 됐는지 식은땀으로 인해 몸이 차게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왕성에 들어오고 난 후, 잘 꾸지 않던 그 악몽을 다시 한 번 꿔보니 헤르세인은 얼굴을 일그러트리고 말았다.

“만약 그때, 노예 인장이 찍혔다면…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듯 헤르세인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온 몸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자국들이 있기는 했지만, 유일하게 없는 노예 인장의 모습에 감사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노예 인장이 찍혔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람취급은커녕 어딘가로 팔려나가 슬럼가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희망조차 못 품었을지도 몰랐다. 작은 그 꿈조차 내려놓으며 노예란 현실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을 현실에.

그렇게 절망적이던 순간이었지만, 헤르세인은 결국 살아남았다. 그곳에 갇히면서 노예 인장이 찍히는 수많은 또래 아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헤르세인은 살아남았다. 때문에 더욱, 악에 받쳐 필사적으로 슬럼가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건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돌려 비로 홀딱 젖어 눈물을 흘러내리는 창가를 보았다. 가장 싫어하는 날씨이자 그 악몽을 다시 꾸게 만드는 기분 나쁜 천둥소리와 빗소리. 덕분에 또 다시 악몽을 꾸지 않을까 겁이 난 헤르세인은 미간을 좁혔다. 어차피 잠도 별로 없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 셈이었다. 특히, 이런 악몽을 꾼 날일수록 밤잠을 설치기에 헤르세인은 침대 근처에 있던 촛불을 켰다.

흔들리지 않는 곧은 촛불의 모습. 그 작은 빛을 보며 헤르세인의 얼굴은 유독 어둡게 가라앉았다.

깊은 새벽의 밤. 그토록 번개와 비가 몰아칠 때는 언제고 아침 해가 뜨자 순식간에 숨어버리듯 번개와 비는 조용히 사라졌다. 햇빛을 받아 꽃잎이며 나무들은 이슬을 머금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다. 한 밤의 갑자기 쏟아져 내린 비로 인해 왕국의 땅은 축축이 기름지게 물들었지만, 물은 빠르게 흡수되듯 점심쯤이 돼서야 그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왕실 도서관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내려온 루드비카는 그만 1층에서 후작과 마주치고 말았다. 오늘은 상당히 늦게 출근을 하는지 평소보다 늦은 시간임에도 저택에 있는 후작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생글생글 웃으며 늦은 아침 인사를 전했다.

“아직 안 나가셨군요.”

“어딜 가려는 것이냐.”

“왕실 도서관에 가려 합니다.”

“왕실 도서관 이라고?”

후작은 미간을 좁히며 제 아들을 보았다.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방랑한 아들. 후작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루드비카의 옷차림을 보고서 그것이 진짜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평소 같으면 화려하기 짝이 없는 옷차림일 텐데 생각보다 차분하고도 단정한 모습에 후작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왕실 도서관에는 왜 가는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가 그곳에는 왜? 그리고 거길 가려면 절차가 필요할 텐데?”

“아, 그건 이미 클로드 형님께서 왕태자 전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전하께서 흔쾌히 허락해주셨지요. 언제든 왕실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말이죠.”

후작은 루드비카가 절차를 밟아 왕실 도서관에 가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엔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이란 이유만으로 호감을 보이며 다가온다고는 하지만, 후작은 달랐다. 자신의 아들이긴 하나 똑 부러지게 제 할 일을 하는 클로드와는 달리 루드비카를 보고 있자면 철부지이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방랑한 아들 같았다. 클로드와 같은 기사가 되어 제 형을 보좌하면 얼마나 좋던가. 그러나 보좌는커녕 아예 검조차 잡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후작도 이미 반쯤은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 차남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왕실 도서관에 가서 무얼 한다고는 하니, 후작은 말리지 않았다. 그게 무엇이 됐든 왕성을 자주 드나들수록 사람의 생각은 바뀌기 마련이니까. 후작은 뒤 따라오던 하녀에게서 준비된 지팡이와 검은 망토를 걸치고서 건조하게 대답했다.

“나도 마침, 나갈 일이 있으니 내 마차를 타거라.”

그렇게 말하곤 후작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거절의 의사 따윈 듣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뒷모습을 하며 저택에서 나가는 후작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옅은 숨을 쉬며 뒤를 따라갔다. 마차에 올라 후작은 지팡이를 들어 올려 살짝 마차의 천장을 툭툭 치자, 그 신호를 들었는지 마부의 ‘이랴’소리가 들리면서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적에 감긴 마차의 내부. 오늘따라 조용한 후작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살짝 의아했지만 먼저 입을 열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침묵이 이어질 때쯤, 후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전히 기사 작위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냐?”

예상은 했지만 이번에는 말투가 어딘지 너그러워진 후작의 목소리였다. 루드비카는 그런 후작을 빤히 쳐다봤지만 후작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에서 변함이 없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늘 그렇듯 루드비카는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여전히 제가 기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루드비카의 물음에 후작은 단 몇 초의 망설임 없이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 난 네가 클로드처럼 기사가 되길 원한다. 하지만.”

“…하지만?”

방금 전까지 단호히 대답하던 후작은 나직이 숨을 뱉어내며 루드비카를 보았다. 자신만큼이나 강한 고집을 부리는 아들. 클로드와는 전혀 딴판인 둘째이자 한때, 그가 너무도 사랑했던 그녀의 핏줄이자 그녀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기사가 되길 바라는 아비의 마음과 달리, 어미처럼 루드비카는 그녀를 닮아가려 하고 있었다. 자유로움도 고집도 성격도. 처음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성격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자신이 아닌 그녀를 빼닮으려 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보니 후작은 정말로 포기해야하나 싶었다.

아니, 이젠 포기해야할 것 같았다.

“하지만… 네가 그리 정 원하지 않으면 더는 네게 기사가 되라 권유하지 않으마.”

“정말입니까?”

루드비카는 여전히 웃고는 있지만 말투는 못 믿겠다는 투로 뱉어냈다. 그럼에도 후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었다.

“단, 내가 정해준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해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나 했더니 이번엔 혼인이라니. 루드비카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픽 웃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후작은 루드비카가 그렇게 웃는 이유를 알기에 따로 대답하진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표정으로 후작으로서 제 아들의 혼인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었다.

“기사가 되기 싫다하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혼인 밖에 더 있겠느냐. 이제 네 나이 스물 둘이다. 네 형은 기사란 위치와 후계자 승계로 늦어진다 해도 넌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서둘러 혼인을 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럼 각하께선 어느 가문과 저를 맺으실 생각이십니까?”

루드비카는 여유로웠다. 오히려 흥미를 보이는 건지 흥미가 없는 건지 알 수 없으나 팔짱까지 끼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에 후작은 미간을 좁혔다. 아무리 제 아들이라곤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일 때면 자신이 아들을 상대하는 건지, 요망한 악마를 상대하는 건지 머리가 아파왔다. 후작은 속으로 신음을 뱉어내며 일관된 목소리로 물었다.

“흥미가 있는 것이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각하께서 저를 위해 고심한 끝에 맺어주시려는 혼인이 아닌지요?”

“그래도 네 의견을 묻고 싶구나. 어느 가문의 여식이었으면 좋겠느냐. 백작? 후작? 공작? 하지만, 네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공작가문까지는 무리인 듯 보이구나.”

이것저것 조건을 생각하고 거르다보니, 후작은 공작가문까지는 무리라 생각했다. 말만 잘 들었다면 공작가문과 혼인을 시키는 건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꼴을 보니 그 어느 공작가문이 제 아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 후작은 현실을 직시하듯 냉정히 뱉어냈다.

“그렇습니까? 이래보여도 제가 사교계에서 여러 공작들께 꽤나 미움을 받고 있긴 하죠. 방랑하고 여색을 즐기는 공자라고.”

“그걸 잘 아는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교계를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이냐? 어찌되었든 혼인이 정해지면 넌 데릴사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귀족가의 모든 차남들이 그렇듯 네 형을 보좌할 능력이 못되면 혼인이라도 일찍 해서 그 가문의 데릴사위로 들어가 장인을 모셔야하지 않겠느냐.”

“각하께선 제가 데릴사위로 들어가면 장인을 잘 모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루드비카의 질문에 후작은 잠시 입을 꾹 다물었다. 루드비카의 말처럼 어느 가문의 데릴사위로 들어간다 해도 제 아들은 누군가를 극진히 모실 성격은 못됐다. 오히려 비슷한 성격의 여인과 혼인을 하면 흥청망청 재산을 쓰며 사교계에 드나드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래도 후작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누구나 혼인을 하면 달라지 게 되었다. 루드비카도 분명 혼인을 하면 가문에 정착하고 자식을 위해 변할 거라 생각했다.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면 달라진다. 가족이 생기고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지니게 된 그 순간부터 달라지지. 너도 그 방랑한 성격이 고쳐질 것이다. 아이가 생기면 더욱 정착하겠지.”

루드비카는 후작을 보았다. 자신은 틀림없이 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 이내 루드비카는 그 눈동자가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꽃가게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진한 미소를 지으며 창가를 두드렸다. 창가를 두드리자 그 소리를 들은 마부가 마차를 멈췄고, 후작은 그런 루드비카의 행동에 지적했다.

“마차를 왜 멈추는 것이냐.”

루드비카는 후작의 물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의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반 정도 몸을 빼냈다. 그리곤 꽃가게를 가리키며 물었다.

“마침 꽃을 사고 싶었습니다. 각하께도 꽃 한 송이 사드릴 수 있습니다만.”

“루드비카!”

장난기 다분한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후작은 괘씸하단 표정을 지으며 루드비카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루드비카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는지 문을 전부 닫기 전, 후작을 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각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 작위를 받지 않는 것에 포기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죠. 하지만, 혼인과 그건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흥미가 있다 말도 안했고, 한다고도 말 하지 않습니다. 각하.”

“루드비─!”

“저는 천천히 꽃구경이나 하며 왕실에 갈 테니, 각하께선 먼저 가시기를. 그럼, 저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루드비카는 후작이 마차 밖으로 나오기 전에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던 마부에게 어서 가라 신호를 보내자, 마부는 고삐를 움직이며 마차를 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후작의 모습이 보여 루드비카는 손을 들어 흔들기까지 했다. 역시 후작이랑 마차에 같이 타는 건 성미에 맞지 않았다.

“자, 그럼 어디한번 가 볼까나.”

가볍게 발걸음을 움직여 루드비카는 사뿐한 걸음걸이로 꽃 가게로 향했다.

헤르세인은 눈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손을 조용히 흔들고 있는 익숙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설마 이곳에서까지 만나게 될 줄이야…. 오늘 왕실 도서관에 발을 들인 것이 벌써부터 후회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루드비카는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답했다.

“오늘은 여기서 만나는 군요.”

“여기에는… 무슨 일로.”

헤르세인의 건조한 물음에 루드비카는 짙게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그야,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죠. 아가씨도 그런가요?”

“당신은 당신 볼일 봐. 난, 내 볼일보고 돌아갈 테니까.”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는 지나쳤다. 몇 번이나 와본 익숙한 걸음으로 오늘 그녀가 빌려야할 책이 있는 장소로 걸어갔다. 몇 권인지 모를 수 천 권의 책들이 나열되고 보관되어 있는 왕실 도서관. 오랜 종이의 냄새와 특유의 먼지 냄새가 헤르세인의 코를 자극시켰지만 그 냄새가 오히려 안정감을 주기까지 해, 조금 예민해진 신경을 한층 풀어낼 수 있었다. 조용하면서도 지식을 습득하기엔 안성맞춤인 장소. 그러나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 왕실 도서관을 찾는 이는 거의 없었다.

정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중요한 역사 문서를 참고하고자 드나드는 몇 몇 사람만 있을 뿐. 덕분에 헤르세인에겐 자신의 궁전 다음으로 조용히 책을 보거나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루드비카에게 들킨 꼴 같아 헤르세인은 나름 불만이기도 했다. 혹시라도 루드비카가 말이라도 걸까봐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책장 쪽으로 몸을 가리며 책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권이 어디 있지… 다음 권이… 아, 찾았다.”

그녀가 찾은 책은 다름 아닌 여덟 살의 아이들이 읽을 법한 동화책이었다. 유아수준의 동화책이 아닌 꽤, 스토리가 방대한 이야기책이라 의외로 재밌는 책이기도 했다. 물론, 스토리뿐만이 아닌 그녀가 술술 글씨를 읽는 수준이 여기까지이기에 선택의 폭이 좁기도 했다. 천재가 아닌 이상, 두꺼운 역사학의 책을 읽거나 1도 모를 어려운 단어가 적힌 책을 볼 만큼 헤르세인은 아직 무리였다.

그녀가 여태까지 보는 책들은 열 살에서 열다섯 살의 수준인 소년, 소녀들의 맞춤책들. 현재 배우고 있는 역사나 지리 또는 사회학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력이 그나마 받쳐주어 빠른 진도로 넘어가는 셈이었다.

헤르세인이 책꽂이에서 빼낸 책은 「작은 완두콩의 모험」이라는 동화책이었다. 땅에서 자라나 콩깍지의 집에 사는 형제들과 함께 살던 막내 완두콩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떨어져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 적당한 두께와 가뿐히 해석할 수준의 많은 글씨가 있어 읽기에는 무리가 없었다. 헤르세인은 대충 책장을 넘기며 확인을 하다가, 언제 인기척 없이 다가왔는지 바로 가까이서 들리는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하마터면 책을 떨어트릴 뻔했다.

“흐음, 동화책이라.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네요.”

“까, 깜짝이야….”

“이런, 제가 너무 인기척 없이 온 건가요?”

“비켜.”

그녀는 미간을 좁히고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루드비카와 마주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인지 생긋 웃던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쏙 빼내 가져갔다.

“뭐 하는─!”

“쉿, 도서실에선 조용히.”

갑작스럽게 책을 빼앗은 루드비카의 행동에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다행이도 루드비카는 검지손가락을 들어 바짝 입에 붙이며 조용히 하란 신호를 보냈지만, 그 행동이 마음에 들턱이 없었다. 자신이 고른 책을 마음대로 뺏은 건 그가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루드비카를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정작, 루드비카는 무슨 생각인지 그녀가 고른 책 제목을 뚫어지게 보고는 매끄러운 턱을 쓰다듬었다.

“작은 완두콩의 모험이라. 아가씨께선 혹시 이런 책이 취향이신가요?”

마음 같아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상 그런 말을 뱉어내면 분명 물고 늘어질 것 같은 기분에 헤르세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꼬아서 물어봤다.

“그럼 어쩔 건데?”

그러나 그녀의 생각과는 다르게 루드비카의 대답은 너무도 심플했다.

“그럼,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싶네요.”

“…뭐?”

“저도 어릴 때 빼고는 거의 동화책을 접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 책은 제가 잠시 빌리도록 하죠.”

“아...”

어이없게도 그에게 책을 빼앗기고 말았다. 처음엔 도로 빼앗을까 생각도 했지만 헤르세인은 불필요한 체력소모는 하고 싶지 않아 금방 포기하고 말았다. 읽고 싶은 책이지만, 다른 동화책들은 아직 책꽂이에 많이 꽂혀 있었다. 바로 몸을 돌려 헤르세인은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책을 빼냈다. 이번 책의 제목은 「마법을 부리는 병아리」란 조금 유치한 제목을 가진 책이었다. 이제 정말로 빌릴 생각을 하며 몸을 돌렸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책을 뺏기고 말았다.

“아, 이것도 재미있어 보이네요. 의외로 아가씨께선 재미난 제목을 가진 책을 잘 고르시군요.”

지금 장난하자 이건가. 헤르세인은 결국 참다못해 크게 숨을 뱉어내며 그에게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할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서 자꾸 그 책을 뺏는 거잖아.”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노려봤다.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오히려 요염한 미소를 짓더니 순식간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었다. 갑작스럽게 들이밀어진 그의 얼굴에 헤르세인은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 루드비카는 피식 웃으며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장난치듯 헤르세인의 코끝을 살짝 눌렀다 때며 바로 앞에서 속삭였다.

“그럼 제게 뺏기고 싶지 않으면 같이 책을 읽는 건 어떨까요?”

눈앞의 남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 헤르세인의 얼굴은 황당 그 자체였다.

“그게 무슨...”

“같이 읽을 생각이 없다면 제가 계속 뺏어서 읽을 수밖에요.”

안 그래도 오늘 새벽부터 그런 악몽에 시달리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평소에도 거의 불면증이다시피 잠을 제대로 이룬 적은 없지만, 오늘처럼 날밤을 샌 일은 거의 없기에 헤르세인은 안 그래도 머리에 피곤함을 느꼈다. 그런데 루드비카를 만난 것은 물론 그의 장난에 더한 피곤함까지 느낀 헤르세인은 이대로 그냥 책은 포기하고 궁전으로 돌아갈까 싶었다.

하지만 책이라도 가져가지 않으면 궁전에서 그녀가 할 일이 마땅히 없었다. 그놈의 공부는 어차피 죽어라 하고는 있지만 책을 읽는 것이 그나마 자유의 시간이었다. 어찌됐든 헤르세인은 동화책을 포기할 순 없었다. 그렇다고 다시 다른 책을 꺼내자니 분명 뺏길 것이 뻔했고. 결국, 헤르세인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방해는 하지 마.”

“물론입니다.”

헤르세인은 왕실 도서관의 입구는 물론, 사서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루드비카에게서 빼앗은 동화책을 펼쳤다. 그러자 의자가 조심스럽게 끌리는 소리가 나면서 어느새 그녀의 바로 맞은편에는 뻔뻔한 그가 앉아 있었다. 언제 다양한 책들을 준비했는지 루드비카의 주변으로 꽤나 두꺼운 책들이 놓여 있었다. 생긴 것 답지 않게 무슨 책인지도 모를 그런 두꺼운 책을 읽는다 생각하니 헤르세인은 나름 의외인 시선으로 그를 보다 이내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런데 다른 쪽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꽃다발의 모습에 그녀는 가자미처럼 눈을 좁혔다.

‘꽃다발? 이번에는 새빨간 꽃이네.’

그가 그 꽃다발을 누구에게 줄지는 관심 없었다. 오히려 그는 꽃다발과 참 어울리는 특이한 남자 같았다. 보통 남자들과 꽃을 대비해보면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는 어이가 없을 만큼 잘 어울렸다.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얼굴이 빼어나서 그런가.’

이젠 익숙하다 싶을 만큼 몇 번이나 본 얼굴이지만, 그는 확실히 여자들보다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웠다. 아니 한 마디로 그냥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가 어떤 꽃을 가지고 있던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특히나 그의 머리색과 빼닮은 붉은 꽃이.

‘아… 너무 대놓고 쳐다봤나?’

너무 노골적으로 본 탓일까. 분명 시선은 책에 있음에도 시선을 느꼈는지 루드비카는 입꼬리를 올리며 능청스럽게 입술을 움직였다.

“그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제가 한 미모 하는 건 알고 있으니, 너무 쳐다보진 말아주세요. 계속 그렇게 쳐다보시면 저도 꽤나 부끄러움을 탄답니다. 아가씨.”

헤르세인은 다급히 펼치고 있던 책을 들어 올려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숨겼다. 원래는 볼 생각조차 없었지만, 그의 말처럼 너무 빤히 보고 말았다. 하지만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 자화자찬한 모습에 헤르세인은 그것만큼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그의 얼굴을 그렇게 빤히 볼만큼 인정을 안 할 수도 없었다. 한 미모 하는 건 사실이니까.

헤르세인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빠르게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책에 집중했다. 이러다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책의 첫 페이지조차 못 넘길 것 같았다. 등을 꼿꼿이 피고서 헤르세인은 최대한 글자에 집중했다. 그리고 루드비카에게서 돌려받은 「작은 완두콩의 모험」의 책을 펼쳐 글을 읽기 시작했다.

막내 완두콩에게는 여럿의 형제가 있었다. 콩깍지라는 넓은 집에서 형제들과 같이 오순도순 자란 막내 완두콩. 그리고 사람의 손에 재배되어 형제들과 같이 콩깍지의 집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데 모여 있는 형제들과는 달리 막내 완두콩만이 잘못된 방향으로 벗어나 홀로 떨어지게 되었고 막내 완두콩은 형제들을 불렀지만, 이미 사람의 손에 모여 어디론가 가버리는 형제들의 모습에 막내 완두콩은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홀로 땅에 떨어진 막내 완두콩은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듯 험하게 굴러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땅에 구르거나 또는 벌레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했지만, 막내 완두콩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러다 막내 완두콩은 몇 번이나 구른 끝에 땅속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막내 완두콩을 불쌍히 여긴 하늘은 빗방울을 내려주어 땅을 적셔주었고, 거의 말라가던 막내 완두콩은 땅에서 적셔진 물을 마시며 기운을 차리게 된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하늘은 태양을 내리쬐며 막내완두콩을 위해 빛을 내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막내 완두콩은 싹을 뜨며 점점 자라게 된다.

싹은 땅속에서 뻗어 나와 더욱 성장했고, 어느덧 막내 완두콩은 더 이상 막내 완두콩이 아닌 어른 완두콩으로서 성장하게 되며 땅에서만 봤던 세상이 아닌 좀 더 높은 지상의 세상을 보게 된다. 형제들은 이제 만날 수 없으나 땅의 양분과 태양의 빛으로 성숙한 완두콩이 된, 막내 완두콩은 예전처럼 자신과 닮은 형제들의 탄생으로 그렇게 다시 행복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의 끝.

기대를 하고 봤으나 막상 끝까지 보니 찜찜한 기분. 막내 완두콩의 심정을 중반까지는 이해할 순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고 결국엔 형제들이 다시 생기면서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이 헤르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애초에 동화책에는 현실성 따윈 없었다. 오로지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이자 해피엔딩밖에 없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일 뿐. 그러나 많은 동화책을 봐왔지만, 헤르세인은 이 동화책만큼은 그다지 공감 가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이번엔 다른 동화책을 읽을 생각으로 이미 옆에 있던 다른 책을 펼쳤다. 그 책은 아까 루드비카가 뺏었던 「마법을 부리는 병아리」란 제목을 가진 동화책이었다. 이 책은 재미있길 바라며 헤르세인은 이제 막 글씨를 읽으려 할 때였다.

“아가씨는 다른 시녀들보다 시간의 여유가 많은 것 같군요.”

순간적으로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에서야 다시 생각난 거지만 그에게 한 거짓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남작 가문의 여식이자 왕실의 시녀라고 대답한 거짓말. 확실히 그의 말처럼 시녀라면 본디 어느 궁전에 소속되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녀보다는 덜 바쁠지 몰라도 시녀라고 한 이상 바쁜 티는 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떳떳하게 동화책을 펼치고서 앉고 있다 보니 자신의 상황이 우습기도 했다. 헤르세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거짓말을 보태서 얼굴에 철판을 깔자는 생각으로 당당히 대답했다.

“의외로 시간이 많아. 시녀는. 그리고 시녀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행이도 헤르세인의 거짓말에 넘어갔는지 루드비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하녀들과는 다르게 시녀들 대부분이 작위가 낮은 귀족이거나 혹은 몰락귀족 혹은 지방출신 귀족들이니까요. 그래도 평민보다는 귀족이라는 지위가 있어 왕실에서 일하기는 편하죠. 그런데 아가씨는 어느 궁전의 소속이죠?”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소속을 물어보는 루드비카의 물음이 들렸다. 가면 갈수록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덮어쓰는 것 같아, 헤르세인으로선 귀찮을 정도였다. 그의 의도가 어찌됐든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해 아무 소속을 말했다간 그가 찾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헤르세인은 망설이다 끝내 도망치기로 결정하며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 그럼 이만.”

“방금 전까지 시간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건 참 잘도 기억하는 남자였다. 헤르세인은 뒤를 돌아 있는 채로 뭐 씹은 얼굴을 하다가, 슬쩍 루드비카 쪽으로 고개를 돌려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다.

“잘 생각해보니 내가 잠시 잊고 있던 것 같아서. 그럼.”

역시 악몽을 꾼 날은 얌전히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것이 옳았다. 그놈의 책을 빌리고자 만나고 싶지 않았던 남자와 만난 것은 물론, 귀찮게 상대를 해야 하는 것까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이미 어떤 책을 읽었는지 루드비카 덕분에 헤르세인은 내용 같은 거 전부 까먹어 버렸다. 어서 여기서 벗어날 생각으로 도서관 바깥으로 나와, 자신의 궁전으로 향하는 길로 헤르시인은 서둘렀다.

“이쪽으로 가면 아가씨가 소속되어 있는 궁전으로 가는 건가요?”

“다, 당신!”

헤르세인은 정말로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서 서둘러 뒤를 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인기척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언제 다가왔는지조차 모를 만큼 루드비카는 바짝 뒤에 붙어 있었다.

‘만약 이 남자가 말을 안 꺼냈으면 그대로 내가 있는 궁전에 갈 뻔했어.’

루드비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헤르세인은 서둘러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한층 경계어린 표정으로 그를 보자, 루드비카는 서운한 표정을 보이며 어깨를 으쓱였다.

“아가씨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여인들 중에 가장 비밀이 많죠. 알고 있나요?”

“...”

“물론, 너무 비밀에 쌓여 있어 알고 싶은 마음이 잔뜩 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도망치진 말아주세요. 자, 이건 아가씨의 선물입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부디 받아주시기를.”

“이건...”

루드비카가 그녀에게 내민 건 다름 아닌 붉은 꽃송이가 가득한 꽃다발이었다. 분명, 그녀가 루드비카가 앉아 있던 책상 위로 봤던 그 꽃다발이었다. 그런데 왜 이걸 자신에게 주는 건지 의아한 헤르세인은 차마 받을 수 없었다. 꽃다발이 누구의 것인지 관심이 없었지만 헤르세인은 그 꽃다발의 주인은 그래도 루드비카의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걸 자신에게 주다니? 그의 머리색을 빼닮은 새빨간 꽃잎의 꽃다발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헤르세인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옅은 숨을 뱉어내며 미소를 보이곤 이유를 설명했다.

“그냥 주는 선물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부터 아가씨의 얼굴빛이 안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꽃을 받고 기운 냈으면 하는 의미로 주는 제 선물입니다. 이렇게 친절히 이유까지 설명했는데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겠지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전히 자신의 앞으로 꽃다발이 내밀어져 있었다. 노란빛의 색지 사이로 한 다발 리본으로 묶여 있는 붉은 꽃다발. 헤르세인은 그 꽃다발을 보며 루드비카에게 물었다.

“꽃 이름이… 뭔지 알려준다면….”

자신이 대답하고도 유치한 대답이었다.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헤르세인을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이 붉은 꽃의 이름은 ‘장미’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죠.”

“장미…?”

“상당히 탐스럽고도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매혹적이기까지 하고… 다만, 그 향기가 워낙 진해 어떤 사람은 그 향기의 유혹에 빠져 헤어날 수 없다고도 한 답니다. 그만큼 장미는 매혹적이고도 유혹적인 꽃이죠. 한번 맡아보세요.”

결국 루드비카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코끝 가까이 꽃에 맞대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키자 진하게 코끝을 감싸는 장미의 향이 진하게 퍼져갔다. 워낙 그 향이 진해 헤르세인은 잠시 놀라 코끝을 멀리 했지만, 이상하게도 루드비카의 말처럼 꽃이 유혹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꽃향기를 맡아보았다. 처음엔 그 향기가 너무도 진해 거북함이 들었지만, 꽃잎의 진한 색깔과 꽃모양의 탐스러움, 그리고 유혹하는 꽃의 자태가 묘하게 중독을 일으켰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헤르세인은 알 것 같았다. 장미는 확실히 유혹적이었다.

그 향기가 참으로 맡으면 맡을수록 유혹적이면서도 어떨 땐 은은하기까지 해,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작 꽃향기를 맡았을 뿐인데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던 피곤함이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오히려 안정감이 찾아와 오래오래 맡고 싶을 만큼 헤르세인은 꽃에 시선을 떼지 않았다.

“향기가 너무 진해서 거부감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맡아보니 꽃향기가 괜찮은 것 같아. 기분이 조금 좋아질 정도로. 정말로...”

“다행이네요. 좋아해주셔서.”

루드비카의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봤다. 처음엔 홍염과도 같은 새빨간 머리색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꽃향기에 취해서 일까. 그의 머리색은 장미와 너무도 똑 닮아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옅은 미소를 그리고 말았다.

“당신 머리색, 장미랑 닮은 것 같아. 아니… 당신이 장미를 닮은 건가? 아님, 장미가 당신을 닮은 건가? 그래도 어느 쪽이든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보니 당신이 왜 장미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

“당신과 장미는 서로 닮은 것 같아.”

쿵, 쿵, 쿵―

루드비카는 말아 올리고 있던 입꼬리가 정색하듯 순식간에 내려가 버렸다. 제멋대로 망치질 하듯 크게 요동치는 심장소리가 루드비카의 귓가를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루드비카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과거의 기억이 되 살아나, 그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어머니, 반한다는 건 대체 뭔가요?」

「으음, 글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어미는 너의 아버지를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기분 이었다고 할까? 그리고 막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했지. 또, 주변엔 그 사람 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 장소가 어디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심장을 죽을 만큼 두근거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지. 아마 그게 반했다는 것이 아닐까?」

그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루드비카의 시선에는 오로지 그녀 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세상은 하얀데, 그곳에 유일하게 그녀만이 있었다. 그리고 새빨간 장미꽃을 들고서 그녀가 작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과 장미꽃이 닮았다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소를 보여주며. 자꾸만 요동치는 심장과 그녀밖에 보이지 않는 시선.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일 따윈 없을 거라 생각했다.

스스로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고 남들이 말하는 방랑벽처럼 누군가의 곁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할 성격이도 했으니까. 하지만, 루드비카는 자신이 누구의 핏줄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빠르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심장에서 느끼는 그 마음을. 루드비카는 여전히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그녀를 보며 함께 웃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애틋한 시선을 하며 그 붉은 입술을 움직여 저도 모르게 고백했다.

“아무래도 전… 아가씨에게 반한 것 같네요.”

헤르세인은 눈앞에 있는 장미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장미꽃의 유혹적인 모습 때문이 아닌, 새빨간 꽃잎을 볼 때면 그가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그의 얼굴만 떠올린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 장미꽃을 주던 그가 무슨 이유인지 자신에게 고백을 했다. 아직도 그 말이 생생이 들려 헤르세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전… 아가씨에게 반한 것 같네요.」

정말로 뜬금없던 그의 고백. 헤르세인은 처음엔 그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다. 그의 성격으로 보나 말투로 보나, 진심 같은 건 많이 느껴본 적이 없기에 이번에는 아주 큰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단단한 착각이란 걸 상기해주듯 루드비카는 여느 때와 다르게 진심어린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 번 고백했다.

「진심입니다, 전 아가씨에게 반했습니다.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심으로.」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정말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하며 대답하던 루드비카. 그러나 헤르세인은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의 진심어린 고백도 당황스러웠고, 그 진지한 모습도 당황스러웠다. 아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고백 받는 일은 일 평생 없었다. 하물며 남자란 존재 자체에 관심도 없었다.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일이란 건 그저 평범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첫눈에 반했다니. 황당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입은 물고기 마냥 뻐끔거릴 뿐, 목구멍에는 무언가 막히기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루드비카는 작게 미소를 보이며 서둘러 답변을 기다리지 않았다.

「당장은 대답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서 대답할 확신이 선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거절이든 받아들이든 전, 개의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은 단순 제 이기심이자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 뿐. 그러니 무리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드비카는 차분하게 기다리길 택했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 기약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굳이 기다리겠다고 했다. 거절이든, 받아들이든, 자신의 마음이 우선이란 것을 양보해주며 꿋꿋이 기다리겠다고 한 루드비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을까. 정작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와는 다르게 답변을 해야 하는 쪽은 기분이 이상할 만큼 초조하다는 것을.

결국, 그 날 이후로 궁전 바깥으로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은 헤르세인은 장미꽃만을 본채로 생각에 잠겼다.

‘내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거절을 한다는 가정 하에 나올 그의 반응을. 슬퍼한다고 해야 하나, 아님 어색하다고 해야 하나. 도무지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다고 그가 슬픈 표정을 지을 리가 없지 않던가. 루드비카란 남자에 대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런 표정까지 지을 리는 없다고 헤르세인은 확신했다.

‘그럼 내가 그 고백에 승낙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루드비카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봤다. 좋아하는 마음조차 없는데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 그는 웃고 있지만, 여전히 무표정인 자신의 얼굴. 헤르세인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다.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의 고백을 받아들인다니. 거기다 그는 진심으로 한 고백이 아니던가. 장난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진지하게 생각하자니 어떻게 거절해야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보다 왜 하필 나지? 나 말고도 주위엔 여자가 넘쳐날 텐데 왜 하필 나인 거지? 그 남자. 눈이 이상한 거 아닐까?’

자신 말고도 세상에는 여자가 넘쳐났다. 안 그래도 그의 위치나 얼굴로만 보아도 주변에 차고 넘칠 정도로 여자가 많을 텐데, 하필 자신이라니. 생긴 것 답지 않게 참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았다. 아님, 머리가 정말로 이상하거나.

‘그래도 빨리 대답하는 편이 낫겠지. 오래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후우….”

헤르세인은 길게 숨을 뱉어냈다. 서둘러 이런 머리 아픈 일은 마무리 짓고 다른 일에 신경 써야만 했다.

“정중히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둘째치더라도 문제는… 케시아 왕녀의 탄생일인데….”

헤르세인은 저번에 왕비가 말하던 케시아 왕녀의 탄생일을 떠올렸다. 환영식 때 처음 봤던 제1왕녀인 케시아 왕녀. 왕후와는 다르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누가 봐도 환영식의 회장에서 제일 예뻤던 케시아 왕녀. 마음까지 예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제1왕녀답게 성숙하고 정말로 고귀한 피를 이어받은 왕녀다웠다. 자신과는 너무도 다르게 말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탄신일에 참석 따윈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생일조차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라니. 왠지 기분이 씁쓸했다.

‘그러고 보니 내 생일이 언제였더라. 아니, 내 생일이 있기는 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생일이란 것이 자신에게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태어난 날을 축복하며 케이크에 초를 꽂고, 촛불을 분다지만 슬럼가에 살면서 누군가가 본인의 생일을 챙기는 모습을 본적이 없었다. 가끔가다 자신의 생일이라며 어필하는 또래 아이들이 몇몇 있긴 했지만, 그렇게 거창히 생일을 챙기는 일은 없었다. 케이크 살돈도 초를 살 돈조차 없는 슬럼가에서 하물며 생일까지 챙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크게 저으며 더 이상 생일에 관해선 떠오르고 싶지 않았다. 생일을 챙긴 기억도 없었고, 좋았던 기억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해봤자 머리만 아파왔다.

로렌드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팔짱까지 낀 채로 눈앞의 인물을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노려보고 있다는 표현이 맞았다. 그러나 그런 로렌드의 표정을 모르는지 맞은편에 앉아 오랜만에 놀러온 루드비카의 표정은 평소보다도 화사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결국, 두 눈뜨고 지켜볼 수 없던 로렌드는 눈썹을 꿈틀거리며 루드비카를 채근했다.

“그래서?”

“응?”

“다짜고짜 찾아와서 차를 달라하질 않나, 설마 또 그냥 놀러왔다 이딴 말 할 생각은 아니겠지?”

싸움 걸 기세로 로렌드가 가만히 밀어붙이자, 루드비카는 작게 흥얼거리던 콧노래를 멈추며 오늘따라 눈부실 만큼 화려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 그래.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말로.”

“중요한 할 말? 그게 뭔데. 나 바쁘니까 빨리 말해.”

어서 말하라는 로렌드의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생긋 웃으며 나긋하게 대답했다.

“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 아니, 내가 반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잠깐, 다시 말해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내 마음을 단숨에 가져간 사람이.”

“너 지금, 고작 그딴 말 하려고 날 찾아 온 거냐? 한심하다 진짜, 한심해.”

중요한 할 말이 있대서 기껏 기대를 하며 기다려줬건만, 루드비카에게서 나온 대답은 고작 쓸데없는 말이었다. 애초에 기대를 한 스스로의 잘못이긴 했지만, 로렌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를 누르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나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려는 건지 루드비카는 물러서지 않았다.

“로렌드,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아, 그러셔?”

로렌드는 분노를 포효하는 대신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오랜 소꿉친구로 자라온 로렌드는 루드비카가 어떤 남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가문은 뒤로 제치더라도 얼굴부터가 모든 걸 먹고 들어가니 그의 주변에는 치워도, 치워도 여자들이 끝이 없었다. 그래도 제 딴에는 무작정 여자들을 만나는 것도 아닌 제 취향에 만든 가장 화려한 여자들과 어울리긴 했지만, 루드비카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마음에 품은 적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보인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루드비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다? 저건 다 거짓말이 틀림없었다. 분명 어딘가 사교모임에서 제 마음에 든 여자를 만나 저런 표현을 쓸 뿐, 로렌드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네가 여자 만나는 게 어디 한두 번 일이야? 너 평소에도 그런 어투로 나한테 말하고는 많이 만나봤잖아. 그리고 나하고 이런 잡담이나 떠들 시간이 있으면 네가 반했다고 치는 그 여자에게 가서 같이 오페라나 관람하던가. 그것도 네가 잘 하는 일이잖아?”

이것으로 루드비카와의 대화는 종료. 로렌드는 상대하기 귀찮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업무하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로렌드, 내 말을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난 진심이야. 그 아가씨에게 반했어. 거짓도 없는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난 내가 진심으로 반한 상대가 아닌 이상, 너에게 조차 한 번도 이런 표현 쓴 적 없단 걸 알고 있지 않아?”

로렌드는 뒤를 돌아 루드비카를 보았다. 여전히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평소처럼 나사 빠진 분위기가 아닌, 진심어린 분위기였다. 결국 돌아가려던 행동을 멈추고 로렌드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 루드비카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자. 그 여자는 어느 가문인데?”

그저 평범하게 물어본 로렌드의 질문에 어째서인지 루드비카는 고심이 생각하듯 미묘한 답변을 들려줬다.

“으음… 남작가문?”

“너 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그럼 그 여자는 어떤데?”

“내 눈엔 사랑스럽게 보여.”

한 순간, 로렌드의 표정이 썩어들어 갈 만큼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왕 질문을 뱉은 거 계속해보자는 생각으로 로렌드는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거 말고, 네가 여태까지 만난 귀족 여자들과 똑같냐고.”

“아니, 심심할 만큼 수수해.”

“너, 네 얼굴만큼이나 화려한 여자들이 취향 아니었냐?”

순간의 정적이 두 사람을 감쌌다. 로렌드의 말을 듣던 루드비카는 턱을 툭툭 건들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여태까지 만나본 여인들의 외모를 떠올려보며 대답했다.

“네 말대로 화려한 쪽이 좀 더 내 취향이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야, 그 어정쩡한 대답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사람의 취향은 변하는 법이니까. 지금은 그녀의 수수한 모습이 내겐 가장 좋아. 꾸밈없는 모습이 더 사랑스럽거든.”

“사랑스럽다니… 너, 제대로 콩깍지가 쓰이긴 했구나.”

로렌드는 헛웃음을 삼키며 루드비카를 빤히 쳐다봤다. 여태까지 루드비카의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보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로렌드는 왠지 모르게 루드비카가 철이든 것 같은 기분 같았다.

“그보다 남작가문이라고? 설마 내가 아는 남작가문 리스트 중에 있는 거냐? 어느 남작가문인데?”

로렌드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루드비카가 어느 남작가문의 여식에게 이토록 빠져버렸는지 궁금하기도 해, 직설적으로 물어봤다. 나중에 그 가문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슬쩍 얼굴도 볼 겸하고 말이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잠시 미간을 좁히다가 이내 뜸을 틀이며 답했다.

“몰라.”

몰라? 로렌드는 루드비카에게 잘못들은 건가 싶었다. 그러나 표정을 보아하니 진짜로 모른다는 표정인 그의 모습에 로렌드는 살짝 경악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모른다고? 네가? 너 혹시 내가 어느 가문의 공녀인지 찾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면….”

그러자 루드비카는 정말로 모른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몰라. 그리고… 아직까지 이름도 모르고.”

“...뭐? 그게 정말이야? 이름도 모르고 어느 남작 가문인지도 모른다고? 네가?”

“그래. 하나도 아는 게 없어. 그녀에 대해서.”

더 이상 충격적인 이야기는 없을 거라 생각했건만, 하다하다 이젠 이름도 가문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루드비카의 대답에 로렌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사교계의 꽃 마냥 공녀들이란 공녀들은 모두 꿰차고 있던 루드비카가 정작 마음을 품은 공녀의 이름을 모른다니. 만약 지금의 자신이 신문사의 기자였다면 이건 특종감이나 다름없었다. 로렌드는 어깨를 움찔하다 결국 실로 오랜만에 폭소를 터트리며 배를 움켜잡았다.

“푸… 푸하하하!”

그러나 정작 로렌드의 그런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루드비카는 웃고 있는 표정 그대로 이마에 실핏줄이 나올 만큼 힘을 주었다.

“웃지 말아줄래? 난 내 나름대로 심각하니까.”

“아하하하! 야! 루드비카! 이 일을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겠어? 내 인생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긴 처음이다!”

“그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찻잔을 네 얼굴에다 던져버리기 전에.”

정말로 던질 듯 한 자세를 하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로렌드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풀어져 있던 자세를 바르게 하고서 헛기침을 뱉어내며 목을 가다듬었다.

“흠흠, 아무튼 웃기긴 웃겼다. 그보다 네 입으로 반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름도 모르고 남작 가문이란 것만 알뿐이지, 가문의 이름조차 모른다? 너 설마 꽃뱀한테 물리기라도 한건 아니지?”

혹시나 하는 로렌드의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그럼 다행이지만 어찌됐든 별일이네. 마음을 품은 상대의 이름조차 모르다니. 참, 대단하네.”

이쯤 되면 박수쳐줄 정도였다. 첫눈에 반한 상대의 이름도 몰라, 가문도 몰라. 사교계의 모든 공녀들을 전부 꿰뚫고 있는 루드비카였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품은 여인의 관한 건 아무것도 모른다니,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이젠 로렌드조차 그녀가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저 루드비카를 반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나 루드비카의 다음 말에, 로렌드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데 로렌드, 또 하나 말하자면 그녀가 내게 감추는 것이 꽤 많아. 몇 번이나 물어봐도 그녀는 내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많거든.”

“혹시, 네가 너무 방탕하고 방랑한 공자님이라 피하고 싶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닐까? 그녀도 네가 어떤 가문의 남자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님, 일부로 너를 유혹하기 위해 그런다거나.”

혹시나 하며, 로렌드는 몇 가지의 가설을 대답했다. 그러자 루드비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 몇 번이나 마주쳤지만 그녀는 뭐랄까 내겐 관심이 없어. 나랑 마주치면 오히려 싫어했지. 지금은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자주보지만. 아, 그리고 너도 한번은 봤을 거야.”

“뭐? 내가?”

로렌드가 도통 모르겠단 얼굴을 하자, 루드비카는 그 날을 콕 집어 주며 대답했다.

“내가 오랜만에 돌아와 너랑 같이 식사하던 날 있잖아. 그날.”

“그날? 그날이라면… 설마, 그 여자?”

“응.”

“네가 반한 여자가 그 여자라고?”

세상을 살다보면 별별 일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설마 루드비카가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할 줄은 누가 알았을까. 로렌드 역시 그날 그녀를 보긴 했지만, 전혀 루드비카가 좋아할 만한 여자는 아니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하기 짝이 없는 드레스와 분을 칠한 흔적도 없는 맨얼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감정조차 없어 보이는 딱딱한 얼굴. 처음 같이 식사하자고 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만, 루드비카는 지금까지 그 여인과 많이 마주쳤고 결국 그 여인에게 반하고 만 것이다. 그 루드비카가 말이다.

그렇다고 눈이 낮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 특유의 분위기며 꾸미지만 않았을 뿐, 확실히 깔끔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기품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 뿐. 루드비카의 보는 눈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어찌됐든 축하할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한편으론 그의 벗이어서 인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직도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루드비카라니. 세상 말세였다.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케시아 왕녀의 탄생일. 그녀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열고자 이미 국왕과 왕후는 오래전부터 많은 인력을 쏟아 붇고 있었다. 반대로 모두가 연회 준비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을 동안, 탄생일의 주인공인 케시아는 그녀의 전속시녀인 루네즈의 조언을 받으며 오늘 입을 드레스를 고르고 있는 중이었다.

“왕녀전하, 오늘은 이 드레스가 어떠십니까? 노란 파스텔 톤의 드레스가 봄꽃처럼 화사하여 왕녀전하와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저 드레스로 해야겠구나.”

“예, 전하.”

루네즈의 눈짓으로 대기하고 있던 하녀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다른 드레스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루네즈는 그녀가 마실 차를 따르는 동안, 또 다른 하녀들은 케시아가 정한 드레스와 어울리는 장신구를 들고서 작업에 들어갔다. 오늘은 괜한 늦장으로 늦게 일어난 케시아는 하녀들이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잠옷과 속옷을 벗고서 새로운 속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속치마와 또 다른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겹겹이 입자, 어느새 그녀의 치마는 풍성해졌다. 겉을 화사하게 해줄 노란 파스텔 톤의 겉 드레스를 입히자, 오늘따라 유독 그녀의 금발이 더욱 빛을 발했다.

“루네즈, 차는?”

갈증이 났는지 차를 달라는 케시아의 요구에 루네즈는 서둘러 찻잔에 차를 따라 조심스럽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왕녀전하.”

“음, 오늘은 차가 굉장히 좋구나.”

드레스보다 진한 레몬 빛의 차가 케시아의 입맛을 돋우게 했다. 차 맛의 덕분인지 기분 좋은 미소를 보이며 편안한 숨을 내쉰 주인의 모습에 루네즈는 마침 떠올린 기억을 붙잡으며 서둘러 입을 열었다.

“왕녀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렴.”

“아까 본성에 잠시 들렸을 때,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향하시는 길을 보니 왕실 도서관으로 향하신 것 같았습니다.”

“왕실 도서관?”

“네, 전하.”

루네즈는 케시아 왕녀의 전속시녀로서 그녀에 관한 것은 모든지 알고 있었다. 물론, 케시아가 광장한 신임을 주기 가능한 일이었고, 루네즈는 그런 케시아를 모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역시 만만치 않았다. 루네즈의 말을 조용히 듣던 케시아는 문뜩, 오라버니가 전에 말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오라버니께서 그 분이 왕실 도서관에 다니시게 한 걸 허락하셨다고 나랑 얘기 도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연회준비가 막바지인지라 케시아는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하지만 드디어 그 막바지의 일이 끝이 나고 오늘은 굉장히 시간이 넘치는 지라, 케시아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를 깜짝 놀릴 기회를 생각했다.

‘요즘 사교모임에도 참석을 못해 도통 그 분의 얼굴을 못 봤는데 마침 잘 됐어.’

기분 좋은 표정을 하며 케시아는 루네즈에게 대답했다.

“왕실 도서관이라고 했지?”

“예, 전하.”

“그럼, 서둘러야겠구나.”

서두를 생각에 케시아는 간편한 화장과 장신구로 꾸미고서 왕실 도서관으로 향했다. 루드비카를 만날 생각에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칠 듯이 뛰던지. 마음 같으면 빠르게 뛰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은 왕성.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케시아는 그럼에도 체통을 지키며 우아하게 걸어야만 했다. 어느덧 거의 왕성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환한 미소를 띠우고 있던 케시아는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저 여인은...”

“헤르세인 왕녀가 아닙니까?”

케시아가 보고 있는 시선을 따라 루네즈 역시 왕실 도서관으로 오고 있는 헤르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헤르세인의 발걸음이 더 빨랐기 때문인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어째서 헤르세인이 저곳에...’

케시아는 의문을 품으며 잠시 생각에 빠졌다. 하지만 무언가 불길함을 느낀 케시아는 다급하게 걸어가 굳게 닫혀 있는 도서관의 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 생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리만큼 떨리는 두 손에 케시아는 결국, 문을 활짝 열기 포기했다.

“왕녀전하?”

루네즈가 의아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지만 케시아는 조용히 하란 뜻으로 검지 손가락을 올리며 신호를 보내자, 루네즈는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 빛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문의 틈을 벌려놓은 케시아는 눈동자를 굴려 안쪽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보고 싶어 하던 루드비카의 얼굴을 본 순간, 안심과 동시에 심장이 덜컥 멈출 수밖에 없었다.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자신에겐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을. 그것도 아직, 자신조차 한번밖에 만나지 않은 헤르세인에게 진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도 진심으로. 마치, 사랑스러운 여인을 보듯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라인하르트 공자가… 아니야, 아닐 거야.’

케시아는 지금의 이 상황을 부정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헤르세인은 늘 자신의 궁전에만 박혀 있어, 도통 사람과 마주할 생각이 없는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다 두 사람이 만날 접전 또한 없지 않는가?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친밀하게 앉아 있는지 케시아는 믿을 수 없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는 질투. 헤르세인이 있는 저 자리는 자신이 앉아야할 자리이며 그가 눈동자에 담고 있는 사람 역시 자신이여야 했다. 케시아는 조용히 문을 닫고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아직은 이르겠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틀린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루드비카, 그 사람만큼은 아무도 건드려선 안됐다. 자신의 사람이자, 오직 자신만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남자. 케시아는 집착으로 얼룩진 싸늘한 눈을 하며 문을 노려보며 입술을 나지막이 루네즈를 불렀다.

“루네즈.”

“예, 왕녀전하.”

“그동안 내가, 헤르세인에게 너무 무심한 듯 싶구나.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든 헤르세인의 그간 행적을 조사해 내게 보고하도록.”

“예, 왕녀전하.”

문하나 사이로 서로 다른 파란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헤르세인의 발걸음은 왕실 도서관으로 향했다. 마치, 그곳에 가기라도 하면 당연한 것처럼 그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였다. 굳게 닫힌 도서관의 문을 열 때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불신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있는 그의 모습을 본 순간, 헤르세인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했다. 긴 책상 중, 한 의자에 앉아 홀로 책을 읽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도서관에 사람이 없어서 인지 그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다. 헤르세인은 요 하루 동안 밤을 새서 생각한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자 나름 당찬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루드비카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그 결심을 실천하고자 책상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똑똑똑.

문이 없음에도 노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는 책으로 얼굴을 가린 것도 있지만, 막상 그를 부르자니 이상하게도 어색했다. ‘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봐’ 또는 ‘당신’ 또는 ‘어이’라고 하자니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최후의 수단은 그가 먼저 말을 꺼내 주는 편이 좋은 선택이지 싶었다. 하지만 나름 책상을 두드려 자신이 왔음을 알리는데도 눈을 마주치기는커녕 여전히 책을 내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어찌해야하나 싶었다.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헤르세인은 미묘한 표정으로 다시 책상에 대고 그를 향해 두드렸다.

똑똑똑.

정확하면서도 일정하게 두드리는 소리. 그러나 여전히 그는 반응이 없었다. 헤르세인은 이쯤 되면 정말로 무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책상을 두드리는데 못들을 수가 있을까. 거기다 바로 맞은편에 앉고 있지 않던가. 헤르세인은 또 다시 책상을 두드릴지 아님, 자신이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먼저 말하기로. 조용히 입을 벌리며 그를 불렀다.

“이… 아니, 저기...”

‘이봐’라고 부르려던 헤르세인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가아 나름 정중하게 ‘저기 할 말이 있는데’라고 말 하려던 찰나였다. 그런데 여태까지 무시는커녕 이미 그녀가 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루드비카는 잠시 책을 내리며 검지 손가락으로 입술을 바짝 대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 중입니다.”

“아...”

입을 벙긋하다 헤르세인은 곧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다 이내 미간을 좁혔다. 아니, 그럼 여태까지 다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다시 책으로 얼굴을 가린 그를 향해 살짝 노려보았다.

‘이 남자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솔직히 말하자면 눈앞의 남자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자신은 할 말만 끝내고 나가면 그뿐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정중하게 고백하던 루드비카의 모습을 떠올리니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서로 쳐다보며 말 하는 편이 좋겠다, 생각한 헤르세인은 끝내 기다리기로 선택했다. 루드비카가 책을 다 읽을 동안 자신도 책을 읽을까 싶어 헤르세인은 주변을 둘러봤다. 여전히 도서관을 꽉 채운 수천 권의 책들이 보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헤르세인은 책을 읽길 포기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몸이 불편해 살짝 뒤척이다 그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보게 되었다.

「천재 작곡가 엘베르드의 연주의 세계」라 적힌 어려운 문구의 제목이 보였다. 아무래도 그가 읽고 있던 예술계 쪽의 관련된 서적 같았다. 헤르세인은 조금 의외란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그저 겉보기에는 가벼운 모습과 놀고먹는 귀족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예술 쪽과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면? 확실히 루드비카 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보였다. 눈앞의 남자는 무엇을 잡든 퍽이나 어울렸고, 생긴 건 여인 같으면서도 검을 잡고 제복을 입은 기사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것 역시 안 어울릴 수가 없었다.

‘역시 얼굴이 잘나면 다 어울리는 건가.’

그래도 그가 검을 잡는 것보단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만약 연주한다면 어떤 분위기의 연주를 하게 될까?’

헤르세인은 음악에 대해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다. 작곡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분위기의 연주를 할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처럼 비슷한 연주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였다.

“무엇을 그리 빤히 보시나 했더니 이 책을 빤히 보셨군요.”

어느새 책을 다 읽었는지 헤르세인은 더 이상 책이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알아챘다. 평소 그가 어떤 책을 읽는지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읽고 있던 그 책을 왜 읽었는지 이상하게 그것이 궁금한 헤르세인은 1초의 망설임 없이 루드비카에게 물었다.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나봐?”